

LEET, MEET, DEET, PEET 문제지

국어 영역

(문학)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LEET,MEET,DEET,PEET 문학 기출

- 1.현대소설 <동굴> 이승우 2005 MEET 예비 44-47
- 2.희곡 <신화 1900> 윤대성 2005 MEET 예비 48-50
- 3.현대소설 <퐁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2005 MEET 12-15
- 4.현대소설 <환시기> 이상 2006 MEET 14-16
- 5.희곡 <좋은 녀석들> 이만희 2006 MEET 17-19
- 6.현대소설 <탈향> 이호철 2007 MEET 16-18
- 7.희곡 <자전거> 오태석 2007 MEET 22-24
- 8.현대소설 <재수 없는 음의환향> 송기숙 2008 MEET 3-6
- 9.시나리오 <안개> 김승옥 2008 MEET 7-10
- 10.희곡 <아벨만의 재판> 이근삼 2009 MEET 14-16
- 11.현대소설 <수레바퀴 속에서> 김향숙 2009 MEET 23-25
- 12.현대소설 <달궁> 서정인 2010 MEET 26-28
- 13.희곡 <우리 시대의 리어 왕> 이윤택 2010 MEET 35-37
- 14.현대소설 <내 여자의 열매> 한강 2011 MEET PEET 23-25
- 15.현대소설 <추일 서정> 서하진 2012 MEET 20-22
- 16.현대소설 <남한산성> 김훈 2010 PEET 예시 12-14
- 17.현대소설 <천지간> 윤대녕 2010 PEET 예비 28-30
- 18.현대소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2009 LEET 예비 16-18
- 19.현대소설 <전황당인보기> 정한숙 2009 LEET 예비 32-34
- 20.현대소설 <먼 그대> 서영은 2009 LEET 17-19
- 21.희곡 <파우스트> 괴테 2009 LEET 26-28
- 22.희곡 <영월행 일기> 이강백 2010 LEET 19-21
- 23.현대소설 <지상의 방 한 칸> 박영한 2012 LEET 27-29
- 24.현대소설 <아르판> 박형서 2014 LEET 26-29
- 25.현대소설 <가면의 꿈> 이청준 2017 LEET 7-10
- 26.독서융합 <이민선> 김자림 2023 LEET 16-18
- 27.독서융합 <탁류> 채만식 2020 LEET 10-12
- 28.독서융합 김소월 & 주요한 2015 LEET 17-20
- 29.독서융합 김춘수 & 김수영 2016 LEET 7-10
- 30.독서융합 황매천 & 이육사 & 윤동주 2018 LEET 10-12
- 31.독서융합 김환기와 향아리 2012 MEET DEET 35-37
- 32.독서융합 브레송이 포착한 자코메티 2011 MEET DEET 35-37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둡고 습했다. 목이 말랐다. 숨쉬기가 곤란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호흡이 전혀 트이지 않았다. 땀방울들이 종기처럼 떼거리로 돌아났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이 암흑인데, 어디선가 가느다란 빛이 보였다. 나의 쓸모없는 눈에 잡힌 그 빛은 금방이라도 그림자가 되어 풀썩 쓰러질 것처럼 희미하게 흐느적거렸다. 나는 갑갑하고 안타까웠다. 나는 저 빛이 검은 재가 되어 아주 가라앉기 전에 이 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빛이 흘러 들어오는 곳을 향해 날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어깻죽지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나는 날개를 활짝 펴 보았다. 크고 힘찬 나의 날개가 나를 황홀하게 했다. 나는 목마른 것도 잊고, 숨이 가쁜 것도 잊고, 나의 날개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볼수록 대견하고 신이 났다. 나는 날개를 펼럭였다. 크고 힘찬 날개가 금방이라도 하늘을 차고 올라갈 것만 같았다. 나는 빛이 스러지기 전에 서두르자고 다그쳤다.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그러나 나의 몸은 그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다시 맹렬한 기세로 날갯짓을 해 보았다. 하지만 나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날개뿐이었다. 크고 가벼운 날개뿐이었다. 나의 다리는 땅 속에 심겨져 있었다. 마치 나무처럼 땅에 박혀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숨이 막히고 목이 말랐다…….

(나) 꿈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인 것 같지가 않았다. 꿈을 꾸면서도 나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다. 이상한 현상이었다. 거기다가 나는 꿈속에서 그 꿈의 출전(出典)까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H. M. 호프의 책이었다. <예술가>라는 그 소설의 한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었다. 날개를 퍼덕이지만, 몸이 땅에 심겨져 날지 못하는 한 사람의 그림. 이상한 그림을 다 그려 놓았구나, 생각하며 들여다본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내 꿈속으로 들어온단 말인가…….

나는 김기홍에게 전화를 걸어 어째서 상대 후보가 조찬 구라는 걸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기홍은 나의 항의를 무시했다. 자신이 말하지 않았어도 결국 알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 누구면 어떠냐고 말했고, 오히려 잘 아는 상대이니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과 나의 특수한 관계를 자꾸만 상기시키면서 다른 생각은 하지 말 것을 몇 번이나 주문했다.

“일은 이미 시작됐어. 어차피 할 거면서 혼자 의로운 척, 순결한 척 위장하는 거, 제발 고만 하자고. 피차 시간 낭비야. 나는 너를 알아. 너도 나를 알고. 더 무슨 말이 필요하지?”

그는 좀 화가 난 것 같은 목소리를 냈다. 마치 징징거리는 어린애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야단치는 듯했다. 그의 뜻밖의 힐난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 속의 가장 부끄러운 부위를 억지로 보여 준 것과 같은 치욕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나는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우리 안을 휘젓고 다녔다.

몇 시간 후 사무장은 내 앞에 봉투를 내놓았다. 나는 무어나고 묻지 않았다. 사무장은 액수를 말했다. 그것은 지난 번에 내가 받은 것보다 두 배쯤 많은 금액이었다. 큰 돈이었다.

“변호사님께서선 선생님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어디, 함부로 이런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믿음과 우정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장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봉투를 열어 보지 않았다. 그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차피 남의 집일망정 내 서재가 따로 있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낡은 집을 수리해 드릴 수도 있을 것이었다. 또……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방 안을 어슬렁거렸다. 마음은 형클어진 실타래와 같았다. 좀처럼 수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만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버렸다. 잠을 자고 싶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좀 달라져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잠을 청할 때마다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런 기대가 충족되곤 했다. 잠을 자기 전에는 몹시 심각하게 마음을 끓이던 일도 자고 일어나면 아주 시시한 일로 바뀌어 있곤 했다. 오늘이야말로 더욱더 그와 같은 잠의 신비한 마력에 잔뜩 기대를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참이었다. 하지만 잠은 좀처럼 찾아와 주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를 몇 바퀴 굴렀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속에서 그와 같이 야릇한 꿈을 꾸 모양이었다.

나는 애써 정신을 수습하고 책상 앞으로 다가가 H. M. 호프를 찾았다. 그림이 나오는 페이지를 펼쳤다. 내 꿈을 복사한 것 같았다. 나는 책상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채 읽지 못한 부분을 마저 읽어 나갔다. <예술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꿈속에서 보았고 그의 책 한복판에 그려진 그 이상한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다) …… 추장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그는 다시 동굴에 갇혔다. 추장은 자신에게 저항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 격인 한 젊은이를 저주하라고 시켰다. 그 젊은이의 가슴에 칼을 꽂아 피를 토하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라고 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심약한 미소년이었던 그가 사냥을 면제받은 대신 맡아 하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들소나 산양이나 사슴에 대해 하는 것이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까지 언제나 명령에 잘 복종했다. 여자를 바꿔 가며 불러들이는 추장의 침소를 치장하라는 요구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했다. 그러나 그는 동족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림만은 그릴 수 없었다. 주술로서의 그림을 그릴 일에 쓸 수는 없었다. 추장은 동굴에 감금하겠다고 위협했다. 전에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그렸다는 이유로 갇혀 지낸 적

이 있는 동굴이었다. 두 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동굴에 갇히는 쪽을 택했다.

동굴 속으로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 들어오지 않았
다. 먹다 남은 뼈다귀들이, 그것도 아주 조금씩 던져질 뿐
이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그
는 그것들조차 먹지 않았다. 동굴 깊숙이 들어가 가끔씩 천
장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아 마시는 것이 전부였
다.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진종일 벽을
마주보고 앉아 지냈다. 그의 몸은 점점 허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면벽(面壁)의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의 몸이 거의 지푸라기처럼 가늘어졌을 때, 갑자기 그가
바라보고 있는 벽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어떤 깨달음이 그
를 덮쳤다. 그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벼락처럼 동굴 벽에 매
달렸다. 그의 몸 속에서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서운 힘이 꿈
틀거리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몸의 피를 조금씩 빼내어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
여 있는데, 그가 그림을 그릴 동굴 벽만은 환하게 밝혔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동굴 벽에 매달렸다. 날개를
그렸다. 그의 붉은 피로 그렸다. 날개가 달렸지만, 날개는
퍼덕이지만, 몸이 나무처럼 땅에 박혀 하늘을 날지 못하는,
얼굴이 유난히 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간되지 않는 인
물을 그렸다. 그림은 그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는 순간
에 완성되었다. 아니, 그 반대인지 모른다. 그의 피는 그림
이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의 피는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조리 그의 몸 밖으로 빠져나와 그
림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몸은 날개처럼 가벼워졌
다. 그의 날개처럼 가벼운 몸은 공중으로 둥둥 떠서 동굴
밖으로 날아갔다.

- 이승우, 동굴 -

4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의 내적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나)는 '나'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는 예술가가 처한 현실과 그에 대한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인물 설정 및 갈등 해소에 있어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⑤ (가)는 (나)와 (다)를 하나의 이야기로 접합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5.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호프의 소설에서 세속적 욕망의 뿌리를 발견하고 있다.
- ② '나'는 선거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 ③ 김기홍은 자신의 요구가 '나'에게 관철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④ 김기홍은 금력과 친분을 이용하여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 ⑤ '나'와 김기홍은 둘 다 조찬구를 알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46. (다)에서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술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 ② 개인이나 집단의 소망 또는 욕망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 ③ 도덕적으로도 비도덕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술(技術)이다.
- ④ 현실적 사물을 소재로 삼되, 그려진 내용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 ⑤ 외적인 억압에 정면으로 저항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의미를 띤다.

47.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위기는 김기홍에게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야. 그의 유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야.
- ② 김기홍을 하나의 단순한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대변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③ 동굴은 징벌의 장소인 동시에 재생의 공간이기도 해. 동굴에서 '그'의 육체적 생명은 안타깝게도 없어졌지만, 정신적 생명은 그림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이지.
- ④ 추장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권력자로 그려졌군. 그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무기로 삼아, 예술을 정의롭지 않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만들고 있어.
- ⑤ 예술은 결국 '그'에게 하나의 도피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드높은 이상과 비루한 현실의 모순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환상적인 예술의 세계로 숨어들었던 거야.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 무대로 돌아가면 여자 간호사, 가운을 가져다준다. 가운을 입고 재판석에 앉는다. 라이트가 재판정에 비추지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재판장이 배석한 재판정이 된다.)

작가: 지금으로부터 피고인 김기창 씨에 대한 유괴 살인 사건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 박사: 잠깐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작가: 그게 뭘니까 박사님!

서 박사: 이 재판은 언론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돼 버린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 그 점을 먼저 밝혀야 하지 않을까?

작가: 말씀하시죠.

서 박사: (신문철을 재판장석에 가져다 놓는다.) 신문은 검사의 공판 청구 이전에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몰고 있어요. 피고인 체포 당시의 신문 머릿기사만 간추리면 “철수 군 살해 진범 체포”, “드디어 잡힌 살인귀”, “철수 군 살해범 일망타진” 등 모두 피고인을 진범으로 몰고 있거든. 경찰이나 검찰에 공판 청구 이전에 이미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네.

작가: 기자! 기자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지요?

(환자 중의 기자 한 사람, 열 밖으로 나와 선다.)

환자 3: 접니다.

(여자 간호사, 빵모자와 파이프 담배 가져다준다.)

작가: 김기창 씨에 대한 체포 기사를 쓴 사실이 있지요?

환자 3: 예, 있습니다.

작가: 진범이란 뜻이 뭔가요?

환자 3: 진짜 범인이란 뜻이죠.

작가: 그럼 가짜 범인도 있습니까?

환자 3: 기사의 박력을 주기 위해선 그냥 범인이라기보다 진범이라고 해야 사회면 대가리 기사가 되기 때문.

작가: 진범이라고 단정한 근거는 뭘니까?

환자 3: 그 당시엔 진범인 줄 알았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이 귀뜸을 했습니다……. 기자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과 확신만 있으면 써야 돼요! 기자라고 다 사실을 파헤칠 수는 없어요! 기자는 사실을 해결하는 수사관도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사실의 신속한 전달, 이것만이 기자의 임무요! 특종을 놓치는 것보다 차라리 오보를 내는 게 기자에겐 낫소.

(중략)

작가: 그럼 진실이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신문의 기사는 몇 퍼센트가 진실입니까?

환자 3: 진실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진실이 뭐 말라비틀어진 겁니까? 이 세상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작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환자 3: 아니 할 얘기 더 있어요. 나도 신문에 대해 일가견이 있던 말이요. 더구나 오늘 이 연극에 대비해서 연구하라고 하지 않았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갑시다.

작가: 아니, 글썽 그만하면 됐다니깐요.

환자 3: 야, 니가 신문이란 것이 무언지 그걸 얘기하래서 열심히 연구해서 나왔는데 중간에서 끊어? 야 이 새끼야 난 적어도 진실하게 연구했어. 이거 도무지 내가 애길 하면 모두 중간에서 끊어 버리는데…… 나 내 마누라 죽이지 않았어. 보트가 뒤집혔을 뿐야…… 그때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데 남들이 날 미친놈이라구 제 여편네 죽였다고 손가락 질하는 게 견딜 수 없어…….

(중략)

작가: (일어선다) 철수군 유괴 살인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은 피고인 스스로! 박사님.

서 박사: 이 군, 여긴가?

작가: 네, 그렇습니다.

서 박사: 김기창 씨 이리 나오세요. (작가 내려온다. 재판복을 벗긴다. 그리고 김기창에게 입힌다.) 기창 씨 올라가세요.

김기창: 네?

서 박사: 올라가세요. (데리고 재판석에 앉힌다. 작가를 피고인석에 앉힌다.) 자, 판결하세요. 피고인 김기창에 대해 판결을 내리세요. (김기창 멍하니 앉아 있다. 작가 피고인석에서 쳐다본다. 서 박사, 자기 자리에 앉는다. 모두 침묵 속에 김기창을 본다. 김기창, 서서히 일어선다. 모든 사람을 둘러본다. 작가를 본다.)

김기창: 피고인…….

작가: (일어선다) 네.

김기창: 피고인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작가: (주저하다가) 없습니다.

김기창: 피고인은 남을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있는가?

작가: 없습니다.

김기창: 그런데 왜? 왜 거기 있지?

작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김기창: 한밤중에 자다 말고 불려 나가 심문 당한 적이 있지?

작가: (주저하다가) 예, 있습니다.

김기창: 뺨을 맞고 발길로 정강이를 걷어채인 적이 수없이 많았지?

작가: 예.

(중략)

김기창: 피고는 왜 알리바이를 주장하지 않았지?

작가: 아무도 내 말을 믿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나를 일단 범인으로 본 이상 혜숙이를 끌고 들어간다고 날 믿어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이미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헤어졌지만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김기창: 그만! 그만해요! 피고인은 바보다! 죽어 마땅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 버려라!

작가: 재판장! 정의의 심판을 내려 주십시오! 억울한 생명이
암흑 속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김기창: (정신 차린다) 철수 군 유괴 살해 사건에 대해 판결
한다. 피고인은…… 무죄!

서 박사, 작가: (김기창에게 다가서며) 이제 재판은 끝났어요.
축하합니다. 기창 씨, 축하해요.

(중략)

김기창: (환자들에게) 여러분! 이웃 여러분! 나를 전처럼, 교
도소 들어가기 전의 김기창으로 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환자: 난 자넨 몰라! (피한다) 아는 척하지 마!

김기창: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여자환자: 에구, 징그러워.

환자들: 전과자!

환자들: 살인자!

환자들: 누명을 썼다는데 누가 알아?

김기창: 아버지!

환자들: 난 아버지가 아니야!

김기창: 어머니!

환자들: 네 어머니 죽었어!

김기창: (부른다) 혜숙아!

환자들: 없어졌어! 떠났어! 너는 혼자야!

환자들: 전과자야!

환자들: 살인자! (기창 귀 막는다.)

(환자들 “살인자” 유니송으로 합창하며 기창의 주위를 돈다.)

김기창: (발작하듯) 난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난 결백합니다.

아버지! 으흐……. (울부짖다가 웃기 시작한다. 서막의 웃음)

서박사: 간호사! (남자 간호사 기창을 잡아끈다. 기창 악- 비
명 지르며 발작하기 시작한다.)

김기창: 난 아니야! 날 잡아가지 마! 난 죄가 없어!

(질질 끌려 나가는 기창을 보고 있는 환자들)

- 윤대성, 신화 1900 -

49. 김기창과 ‘작가’의 재판정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장면은 ‘연극 속의 연극’ 부분으로 전체 줄거리와 분리된 독자적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 ② ‘작가’의 대사는 일종의 연극 놀이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된 것으로,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 ③ 김기창과 ‘작가’의 역할이 뒤바뀌는 상황은 현실적으로도 이들의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④ 김기창이 ‘작가’에게 하는 고압적인 말투는 그의 내면에 ‘작가’에 대한 적대감이 숨어 있었음을 암시한다.
- ⑤ 이 장면은 김기창이 재판장의 역할을 맡아 연기함으로써 자신의 무의식적 강박증과 피해 의식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0.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자 3은 원작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반어적인 방식으로 풍자한다.
- ② 김기창과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개인이나 운명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 ③ ‘작가’는 여러 역할을 바꾸어 연기함으로써,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불안감과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작품 끝에 등장하는 환자들은 정의와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맹목적 편견에 사로잡혀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을 대표한다.
- ⑤ 서 박사는 외부 이야기로부터 내부 이야기에 개입하여 장면을 편집하고 인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객이 이 연극의 극적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48.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언론과 일반 대중은 김기창을 진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 ② 김기창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현재는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 ③ 김기창은 사건 발생 당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혜숙과 함께 있었다.
- ④ 환자 3은 언론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 기자직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 ⑤ 서 박사는 김기창이 범인으로 지목된 데에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나'는 유부남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둘은 함께 외국으로 떠나려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들렀다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

(가) 당신, 저를, 용서하세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이 모두 당신에게 오리무중일 것만 같으니. 점촌 아주머니를 혼자 살게 한 점촌 아저씨의 그 여자, 그 중년 여인으로 하여금 울면서 에어로빅을 하게 만든 그 여자…… 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 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 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당신.

노여워만 마세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낀 타인에 대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남겨 놓은 이미지는 제게 꿈을 주었습니다. 제가 더 자라 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은 개인 신상 카드를 나눠 주며 기록을 해 오라 했습니다. 그 개인 신상 카드 어느 면에 장래 희망을 적어 넣는 칸이 있었지요. 장래 희망. ㉠저는 그 칸 앞에서 오빠 볼펜을 손에 쥐고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 여자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심어 놓고 간 일들을 구체적으로 간추려서 뭐라고 써야 하나? 이것이 고민스러워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던 것입니다. 끝끝내 그 걸 간추릴 단어를 저는 그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처럼 어느 때는 은행원, 어느 때는 학교 선생님, 어느 때는 발레리나라고 써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되는 그때그때의 희망들은 모두 그 여자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 여자, 그 여자는 왜……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당신을 믿어요.

그 여자가 아버지께 한 말 중에 지금껏 기억에 남는 말은 유일하게 이 한 마디입니다. 그 여자의 당신이었던 아버지를 믿으면서, 그 여자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집을 나갔을까요. 어머니 때문이었을까요? 그 여자는 어머니께서 잠시 다녀간 다음 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거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께서 견디는 방법이셨는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젓을 먹이셨어요. 어머니 젓은 통통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참을 빨고 나니까 그 힘줄이 가셨습니다. 봄별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젓 먹이는 어머니와 그 곁에서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여자라니. 어머니는 젓을 빨다 잠이 든 어린애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놓혀 놓고,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제게로 오셨어요. 그때, 제 손에 그 여자가 만들어 준 설기떡이 쥐어져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어머니께서는

한 칸씩 위로 채워진 제 옷 단추를 다시 끌어서 제대로 채워 주시고, 벗어 놓은 제 신발에 담긴 흙 부스러기를 털어 내 주시고서는 물끄러미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가셨어요. 삼십 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뒤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실에 펜 감꽃을 주렁주렁 목에 매달고 있는 제 손을 그 여자는 잡아당겼어요.

점심상은 방에 차려 났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구.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 봐서 오줌 싸거든 얼른 갈아 줘…… 그러구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꿔 입고 있더군요. 분을 열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욱 뽀얏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중략)

그때 제 눈에 띄는 게 칫솔통이었습니다. 그 속엔 그 여자의 노란 칫솔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키를 세워 그 칫솔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구 달려갔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은 큰길과 소릿한 수리조합 독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수리조합 길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 없이 뛰어 그 여자 뒤에 섰어요. 제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음직도 한데 그 여자는 그저 여민 치마 한 끝을 싸쥐고 뒷모습만 보이더군요. 그 여자 뒤에 바짝 서서 그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는 돌아다봤습니다. 아, 그때 그 여자의 얼룩진 얼굴이라니. 눈물에 분이 밀려나서 그 여자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칫솔을 내밀자 그 여자는 웃을라 말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손에 있는 칫솔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손을 그대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제 눈을 깊게 들여다봤어요.

나…… 나처럼은…… 되지 마.

(다) 사랑하는 당신!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 마을은 저를, 저 자신을 생각하게 해요. ㉣자기를 들여다봐야 하다니요? 싫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그 여자가 떠나던 날, 그 여자에게 칫솔을 건네주던 때, 그때 저는 그 여자와 무슨 약속인가를 했다고, 지금이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이 생각을 당신이 있는 그 도시에서 제가 어떻게 해 낼 수 있었겠어요. 그 여자가 그때 떠나 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그 여자가 떠나 주지 않았어도 과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만한 평온을 얻어 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무데나 마구 토해서 부축할 수도 없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때는 그 여자가 있던 그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당신, ㉤그것만이 우리 삶의 다라고 여길 수 없는 불편한 부분이 이 마을에는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저는 그 불편함에 의해 끔찍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것밖에 달리 제 마음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요. 양젓물을 들이마신 것같이 쓰라리게 당신이 그리워요.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

1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상황과 과거 회상을 교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 ②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편지투를 활용하여 인물의 고민스러운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말줄임표와 쉼표는 인물의 심적 갈등을 드러내는 표지로 쓰이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 변화에 '이 마을'과 '그 도시'의 공간적 대립이 작용하고 있다.

13.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린 '나'는 '그 여자'에게 매혹을 느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
- ② '당신'은 과거의 '아버지'와 같이 사랑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무뎠던 성격이어서 '아버지'의 외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④ '그 여자'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별다른 회한이 없었다.
- ⑤ '나'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진실로 사랑했다고 믿고 있다.

14.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됨
- ② ㉡: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견뎌 내겠다는 다짐
- ③ ㉢: '그 여자'에게 아내의 지위 대신 어머니의 지위를 내세우는 것
- ④ ㉣: '당신'과의 사랑을 반성하는 데 따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
- ⑤ ㉤: 상처가 있다 해도 소중히 가꾸어 온 가족 간의 평온한 관계

15. 위 글의 '나'가 '그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위 글의 주제 의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당신도 소중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와 사랑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겠지요.
- ② 당신의 섬세하고도 여성다운 마음씨는 제가 가장 닮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랑은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당신이 준 소중한 꿈은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 ③ 당신과 옛날에 한 약속을 힘들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아픔을 주고 제 마음도 이토록 아픈 것을 생각하면, 저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 ④ 당신이 떠났던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도덕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팠던 제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⑤ 당신이 우리 집을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견디기 힘든 마음의 짐으로 내내 남았을 거예요.

[14~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떻게 하면 가장 민첩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자연스럽게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나—

나는 약 삼 분 가량의 지도(地圖)를 설계하였다. 우선 나는 순영의 정면으로 다가서 보는 수밖에—

그때 나는 참 이상한 것을 느꼈다. 월광 속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순영의 얼굴이 웬일인지 왼쪽으로 좀 빼돌어져 보이는 것이다.

나는 큰 범죄나 한 사람처럼 냉큼 바른편으로 비켜섰다. 나의 그런 불손한 시각을 정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위치의 불리로 말미암아서도 나는 순영의 입술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실로 사 년 전 첫여름 어느 별빛 좋은 밤) 경관(警官)이 무엇 하러 왔는지 왔다. 나는 삼천포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순영은 회령읍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한다. ㉠ 내 그 인색한 원근법이 일사천리지세로 남북 이천오백 리라는 거리를 급조하여 나와 순영 사이에다 퍼놓는다. 순영의 얼굴에서 순간 월광이 사라졌다.

아내가 삼천포에서 편지를 했다. 곧 돌아가게 될는지 좀 지체가 될는지 지금 같아서는 도무지 짐작이 서지 않는단다.

내 승낙 없이 한 아내의 외출이다. 고물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가 벗어 놓고 간 버선짝까지 모조리 팔아먹으려다가—

아내가 십 중의 다섯은 돌아올 것 같았고 십 중의 다섯은 안 돌아올 것 같았고 해서 사실 또 가랬잖아 갈 데가 있는 바 아니고 에라 자빠져서 어디 오나 안 오나 기다려 보자꾸나—

싫어서 나는 저녁이면 윤(尹) 군을 이용해서는 순영이 있는 바 [bar] ‘모로코’에를 부리나케 드나들었다.

아내가 달아났다는 궁상이 술 먹는 남자에게는 술 먹기 좋은 구실이다. 십 중 다섯은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눈치를 눈곱만치라도 거죽에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내 조금도 슬프지 않은 슬픔을 재주껏 과장해서 순영의 동정심을 끌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 이런 던적스러운 청승이 결국 순영을 어찌할 수도 없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순영은 광주로 갔다. 가던 날 순영은 내게 술을 먹였다. 나는 그의 치맛자락을 잡아 찢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인생은 허무하외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순영은 이것은 아마 술이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고 여기고 맥주 한 병을 더 청하는 것이었다.

반 년 동안 나는 순영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에 십 중 다섯으로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이 아내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나는 진의 열 갑절이나 사랑할 수 있었다. 내 순영에게 향하여 잔뜩 굶은 애정이 이에 순영이 돌아오기 전에 터져 버린 것이다. 아내는 이런 나를 넘보기 시작했다.

반년 만에 돌아온 순영이 돌아서서 침을 탁 배알는다. 반년 동안 외출했던 아내를 말 한마디 없이 도로 맞는 내 얼굴 위에도—

부질없는 세월이 사 년 흘렀다. 아내의 두 번째 외출은 십 중 다섯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 나는 내 고독을 일급 일 원 사십 전과 바꾸었다. 인쇄 공장 우중충한 속에서 활자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생활을 찍어 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영

이 그의 일터를 옮기는 대로 어디까지든지 쫓아다니지 않을 수 없었다. 일급 일 원 사십 전에 팔아 버린 내 생활에 그래도 얼마간 기꺼운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순영 앞에서 술잔을 주무르는 동안뿐이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선 순영의 마음은— 아니 한 번도 나를 향하지 않은 순영의 마음은 남북 이천오백 리와 같이 차디찬 거리 저편의 것이었다. 그 차디찬 거리 이편에는 늘 나와 나처럼 고독한 송(宋) 군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나는 이미 순영 앞에서 내 고독을 호소할 수조차 없어졌다. 나는 송 군의 고독을 빌려다가 순영 앞에서 울었다. 송 군의 직업은 송 군의 양심이 증발해 버린 뒤의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몹시 고민한다.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하다. 나는 이런 송 군의 불행을 이용하여 내 슬픔을 입증시켜 보느라고 실로 천만 어의 단자(單字)를 허비했다. 순영의 얼굴에는 봄다운 흥조가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 나는 어느 틈엔지 나 자신의 위치를 그만 잃어 버리고 말았다. 필사의 노력으로 겨우 내 위치를 다시 탈환했을 때에는 이미,

송 선생님이세요? 이상(李箱) 씨하구 같이(이것은 과연 객쩍은 덧불이개였다) 오늘 밤에 좀 놀러 오세요— 네?

이런 전화가 끝난 뒤였다. 송 군은 상반기 상여금을 받았노라고 한잔 먹잔다.

먹었다.

취했다.

몽롱한 가운데서 나는 이 땅을 떠나리라 생각했다. 머털리 동경으로 가 버리리라.

갈 테야 갈 테야. 가 버릴 테야(동경으로).

아이 더 놀다 가세요. 벌써 가지면 주무시나요? 네? 송 선생님—

㉤ 송 선생님은 점을 쳐 보나 보다. 꽤(卦)는 이상에게 ‘고기’를 대접하라 이렇게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송 군은 나보다도 먼저 일어섰다. 자동차를 타자는 것이다. 나는 한사코 말렸다. 그의 재정을 생각해서도 나는 그를 그의 하숙까지 데려다주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숙 이층 그의 방에서 그는 몹시 게웠다. 말간 맥주만이 올라왔다. 나는 송 군을 청결하기 위하여 한 시간을 진땀을 흘렸다.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유월의 밤바람이 아카시아의 향기를 가지고 내 피곤한 피부를 간질이는 것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토하면서 울고 울다가 잠이 든 송 군을 생각했다.

순영에게 전화나 걸어 볼까.

순영이? 나 상(箱)이야— 송 군 집에 잘 갖다 두었으니 안심할 일—

오늘은 어쩐지 그냥 울적해서 견딜 수가 없단다. 집으로 가 일찍 잠이나 자리라 했는데 ‘멕시코’에—

와두 좋지— 혈 이야기두 좀 있구—

조용히 마주 보는 순영의 얼굴에는 사 년 동안에 확실히 피로의 자취가 늘어 보였다. 직업에 대한 극도의 염증을 순영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호소한다. 나는 정색하고,

송 군과 결혼하지 응? 그야말루 송 군은 지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이오— 송 군이 가진 양심, 그와 배치되는 현실의 박해로 말미암은 갈등, 자살하고 싶은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송 선생님이 불현듯이 만나 뵈구 싶군요.

십 분 후 나와 순영이 송 군 방 미닫이를 열었을 때 자살하고 싶은 송 군의 고민은 사실화하여 우리들 눈앞에 놓여 있었다.

아로날 서른여섯 개의 공동(空洞) 곁에 이상의 주소와 순영의 주소가 적힌 종잇조각이 한 자루 칼보다도 더 냉담한 촉각을 내 쏘으면서 무엇을 재촉하는 듯이 놓여 있었다.

나는 밤 깊은 거리를 무릎이 척척 접히도록 쓰다녀 보았다.

- 이상, 환시기(幻視記) -

14.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트와 유머를 구사하여 사건의 의미를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③ 간결하고 호흡이 빠른 문체를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④ 반어적 상황 설정으로 인물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당시의 세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도회적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5.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순영은 번민에 사로잡힌 송 군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
- ② '나'와 순영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애증의 관계이다.
- ③ 송 군은 사랑의 갈망과 현실의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④ 아내는 가출과 귀가를 반복함으로써 '나'와 순영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 ⑤ 순영은 아내와의 불화에 빠져 있는 '나'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16. ㉠~㉣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와 순영의 관계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 ② ㉡: 치사할 정도로 치근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 ③ ㉢: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다.
- ④ ㉣: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에 흡족해하였다.
- ⑤ ㉣: 주저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7~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장수 야, 나한테도 자존심이 있다. 그놈들하고 어떻게 헤헤헤 웃으면서 일을 계속해. 그 분노가 금방 식혀질 것 같애?

황 보 그 사람들 탓하지 말어. 해고시키지 않고도 신제품 개발, 영업 세일즈 강화 등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었어. 회사가 오 개월째 적자라니까 노력도 안 해 보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근로자의 목을 쳐? 누군들 반발하지 않겠냐?

(중략)

동 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해. 배 췌면 아픈데? 의사가 어떻게 수술하냐. 옥살이시키면 괴로운데? 판사가 어떻게 무기 징역을 선고해. 기업가가 노동자의 작은 아픔까지 다 챙기다 보면 개뿔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 거야.

황 보 야, 박장수. 남들 핑계대지 말어. ㉠ 부처님 살찌고 여위기는 석수 손에 달렸다. 너 지금까지 남들이 돈 벌어라 장사 해라 해서 기업했냐? 아니지? 삼화금속 팔어 말어? 니 뜻만 얘기해. 어서.

재 보 빨리.

황 보 빨리 임마.

재 보 지금 당장.

남 보 잠깐 잠깐 잠깐.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볶아 대면 애 돌아 버려. 지금 집에 불이 났어. 식구들이 다 타 죽을 판국이야. 그런데도 불지른 놈이 누구냐고 그놈만 찾고 있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과거는 이미 흘러 갔어.

동 보 나도 과거 타령은 딱 질색이야. 중요한 건 미래야. 방향지(方向知)엔 두 가지가 있어. 거북이형과 독수리형. 거북이는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전전공공해. 석 자 앞도 못 내다봐. 봉 떠서 독수리처럼 멀리 내다보자고. 박장수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노사 분규도 없고 정리 해고도 없는 임대업을 해야 되잖겠어?

황 보 니 방향지는 틀렸어. 너야말로 거북이형이야. 코앞의 이익만 추구해. 당장 내 한 몸 편할 것만 생각하고 [가] 있다구. 임대업을 하면 나 혼자 배불리 먹고사는 거고 공장을 한다는 건 인부들 팔백 명과 더불어 먹고사는 거야. 어떤 것이 더 훌륭한 방향지겠누?

재 보 ㉡ 하루 잘 먹자고 한창 일해야 할 소를 잡어?

남 보 (분신들을 보며) 잠깐만! 우리가 박장수한테 요구하는 건 너희들도 알다시피 각자 달라. 동보 넌 무조건 돈을 벌어라, 재보 넌 착하게 살아라, 황보 넌 본분을 지켜라, 난 아름답게 살아라.

박장수 그래서?

남 보 아름답게 사는 길은 자기 일에 열중할 때야. 넌 누가 뭐래도 기업가고 장수야. 옛날엔 국경 지키려고 창칼 들고 싸우는 게 장수였지만 요즘은 그야말로 무역 전쟁 아니냐. 기업가가 장수지. 넌 애국지사고 현대판 이순신이야.

동 보 어랍쇼? 말이 이상해지는데?

남 보 나도 고민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나도 전에는 부황기를 싫어했어. 현실을 못 보는 허풍쟁이라고. 지금은 안 그래. 부황한 만큼 목표가 높아지고 야망이 생겨.

재 보 계속 얘기해 봐.

황 보 어서!

남 보 '기도하라, 상상하라, 실행하라!' 기업가는 회사를 확장시키고 돈을 벌어야 해. 한국 돈 세계 돈 싹 긁어모을 야망을 불태워야 한다. 그게 재보가 틈만 나면 말하는 선(善)인 거구, 동보가 말하는 방향지구, 황보가 말하는 본분을 지키는 거야. 기업가가 돈 벌길 포기하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작가가 대표작 써냈다고 절필하는 거고, 스님이 득도했다고 더 이상 수행하길 포기하는 거고, 과학자가 기똥찬 발명품 만들었다고 "더 이상의 연구는 필요 없다." 선언하는 거야. 할 일이 왜 더 없겠어. 기똥찬 거 발명한 우수한 머리로 죽을 때까지 혼신을 다 해 더 좋고 나은 걸 만들어 내야지, 안 그래?

재 보 맞아. 기업가가 돈 버는 거? 분명히 선이야. 기업가가 더 이상 안 벌겠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악이지. 안현숙이도 죽으면서 그랬잖아. 많은 이들에게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주라고.

황 보 치고 나가. 위기에 절망만 하고 있는 자, 자신에게 돌 던지는 놈이야. ㉠ 자신의 최대의 적은 자신의 부정적 사고야. 내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 너.

남 보 팔백 명이 아니라 팔천 명이 더불어 먹고사는 터전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장수여 일어나라!

박장수 그럼 다들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거야?

재보·황보·남보 응.

박장수 동보 넌?

동 보 ㉡ 낙숫물은 떨어진 데 또 떨어져. 앞으로 또 분규 일어난 면 어떡할 거야?

남 보 이번 분규는 우리 잘못도 많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중략)

박장수 그만 그만해. 좀 내비 뒤. 대갈통이 빠개질 지경이야. 분신들이 너희 네 명뿐인 줄 알아? 수천 수만이다. 난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사단장이야. 오늘도 난 지친 몸으로 석양 들판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수만 명의 분신을 끌고 꾸역꾸역. 하루에도 수십 번의 모함, 야유, 타협, 요령, 분노, 사랑, 호감, 갈등, 방황, 난투, 아양, 꾸지람, 희망, 절망이 교차하며 아슬아슬하게 넘어가고 있어. 나뿐이겠어? 다들 이렇게 힘겹게 살겠지. ㉢ 그래, 개별적 진실, 총체적 거짓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짐승이었다가 부처였다가 다시 짐승으로 돌변하고. 이대로 좋은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제대로 사는 건지, 그 사이 어디메쯤 서 있어야 하는 건지.

- 이만희, 좋은 녀석들 -

17.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재물 공양보다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다.
- ② ㉡: 목전의 이익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 ③ ㉢: 자기 반성이 때로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
- ⑤ ㉢: 개인은 저마다 진실을 추구하지만, 집단을 이루면 거짓이 개입된다.

18.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아와 분신(分身) 사이의 심리적 갈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아와 사회 사이의 갈등 양상도 반영하고 있다.
- ② '박장수'의 분신 중에는 합리적 자아를 대변하는 분신이 있는가 하면, 탐욕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분신도 있다.
- ③ 자아로부터 분리된 분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양심, 처벌이라는 윤리적 초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난 본능과 충동을 깊이 조명하고 있다.
- ④ '남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삶의 윤리나 현실적 책무로부터 벗어난 미(美) 자체보다는 현실 속에서 추구되는 삶의 미덕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⑤ 수만 명의 군사들 위에 군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시달려야 하는 '사단장'의 비유를 통해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19. <보기>의 A에 대한 B의 답변 방식이 [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A: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현안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불신과 기만으로 얼룩졌던 과거지사는 아예 언급하지 맙시다.

B: _____

- ① 과거에도 당신은 늘 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솔직한 대화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 ② 솔직하게 대화하자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거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자고 하는 당신의 주장이 오히려 솔직한 대화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 ③ 과거지사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불신과 기만 운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거 문제를 들추어 서로 상처를 주는 언행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④ 당신은 모든 잘못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있군요. 그러나 정작 과거에 잘못된 것은 누구입니까. 이 문제부터 따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시작하시죠.
- ⑤ 현안에 국한하자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6~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국 전쟁 때 월남하여 부산으로 온 네 명의 동향(同鄕)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화차간을 거쳐 삼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만, 광석이 사고로 죽고 셋만 남는다.

다시 세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다. ㉠ 광석이 있을 땐 그래도 더러 웃을 때가 있었으나 요샌 피차에 통히 웃을 일이라고는 없었다. 나는 가끔 혼자서 노래 같은 것을 불렀다.

“흘러가는 구름 저편…….”

㉡ 화차간이 찌렁하게 울렸다. 그것으로 나는 조금 기분이 풀렸다. 그러나 두찬이는 싫은가 보았다. 상을 잔뜩 찌그러뜨리고 나를 건너다보곤 했다. 그러면 나는 노래를 똑 그쳤다. 일 나갈 때가 되면 두찬이는 누운 채 화차 천장을 올려다보고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리고는 나와 하원이를 깨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구.”

셋이 가지런히 일판으로 나갔다. 하원이는 노상 울먹거렸다. 내 허벅다리를 쿡쿡 찔렀다. 둘만이 어서 다른 데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번번이 모르는 체했다.

일판에선 여전히 우리를 사춘끼리처럼이나 여겼다.

“사춘끼리교? 비슷하네.”

처음 우리 넷이 부두 앞에 나타났을 때 가지런히 훑어보며 지껄였듯 지금도 저희들끼리 키들거리며 지껄이곤 했다. 그리고는 북쪽 얘기를 하라고 자꾸 졸랐다. 두찬이는 해사하게 웃으면서 머리를 모로 젓기만 했다. 얘기할 줄 모른다는 뜻이리라. 풀이 죽은 낯색이었다. 일이 끝나면 셋이 가지런히 돌아왔다. 어두운 화차간. 내가 가운데 누고 두찬이와 하원이가 양 가장자리에 누웠다. 하원이더러 가운데 누우라니까 두찬이 모르게 아얏 소리를 지를 만큼 내 허벅다리를 꼬집어 뜯었다.

어느새 봄이었다. 아침저녁으로 초량 뒷산 마루에는 제법 아른 아른한 기운이 어리었다.

밤이 어지간히 늦었는데도 두찬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원이는 기쁜 듯이 지껄었다. 어느 때의 하원이 같지 않게 활발스럽기까지 했다.

“두찬이 형 아주 갔나 부다, 잉잉.”

“…….”

“야하!”

“…….”

“넌 왜 늘 아무 말도 안 현?”

“…….”

“벌써 여긴 봄이다 야. 이북은 아직도 굉장히 추울 까다.”

“…….”

“……?”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또 가까워 왔다. 하원이는 흠칫 놀라 또 내 허벅다리를 조심스럽게 찔렀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었을 땐, 싸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무레하게 또 화차간에 왔다.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다.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술 마셔, 술. 탁배기다 조오치! 안주? 여겼어, 있구말구, 안주 없이야 술이 있나, 암 있구말구, 허허, 이 새끼덜, 개구리들처럼 오그리구 누웠구나.”

나는 서슴지 않고 술병을 받아 들었다. 나팔을 불었다. 괜히 다급하게 서둘렀다.

“하…… 하원아…… 넌, 넌 안 마시니?”

“난 마실 줄 몰라요.”

“마실 줄 모르다니, 아직 술두 못 마셔? 자, 빨리.”

내 손에서 술병을 빼앗아 하원이 쪽으로 갔다.

“난 마실 줄 모른단데, 히힝.”

하원이는 또 울먹거렸다.

“놔요, 놔, 놓으란데. 내 손 쥐문 안 돼, 내 손 쥐문 안 돼.”

나는 당황해서 큰 소리로,

“하원아, 마셔, 마시라는데, 어서.”

“흐흐…… 응, 마실게, 흐흐흐…….”

한참 동안 조용했다. 별안간 두찬이 영영 울기 시작했다. 두찬이 우는 김에 하원의의 쿨쩍거림이 똑 그쳤다.

(중략)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간 속에서 하원이는 지껄었다.

“야하, 우리 이젠 **뽑대가리***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지어두 일 없닝기더러야. 잉야 조카야, 흐흐흐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 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린 동네 갈 젼 꼭 같이 가자. 돈 벌어서, 돈 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셔. 그까즌 거, 뽑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와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와 나만 암말두 안 현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만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뽑대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탔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흐흐흐 웃었다. 지껄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했. 참 부산은 ㉤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우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젼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뽑대가리: 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16.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하원'에 비해 고향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 ② '하원'은 '나'의 심정을 헤아려서 '두찬'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나'는 '하원'에 대해 현실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④ '하원'은 '두찬'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 ⑤ '두찬'은 '나'와 '하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식하고 있다.

17. 위 글의 ㉠~㉣과 <보기> 시의 ㉠~㉣을 연결할 때, 함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우리 청산포 사람들, / 창경원의 벚꽃이 함빡 구름처럼 피는 날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들만 구석지에 모여 / 언제나 기가 꺾였다. /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술잔을 엮었다. / ㉡ 가설무대에서 마이크가 울고 / 삼류 가수보다 못한 굳세어라 금순이가 울고 / 흥남 부두에 눈발이 쳤다. /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적고 번지수를 건네받다 보면 / 새로 끼인 얼굴도 한둘, / 산 속의 ㉢ 땡땡이닝쿨처럼 모진 인연들만 얽히고설킨다. / 이 잣돈에 차용증 재판 건이 나오고 / 저희들끼리 치고받았다. //

(중 략)

아, 결국은 조금씩 취해서 돌아오는 길 / 못난 놈들만 고향냄새를 풀어 놓고 돌아오는 밤길 / 해마다 이맘때면 ㉣ 구로공단 막바지 언덕길엔 / 하늘 높이 둥근 달이 떠서 / 내 고향 성천강 ㉤ 물소리만 귀에 부서졌다.

- 송수권, 면민회(面民會)의 날 -

- ① ㉠ 광석이 ————— ㉡ 명함을 박지 못한 놈
- ② ㉢ 화차간 ————— ㉣ 가설무대
- ③ ㉤ 염주동 산꼭대기 ——— ㉣ 구로 공단 막바지 언덕길
- ④ ㉡ 돌개바람 ————— ㉢ 땡땡이닝쿨
- ⑤ ㉣ 눈 ————— ㉤ 물소리

18.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들은 귀향을 가로막는 사회 현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 ② '봄'으로의 계절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술'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④ 고향은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치유할 현실적인 대안을 상징한다.
- ⑤ 실향민의 문제를 실존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분단의 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22~2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윤서기 (중략) 솔매 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문둥이 집이 한 채 있고 생배로 넘어가는 삼거리 채 못 가서, 거위를 기른다고 거위집이라고 하는데, 한씨여, 사람은 생불이구만, 안사람이 간질이 심해 갖고, 그레 남 뵈기 사납다고 외체로 지낸 것이 이십 년이 돼 가지, 아마. 집 뒤로 뭇 좀 심어 보겠다고, 그레 개간 허가 내는 일 좀 거들어 줘구만, 내가 토지를 어디서 떠다 준 줄 아는 모양이여, 나 보고 절하는 것이 이 사람 일과여. 저 보소. 야밤인디 목 빼물고 섰어.

탱자 울타리 너머로 상체를 내놓고 서 있던 한씨가 울타리를 돌아 나온다. 도시락만 한 꾸러미를 들었다. 그것을 윤서기의 자전거 뒤판에 묶는다.

윤서기 뭐라우.

한 씨 더덕 좀 캐 봤구만. 잘아서 젓상엔 오르지도 못하겠네.

윤서기 어허, 뇌물 받았다고 나 쫓겨나.

한 씨 (소매 끝에 접어 두었던 쪽지 꺼낸다.) 아께 집 애들이 읽어는 주드만, 세상에 엄두가 나야지.

소녀 소리 날씨 맑음. 감자 두 개 썰어 지영이 공작 숙제 만들어 줬다. 오후반 애들이 지나갔다. 읍내 쪽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온다. 올라가는 기차 - 내려가는 기차? 나는 어느 기차를 타게 되나. 모른다.

한 씨 두째여. 열네 살 먹은 것인디.

윤서기 언제 나갔나.

한 씨 점심 지나구서 안 뵈드레. 지 말대로 잘 탔으면 대처로 나간 모양이구먼. 세상에 이것이, 이것이 뭇 변이여.

윤서기 대처에 누가 있나.

한 씨 누가 있어, 읍내 장이도 한 번 안 가 본 애여.

윤서기 이거 큰애가 줘디여? 뭇 말 없고?

한 씨 질질 짜기만 허지.

윤서기 내가 좀 보드라고.

한 씨 (담 너머로) 야어, 거깃냐. (울안으로 들어간다.)

갑자기 거위 우는 소리 울안에서 한참 소란하다. 거위를 모느라고 두런거리는데 한씨 소리와 함께 뒤꼍으로 멀어져 가자 스무 살 넘어 보이는 처녀가 나온다. 궁색한 차림새보다 얼굴을 돌리거나 숙이지 않는 거동이 먼저 눈에 띈다. 처녀의 말은 때로 윤서기를 개의치 않고 하는 혼잣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처 녀 (잠시) 동생은 지가 내보냈시유.

윤서기 내보내다니.

처 녀 작년에 갓난애가 들어왔구만유, 앞집에서.

윤서기 앞집 문둥이한테서?

처 녀 그 애가 막내 동생으로 입적되는 걸 보고, 동생이 여간 아니게 놀랬던 모양이라유. 지난달에, 하루는 자기도 앞집에서 왔냐고 내게 묻더만유.

윤서기 앞집에서 온 애가 또 있나?

처 녀 (잠시, 끄덕인다.) 머스매, 올해 학교 들어갔구만유. 머스매 입적할 때 동생이 어렸은게 몰랐지유. 입적이 뭇지.

윤서기 어쨌나……. 저도 앞집에서 온 애로 여기는 눈치던가?
 처 녀 앞집이 여기서 보기보다 솔찬히 멀어라우. 그런데, 뭐가
 그 집 문밖에 힐끔 비치기만 해도 애가 사시나무 떨듯 하
 는디, 영낙 엄니 간질하듯 그래라우. 밤에 자다 보면 내 얼
 굴을 자꾸 더듬어라우. 지 얼굴 만져 보고. 나 노력볼 때
 보른 무서워서 -(흠칫 몸을 떤다.) 내가 무서워서 내쫓았
 구만요. 그 애도 그렇게는 못 살 것이고, 못 살아라우.

윤서기 내쫓으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 가라고 내쫓아. 앞집에 가
 라고?

처 녀 (흠칫 놀란다. 상체를 쓸어 잡고 쪼그려 앉는다. 사례가
 걸린 듯 몇 번 헛구역질을 한다.) 야가 앞집에 갔을라
 나……. 한번은 거위 목을 비틀고 있어라우. 꿈에 앞집이
 서 즈이 엄니가 왔는다. 거위가 손가락을 문개 쑥 빠지더
 래요. 그거 내노라고, 엄니 갖다 준다고, 거위 목 잡고.

윤서기 그 애도 앞집서 들어왔나?

처 녀 그 애가 나 여섯 살 때 생겼구만요. 모르겠어라우. (문득
 뻘히 본다.) 개도 데려왔다우?

윤서기 내가 물어본 게.

처 녀 내가유, 꿈에 저 집 불 질렀어라우. 꿈에.

윤서기 애가 정신이 있나. 지금.

처 녀 빨래를 널 수 없어라우. 그것이 바람에 날려도 앞집 사람
 들 본 것 모냥 속이 울렁거려서. 불 때다 삭정이만 부러져
 도 손가락 세어 본다우, 손가락 분질러 땀 줄 알고. 지가
 이럴 바에 그 어린 것이 오죽이나 죽었을 것이요, 불쌍한
 것이. 내 저 죽으라고 내쫓은 것 아니라우. 저라도 살라고,
 멀리 가라고, 엄니고 언니고 다 잊으라고.

윤서기 낫살이 그만하면 세상 물정 알 것이구만, 그 어린 것이
 어찌 살 것이라고 내쫓아. 한디서 밥이나 빌어먹을 줄 아
 나. 밥도 못 먹어.

처 녀 지 팔자가 그런게요.

윤서기 ㉠ 이 사람 말하는 거 좀 보소. 자네 아버지는 뭘 받고 애
 들 말아 기르는가.

처 녀 (분해서 몸을 떤다.) 집 나간 애는 그런 소리 안 했어라
 우. 애 업어 재우고 씻기고, 지 동생들 끔찍히 알았어라우.
 그저 무섭다고, 무섭 타다 나간 것이라우. 무서서.

몸을 돌려 들어간다. 거위 우는 소리 두세 번 치솟고 잠잠해진
 다. 적막.

- 오태석, 자전거 -

22. 등장인물의 대사가 모두 참이라는 가정하에, <보기>의 사건을 과
 거부터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ㄱ. '한씨'가 앞집의 '갓난애'를 입적한다.
 ㄴ. '한씨'가 앞집의 '머스매'를 입적한다.
 ㄷ. '처녀'의 '동생'이 거위의 목을 비튼다.
 ㄹ. '윤서기'가 '처녀'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ㄱ-ㄹ ④ ㄹ-ㄱ-ㄴ-ㄷ
 ⑤ ㄹ-ㄴ-ㄱ-ㄷ

23. ㉠의 뜻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말이 씨가 된다고, 기어이 일이 그리 될 줄 알았다.
 ②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더니, 너희 집 인심도 참 고약하구나.
 ③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무슨 말버릇이 그 모양이
 냐?
 ④ 말로는 못할 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
 야 되겠냐?
 ⑤ 군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는 법이라고, 쓸데없는 말을 자꾸 늘
 어놓지 마라.

24. 위 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위 우는 소리는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환기하는 동시에 미묘
 한 불안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거위 목을 비트는 '동생'의 행동에는 그녀가 자신을 '엄니'의 친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③ '처녀'가 말하는 꿈 자체를 독자로 하여금 불신하게 함으로써,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에 비판적 거리가 형성된다.
 ④ 등장인물들은 에둘러 말하거나 혼잣소리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러한 대화 방식을 통해 생활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재현
 된다.
 ⑤ '문동병'은 질병 그 자체의 실상보다는 훨씬 과장되게 일반인에
 게 인식되기 쉬운데, 이 작품에서도 공포와 죄의식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런 일에 요란 떠는 것도 유행을 타긴 하지만 이런 실속 없는 것을 시골에까지 돌릴 것은 뭔가 하며 이번에는 수건을 펴 보다가 선호는 그만 낮이 화끈해지고 말았다.

‘동해 피혁 주식회사 김복만 사장. 귀향 기념 197× 중추절 POKMAN KIM.’

“허허, 요새 사장 되면 거동이 이렇게 요란한가?”

“누가 이쁘다고 해서 이 꼴이여? 이쁘잖은 며느리 달밤에 샷갓 쓰고 나온다더니, 허허 잔내비 탄스 하는 걸 보제. 눈꼴 시려 못 봐 주겠네.”

달중이와 만득이가 한참 복만이 악매에 서릿발이 쏘다.

“유치하기는 해도 아직 ㉠순진한 촌티가 남아 있는 게 나는 그렇게 밉잖은걸.”

선구는 능갈을 치고 나섰다.

“㉡가재는 게 편이더라고 하기가 자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패거리였으니까.”

“가만있자. 이럴 것이 아니라 있는 술에 복만이라도 오라고 해서 같이 마시세.”

“㉢그런 밥맛없는 새끼하고 같이 술을 마셔? 그 새끼 보기만 해도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거꾸로 기어 나올라고 허는다.”

“이 사람아, 그러는 것 아녀. 선호야 가서 말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한잔 하게 오라더라고 데리고 와!”

“올까 모르겠소, 옛날 복만이 아니다.”

“가 봐, 내가 오란다면 틀림없이 올 거야.”

선호는 떠름한 표정이었으나 형의 말이라 마지못해 엉덩이를 일으켰다. 선구는 사립문께 나가는 선호를 다시 불러 세웠다.

“지켜 섰다가 같이 와야 해! 꼭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디 이장 능력 한번 보자.”

달중이와 만득이는 마뜩찮은 표정이었으나 더 참견하지 않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만이 본색이야 어디 나쁜 농인가? 전에 굶혀 살던 뒤라 지금도 마음이 ㉣[굶핍데다가] 서로 오래 말이 막히니까 좋잖은 감정이 쌓인 거야. 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 양 명절에 집에 온다 하더라도 부모뵙고 성묘하고 나면 아까 달중이 말마따나 금방 돛 달아 부칠 궁리뿐이지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실 여유가 없더라고. 자네들하고 일 년 만에나 어찌다가는 이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면서도 길거리에서 고개나 한 번 까딱하고 헤어지니 사이가 뜰 밖에 더 있던가? 그러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 이려고 앉은게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지 않는가 말이야. 복만이하고도 술 한잔 나누면서 한번 웃고 나면 막혔던 감정이 여름 소나기에 수챗구멍 터지듯 할 테니 두고 봐.”

“고향 배반하기로는 ㉤[한속]이라 싸고도는 가락이 그럴싸하구면, 잔이나 받아.”

“하하, 아까 복만이 내 책보나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억지고 우리 동네서야 나하고 복만이 사이만한 ㉥[옴살]이 있었나. 하여간 기왕 역성든 김에 말인데 지나 내나 이 송악한 산골에서 나서 산골 너구리 사촌으로 자란 놈이 ㉦[긴다] 난다 하는 놈들만 몰려 사는 서울 바닥에 부비고 들어 그만한 돈을 잡았다면 무조건 알아줘야 해. 기고 나는 재주를 지녀도 그냥 한두 가지 지니고서야 역대토록 돈을 모으기가 쉽겠나? 그런데 아무 재주도 없는 놈이 그렇게 돈을 모은 비결이 뭘 줄 알아? 제간놈이 유별난 셈속을 타고났을 까닭도 없고 특별하게 다른 재주를 타고났을 까닭도 없어. 재주는 딱 한 가지, 손에 돈이 들어왔다 하면 부라퀴 같이 그저 오그라 쥐는 재주, 이것 하나뿐이라구. 한 닢 쥐면 손에서 비지땀이 솟고 두 닢 쥐면 뽀드득 소리가 나게 그저 거머 쥐는 재주, 이것이야. 내가 곁에서 보든 안 했지만 복만이 속이라면 불 본 만치나 환해.”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물 쏟아지듯 했다.

“그럴 때 아침저녁 끼니를 제 끼니 찾아 먹었겠어. 국 따로 밥 따로 밥상 구색을 제대로 갖춰 먹었겠어. 외입 나가 돈 벌었다면 어디 가서 쥔 없는 물외발 녀걸이하듯 ㉧[결태질]하는 줄 알 제마는 다 뺨다귀 곰 곤 돈이라구. 부지런한 부자는 하눌도 못 막는다고 그저 남 잘 때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부지런히 나대고 아껴서 번 돈이면 그만큼 알아줘야 한다구.”

선구는 제 물에 말이 너무 ㉨[오도갑스럽다] 싶었던지 조금 멧쩍게 웃으며 만득이한테로 잔을 넘겼다.

“그거야 누가 아니래나? 부자 하나가 내려면 옛말에는 세 동네가 망한다고 했는데, 그럴 썩비가 못 되기도 하제마는 남의 것 넘보잡고 제 손으로 번 것만도 장한 일이긴 하지.”

만득이가 술잔을 꼰딱하며 말했다.

“그런께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소리는 그것이 벌기는 어떻게 벌었든 쓰기를 쓸 데다 씬속 있게 쓰라는 소린디 저 아래 의병비 같은 건 오죽이나 생색나는 일이란 말이야.”

달중이 말에 다시 만득이가 나섰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을 어느 부자 한 놈 돈을 넘보고 생각하는 우리덜 정신이 침부터 뉘조가리가 빠진 것 같어. 설사, 끼니를 몇 끼니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덜 키우고 사는 놈덜이 여적지 저기다 비석 하나 못 세웠으니 내남적없이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게 됐어. 짝 하면 입맛이더라고 비석이 꼭 거창해야 한다는 법도 없는 담에는 찬물 떠 놓고 절을 해도 제 정성인께 명색만이라도 갖추는 것인디. 우리 선대들부터 괜연스리 거창하게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손주 턱에 수염이 나 버렸잖어. 이제라도 못난 조상 탓 듣지 않으려면 이번 세안에는 조리 장수 체겟돈을 내서라도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구.”

그때 문이 열렸다. 복만이였다.

“다들 여기 모였네.”

복만이는 선구 혼자 있을 줄 알았다가 얼핏 당황하는 눈치였다.

“복만이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복만이는 만득이 손을 잡아 흔들고 나서 달중이 손을 잡아 역시 흔연스럽게 흔들었다. 도시에서 굴러먹던 너름새가 있구나 싶게 흔연스러웠다.

“그런께, 아까 그 ㉠ 고장난 차 타고 오던 것이 자네였던가? 하하.”

“망할 작자.”

달중이의 능청에 복만이는 지레 주먹질 시늉을 했다.

“이 사람아. 그런께 기왕 차를 사서 타고 땡길라면 쪼깐 쓸 만한 차를 타고 땡계사제. 자네같이 돈 많은 사람이 그런 헛털 뱅이 차를 좇어 타고 땡길 중 누가 알았을 것이여? 하하.”

모두 흐들갑스럽게 웃었다.

- 송기숙, 재수 없는 금의환향 -

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97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을 그리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와 현재 심정, 이전에 벌어졌던 사건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 주고 있다.
- ③ 유년기를 함께 한 인물들의 ‘저 밑바닥에 있는 옛정’에 호소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 ④ ‘의병비’ 건립 건을 통해 갈등의 한 요인을 제시하는 한편, 인물들의 경제적 형편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고유어와 사투리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상황에 맞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4. ㉠~㉣과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을 <보기>의 ㉠~㉣에서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웬지 잘 빗어진 향아리보다
 좀 실수를 한 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아내를 따라와 용기를 고르면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몸소 질그릇을 굽는다는
 ㉠ 용기점 주인의 모습에도
 ㉡ 어딘가 좀 빈 데가 있어
 그것이 그렇게 넉넉해 보였다
 내가 골라 놓은 질그릇을 보고
 ㉢ 아내는 곧잘 화를 내지만
 뒷전을 돌아보면
 그가 그냥 투박하게 웃고 섰다
 가끔 생각해 보곤 하는데
 나는 ㉣ 어딘가 좀 모자라는 놀인가 싶다
 질그릇 하나를 고르는 데도
 실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 실패한 것을 택하니

- 정희성, 용기전에서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중을 따라 복만을 욱하다가 선구의 말만 듣고 다시 마음을 바꾸는 데서, 만득의 소신 없는 성격이 드러난다.
- ② 복만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면서도 직접 대면해서는 인사말로 농담을 던지는 데서, 달중의 능청스러운 면모를 볼 수 있다.
- ③ 복만이가 보낸 수건을 보고 낮 뜨거워하고 형 선구의 심부름에 떠름해 하는 데서 보듯, 선호는 복만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 ④ 좌중의 의견과 달리 복만을 부르게 한 뒤 복만에 대한 제 생각을 장황하게 풀어내는 데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선구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⑤ 예상치 않은 동석자들이 있어서 잠시 당황하지만 곧 너름새 있게 넘어가는 데서, 복만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음을 알 수 있다.

6. ㉠~㉣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 ① ㉠ 굽죄다: 떳떳하지 못하여 기를 펴지 못하다.
- ② ㉡ 한속: 같은 셈속.
- ③ ㉢ 옴살: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
- ④ ㉣ 결태질: 염치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구걸하는 짓.
- ⑤ ㉤ 오도갑스럽다: 경망하게 덤비는 태도가 있다.

[7~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 고급 주택가(저녁)

비탈진 길을 오르는 미끈한 최신형 세단 1대.

#3. 차 안(저녁)

달리는 차 안 한쪽 구석에 지쳐 푹 파묻히듯 기대앉은 윤.

㉠ 창 밖으로 지나가는 대도회의 저녁 거리 풍경.

윤전수 ㉡* 언제 돌아오시나요?

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문득 정신이 돌아온 듯) 이쪽 형편에 달렸지. 전보 받는 대루 올라오게 될…… (얼른 말을 바꿔) 한 일주일 쉬게 될 걸세.

윤전수 ㉢ 그러면 전 그동안 좀 시간을 얻겠네요. 저의 집 여편네가 어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또 딸 쌍둥이랍니다. 그저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윤 (무뚝뚝하게)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나?

윤전수 (머리를 긁으며) 아니요! 그게 뭐 자랑거리 라구…….

윤 의논해 보게! 혹시 아냐? 도움이 될지…….

#4. 윤의 방 안(저녁)

여행용 케이스에 화사한 남성용 의류와 세면도구 등이 차곡차곡 담겨진다. 챙겨 넣는 손,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담겨지곤 하던 중 액자에 든 남녀 사진 한 틀. (인서트**) ㉣ 의젓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아내와 윤의 나란한 사진.

방에 붙은 욕실에서 나오는 윤, 로우브를 벗는다.

넥타이를 매어 주는 아내의 손에 맡기고 목을 길게 하고 있는 윤의 상반신.

윤 하필 무진에서 쉬어야 하나? 원…….

아내 ㉤ 당신 요즘 안색 보면 제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성모도 하실 겸 좋지 않아요?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이번 주주총회 작전에는 아버님 옆에 제가 꼭 붙어서 다녀야 할 것 같으니……. 푹 쉬시다 오시든 대 회생제약주식 회사 전무이사님 자리가 기다리구 있을 테구…….

#5. 같은 방 창밖 풍경(저녁)

가로등이 일제히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켜진 아름다운 저녁 풍경.

#6. 이모집 마루(밤)

(회상) (과거)

처마 끝에 내다 걸은 희미한 전등에 하루살이와 불나방들이 모인다.

- C.U.*** -

#7. 침대차 안(밤)

㉦ 많은 하루살이가 들어가 죽은 희미한 전등불.

- C.U. -

후덥지근한 침대차 안.

유리창에 비치는 윤의 얼굴. 창밖으로 도회의 불빛이 스쳐 지나간다.

이윽고 불빛 드물어지고 어둠.

㉧ 달리는 기차의 굉음 소리.

장인 ㉨ 비행기로 가서 바꿔 타구 가든 빠르긴 허것지만 항공 여행이란 위험한 것이니 기차루 가두록 허게 (명령조)!

윤 ㉩ 네,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8.○시 역(이른 아침)

윤, 대합실을 나오다가 미친 여자를 본다. 나이롱 치마저고리에 핸드백과 파라솔 등 제법 진한 화장의 멋쟁이다.

구두담이들, 그리고 아이스케키 장수 아이들이 어울려 여자 뒤를 줄줄 따르고 있다.

소리1 ㉪ 공부를 많이 해서 돌아 버렸디야.

소리2 ㉫ 아녀, 남자한테서 채여서여.

소리3 ㉬ 저 여자 미국 말도 참 잘 한다. 물어 볼끄냐?

구두담이, 집적거리면 비명을 지르는 미친 여자.

#9. 바닷가 집 방 안(밤)

(과거)

비명 지르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윤.

식은땀을 흘린다. 방문을 열면 바닷가.

파도들이 밀려와서 밀려가고(시간이 공허하게 흐른다).

#10. 이모집 건너방(낮)

(과거)

골방 문 벌럭 열리며 비명을 지르고 뛰어 나오는 윤. 어머니가 어이없는 얼굴로 본다.

윤 더 이상 못 숨어 있겠어요! 미칠 것 같단 말예요. 미치드라도 일선에 나가서 미치겠어요. 이대로 내가 미치거든 ㉭ 내 일기책 첫 장에 적어 놓은 이유 들 때문일 터이니 그걸 참고해서 치료해 보세요!

웃고름에 눈물 닦는 어머니.

돌아앉아 책상에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는 윤.

#11. 시골 자동차길(낮)

도망하듯이 시골의 자갈길을 달리고 있는 버스.

#12. 버스 안(낮)

버스 차창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이 주마등 같다.

가로수와 논, 밭 등을 뒤로 확확 보낸다.

산 틈으로 지저분한 바다가 보인다.

#13. 이정비 근처(낮)

이정비 : 무진 10킬로미터 : Mujin 10km

㉮ 버스 고장으로 사람들이 내린다.

이정비를 보고 있는 윤이 이정비 뿌리를 발로 차 본다.

* ㉧: 효과음.

** 인서트: 삽입 화면.

*** C.U.: 클로즈 업.

7. 위 글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효과음을 활용하여 화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 ② 인서트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을 골고루 카메라로 포착하여 그들의 표정이 드러나도록 지시하고 있다.
- ④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를 충실하게 제시하여 감상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 ⑤ 피사체를 확대하여 화면 전면에 부각시키는 수법으로 관객들이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8. 위 글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에서 #3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면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바뀌어야 한다.
- ② #4에서 #5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카메라는 방 안에 있는 아내의 시선을 표현해야 한다.
- ③ #6에서 #7로의 전환은 날벌레와 기차라는 공통 매개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④ #8~#10에서 장면을 전환시키는 공통 매개 요소는 비명이다.
- ⑤ #10에서 카메라의 위치는 방 안에서 시작하여 방 밖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9. ㉠~㉣ 중, <보기>의 '회의'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좁고 답답한 무진을 벗어나고 싶어 하던 윤은 도회로 나와 대 제약회사 경영자의 사위가 된다. 하지만 윤은 화려한 도회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윤택함을 얻는 대신, 영혼의 자유를 잃고 세속적인 가치들과 타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차 윤은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0.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동시에 여러 개의 스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스토리를 주(主) 스토리라고 하는데, 주 스토리는 부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들과 얽히기 마련이다.

스토리를 쓰는 것은 일련의 선택을 하는 일이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하고 다른 요소들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한다. 시나리오에서 서사란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식이며, '외화면*'과 '생략'을 사용하여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거나 감추는 방법이 이용된다.

* 외화면: off screen. 화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건.

- ① 위 글에서 '주 스토리'는 윤이 집을 떠나 무진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
- ② #3은 윤이 중요한 일을 처리할 결정권이 없다는 '정보를 점진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로군.
- ③ #3 다음에 윤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스토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어떤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런저런 요소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면, #8에서 '미친 여자'를 등장시킨 것은 #10에서 '미칠 것 같'은 심정과 연관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어.
- ⑤ #11에서 #13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12를 '생략'하지 않은 것은, 부수적인 스토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일 거야.

[14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가상 국가에 있는 어느 마을의 전범자 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청년 아벨만이 전범자로 몰린다. 해방국(解放國)에서 파견된 연락관은 그를 풀어 주고 대신 마을 유지들을 체포한다.

- 작 가 (……)이걸 보세요.
(작가가 연락관에게 종이를 넘긴다.)
- 연락관 이게…… 사령관 각하…….
(연락관의 표정이 글을 읽어 가며 묘하게 변한다.)
- 작 가 기분이 좋죠? 사령관에게 당신의 능력, 우정 뭐 그런 걸 칭찬하고 당신 같은 우수한 연락관을 보내 주어 감사하다는 글입니다.
- 연락관 그래서요?
- 작 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건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들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진본 밑에 우리 자치위원회의 전원이 서명을 해 발송할 것입니다. 어때요? 문장이 좋죠? 10년 만에 처음 써 본 명문장입니다. 당신은 또 출세를 합니다.
- 연락관 이런 걸 내가 요구했던가요? 과분한 칭찬에다 말씀대로 훌륭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 작 가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겁니다. 20년의 역사가 담긴 글이니까요. 이것도 사본입니다. 진본은 주민 중의 한 사람이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발송하는가? 이것은 나와 또 한 사람밖에 모릅니다. 읽어 보세요.
(연락관은 의자에 앉아 글을 읽는다. ㉠ 작가는 일어나 연락관의 표정을 읽으며 제자리걸음을 한다.)
- 작 가 귀찮겠지만 끝까지 읽으세요.
㉠ (연락관이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진다.)
홍, 당장 효과가 있군요.
(연락관이 종이를 던진다.)
어떻습니까? 왜 다 읽을 생각이 없습니까?
(연락관이 일어나 뒷짐을 지고 움직인다.)
……기대가 빛나가는데요. 당신이 폭발할 줄 알았습니다.
- 연락관 이런 글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내는지는 몰라도…… 무서운 글이군. 내가 정신병자에다 폭군에다 복수의 화신에다…… 여기에 온 목적이란 오직 20년 전의 일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홍, 국가 간의 신의를 좀먹고…… 홍…… 식량 배급과 원조 물자를 미끼로…….
- 작 가 ㉡ 아벨만의 재판을 악용, 지도급 인물을 체포하고…….
- 연락관 닥쳐…… (작가의 떡살을 쥐고) 쓸모가 없는 놈! 나는 언제든지 너 같은 놈을 죽일 수 있어. 쥐도 새도 모르게. (작가를 밀어 버린다. 작가는 의자에 주저앉는다.)
역시 이 교장의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글을 믿어 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 작 가 믿을걸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글을 썼으니까요. 설사, 믿지를 않아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당신은 해방국의 인종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얻고 귀화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약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출세했습니다. 하는 일에 실수가 없었고, 주위에서 잡음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당신을 규탄하는 그 글이 최소한 잡음은 일으킬 겁니다. 뿐인가요? 내 글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쓸데없는 소립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두 번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창작을 하지 않는 작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자, 연락관 당신에 대한 찬사나 고발장을 다 읽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도 발송될 겁니다. 이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하겠소. 한쪽 글은 당신의 출세를 촉진시키고 또 한쪽은 당신 주위에 잡음과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홍, 어떻습니까? 참 비열한 수단이죠? 그렇지만…… 양자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열한 수단이 척척 맞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 좋고 너 좋고. 아직도 칼자루는 당신이 쥐고 있어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이러한 수단을 쓰지만 당신이야 도도한 태도로 양자 간을 취사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충격을 주었으니까. 무서운 집념도 가산할 만하지만 그러나 집념이 지나치게 가열되면 유치한 결과를 내지. 당신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유치합니다. 원수를 때려잡고, 아버지의 새로운 전기를 써서 효자가 되는 유치한 결과를 냅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장이 발송됩니다.

(㉢ 잠시 침묵이 흐른다. 작가가 술병을 든다.)

이런! 술이 다 떨어졌군! 따라서 나의 용기도 시들겠군. ……20년 전의 그 땅을 도로 찾고 싶습니까? 지금은 아까, 그 미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고향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 미망인하고 결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했을 겁니다.

연락관 ㉣ 그 미망인은 젊더군.

작 가 죽은 남편과 한 30년의 연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늦었지. 당신을 싫어할 테니까. 글썄,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면 몰라도…….

(읍장 일행이 나온다.)

읍 장 실례가 안 됩니까?

작 가 우리의 우정에 찬 대화는 다 끝났습니다.

읍 장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관 나한테요?

읍 장 네, 우리 넷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그 옛날 사건 때문인데…… 그때 그 일은 누가 악의에 차서 한 일도 아니고…… 뭐 건잡을 수 없는 여론의 물결 때문에 다 말려든 것이지만…… 그 일 때문에 연락관님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우리 사과합니다.

(교장이 머리를 끄덕인다.)

우리야 괜찮지만…… 가능하면 이 여자 분들이라도…….

연락관 좋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신들을 석방합니다.

(모두 놀란다.)

- 이근삼, 아벨만의 재판 -

14.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상 국가는 해방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 ② ‘연락관’은 해방국으로 귀화한 후 자기의 고향에 부임하였다.
- ③ ‘작가’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10년 전에 창작 활동을 포기하였다.
- ④ ‘연락관’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 유지들에게 복수하려 한다.
- ⑤ ‘미망인’의 남편은 20년 전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관’의 부임 이후에 죽임을 당했다.

15. 위 글을 연극으로 상연할 때, ㉠~㉥에 대한 연출가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작가’의 행동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애쓰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해.
- ② ㉡: ‘연락관’은 글 내용에 대한 불쾌감과 ‘작가’의 저의를 의심하는 심리를 표현해야 해.
- ③ ㉢: ‘작가’는 차분하게 말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해 자기의 의도대로 물고 가려는 태도를 드러내야 해.
- ④ ㉣: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뒤에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의 긴장감이 표현되어야 해.
- ⑤ ㉤: ‘미망인’에 대한 관심의 표현과 더불어 ‘연락관’의 심경 변화가 어조를 통해 나타나야 해.

1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특정인의 대사를 통해 사건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ㄴ. 현재의 장면과 과거의 장면을 교차시키며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ㄷ. 현실 정치 세계의 냉정함과 비열함을 우의적(寓意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 ㄹ. 등장인물 내면의 움직임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3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황] 종합병원 의사와 직원들이 모여서 본부 김 실장의 처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한순규 선생은 그 연배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편에 속하고 있었다. 그는 정실에 의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촌지에 의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후배에게 기술 전수도 내켜 하지 않는 것으로 못 박힌 터였다.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인물은 중심 세력에 들 수 없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 인물이 이제 와서 책임자 급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백옥현은 과장의 심정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긴 했지만 과장이 너무 오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일이 즐겁지 않음은 사실이었다. 그는 과장의 잔을 채웠다.

“많이 마셨어. 조금만…….”

과장은 손을 저었다. 그러고는 잔을 입에 대는 시늉을 하고는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 친구가 되어서는 말이야…… 대외적으로도 낮이 서질 않아. 더욱이 자릴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한다면 후배들한테도 좋은 관례가 되지 못하는 게야.”

“그렇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편지를 내야겠습니다.”

윤기호 선생은 한순규 선생을 책임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연 판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직 확정된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옥현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가 김 실장임을 잊지 않은 때문이었으리라. 백옥현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학문계의 전념 그 외의 것은 한사코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치부하고 싶은 터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여론 조성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야.”

윤기호 선생이 말했다. 어차피 이곳의 동태가 모조리 그쪽에 의해 파악되고 있는 형편인 만큼. 덧붙였다.

“그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역반응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백옥현의 말이었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

“사태를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쪽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겠지.”

윤기호 선생은 두 눈을 부릅떴다. 흥진기 주임의 입가에는 보일 듯 말 듯한 실소가 떠올랐다. 내 원수 남이 갚아 준다.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었다. 그때 박 실장이 그를 향해 눈을 찡긐했는데 흥진기 주임은 못 본 척했다. 윤기호 선생의 분개가 어느 면에서는 고소하면서도 마냥 좋아라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그 동안의 끓는 냄비 속 같던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어떤 요구 사항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본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어떤 변화도 용납지 않는다는 본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검사실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질 않았던가. 무엇보다 그는 A, B, C 세 파트 중 C파트의 주임으로 격하된 것이었다. A, B의 주임은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말았었다. 그러면서 4년제 출신들은 그들끼리 원을 만들기 시작했었다. A, B파트의 주임들은 주임이 되기 전 누구보다도 검사실 개혁을 소리 높여 주장했던 터

였지만 주임이 되면서 태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중략)

“윤 선생 말이 옳은 게야.”

적어도 우리의 대표자를 선발하는 문제만큼은 이쪽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니깐. 과장의 말이었다. 상징적인 의미. 얼마 동안 백옥현은 그 부분에 공감했다. 집단과 집단이 부딪칠 때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됨은 자명한 일일 터였다. 그러나 김 실장 측은 그와 같은 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이곳의 원로들은 별반 신뢰하지 않는 터인 듯했다. 행정적인 일에 마음을 쓴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업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백옥현은 크게 부정할 수도 없질 않았던가. 그가 아는 대부분의 원로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위해 매진할 수 없는 입장들 때문인지 행정 직함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학문적인 발전은 더딜 게 자명한 일이었다. 백옥현은 그런데 본업에 전념하고 싶었으므로 행정직을 대단하게 여기는 듯한 발상을 무너뜨리고 싶기도 한 터였다. 또한 이와 같이 둘러앉아 열을 내어 분개하고 목청을 높이는 것 자체가 본부의 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고유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매진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책임자가 되든 그런 것은 다 허울에 불과한 일이 아닐까요.”

안타까운 어조로 말했다. 과장의 눈에 배반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의 복합적인 감정이 떠올랐다 스러졌다. 그는 문득 소문이라는 것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형편없이 짧은 축들을 부상시킨다. ① 짧은 축들은 난데없이 떨어져 내린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짧지 않은 짧은 축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앙금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백옥현을 대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진 과장과 윤기호 선생의 시선이 저절로 부딪쳤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의 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 김향숙, 수레바퀴 속에서 -

2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사 문제에서 발단한 화제가 직장의 주도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 ② 사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자기중심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사건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순차적 구성 방법을 취하고 있다.
- ④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초점이 되는 등장인물이 교체되고 있다.
- ⑤ 등장인물의 행동보다 그들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2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윤기호와 과장이 시선을 부딪치는 것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한순규를 비난하는 과장에게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백옥현이 한순규의 승진을 반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원로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본업에 대한 강조를 통해, 본부와 의 마찰을 회피하고 싶은 백옥현의 속내를 알 수 있다.
- ④ 흥진기가 흘리는 실소를 통해, 백옥현에 대한 윤기호의 비판이 흥진기와 윤기호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과장에 동의하지 않는 백옥현의 행동과 그를 걸끄럽게 대하는 과장의 태도를 통해, 둘의 오랜 적대 관계를 알 수 있다.

25. ㉠에 근거하여 ‘과장’이 ‘젊은 측들’에게 할 수 있는 비판과 시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바람 소리 한 가닥
모래 위에 떨어져 있다
그걸 주워서 만져 보고
귀에도 대 본다
- ②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의 하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고독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기다림으로 채워 간다는 것입니다
- ③ 이따금
바람은 한려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릅나무 어린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 ④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탈소 앞에 서서 참의를 꺾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 ⑤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짐작은 했지만, 와서 보니, 너무 좋아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동안 너무 텔레비전만 보았어요. 여성 잡지(주로 천연색 화보)하고요. 사실은 겨울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텔레비전에서 암시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사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사자는 태어날 때, 어미 배를 찢고 나온대요. 그래서 사자는 새끼를 한 번밖에 못 난대요. 바닷가에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시상자에서 나왔는데, 막상 바닷가에 와서 보니,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어요. 지금 우린 여기서 뭔가를 직접 만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 그것이 자연인지, 삶인지, 삶 속의 신비나 경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바보상자에 가려서 간접적으로만, 그것도 뒤틀려서 나타났던 것이 눈앞에 직접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를 깨달을 겨를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 속에 폭 파묻혀 있었거든요. 어떤 물건을 그 속에 있으면서 나쁘다고 생각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벌써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바보상자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들은 지금 이 경치의 아름다움을 ㉡ 그것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백치상자의 추악함을 ㉢ 그것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 사물의 미·추는 그것 자체의 미·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미·추를 바라보는 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같아요. 아무리 추악한 사물도 그 사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추악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물도 그 사물의 눈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 똥은 구리지 않고, 머느리의 발뒤꿈치는 계란 같아서 흉하죠. 우리들은 어젯밤 비치호텔에서 묵었어요. 비치호텔! 우리들은 그만 그 이름에 깜빡했어요. 물위에 솟아 있지 않은 한 더 이상 바닷가로 갈 수 없을 만큼 백사장 뒷길에 붙어 있으니, 물가여관은 분명 물가여관이죠. 그리고 전면이 바다로 향해 있고, 그 전면에 베란다가 삼층에까지 있으니, 바닷가여관도 꼭 좋은 바닷가여관이죠. 나는 거기에 투숙한 것을 백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저기 저 시멘트 반죽으로 발라 올린 삼 층 회색 건물을. 저건 여인숙이에요. 비치호텔은 아침 햇빛 속에서 해안여인숙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옆으로는 뒤에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가건물들이 내보내는 더러운 하수가 흘렀어요. 도대체 해안여관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다와 모래 말고는. 텔레비전 속의 삶이 박살이 났어요. 텔레비전은 바다와 모래의 아름다움만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안여인숙의 추악함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했어요. 해안여관만 박살이 난 것이 아니라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천치상자 자체가 박살이 났길래 그동안 그것에 가려서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 그것에 가려서 뭔가를 못 보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껌테기의 삶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말짱 껌테기였다는 것까지 생각이 미쳤어요. 그런데, 그 껌테기의 삶이 전혀 추악하게 비치지를 않아요. 천치상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다시 명칭상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린 그거 아니면 이야깃거리가 없고, 그거 아니면 쇼핑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축에 끼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생각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고,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여상 동창들이인데요, 앤 농협 단위 조합에 나가고, 난 타자 학원 경리를 보고 있어요. 처음엔 한타 강사 노릇을 했지만, 원장의 눈에 들어서 관리직으로 옮겼어요. 강사는 노무직이거든요. 우리들은 편한 것을 좋아해요. 안방에 앉아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입원도 하고, 실연도 해요. 어찌 다 초대권이 생겨서 전람회나 운동장 같은 데를 가보면, 허리도 아프고 햇볕도 따갑고 짜증스러워요. 연애도 김이 빠져요. 흥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린 절대 등산 안 가요. 왜 가요, 도로 내려올 것들? 여행도 완행버스 여행은 맥 빠져요. 그렇지만 여행은 더러해요. 그리고 더러 여행이 맥 빠지는 것은 여행 탓이 아니라 여행에 대한 잘못된 바라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깨달은 다음에는 안심하고 다시 텔레비전에 폭삭 빠지거든요. 불이 났을 때 물을 조금 부으면 소리를 내면서 더 잘 타는 거 있죠? 과음으로 위장을 상한 사람이 의사한테 빨리 병을 고쳐 달라드래요. 다시 술 마시게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고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약을 조금 고치는 것은 그 약을 오래가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어요. 적금도 하고, 계도하고요. 그게 거의 우리들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명청상자가 보여 주는 모든 좋은 물건들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사치와 편의와 편리뿐만 아니라, 미덕과 선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명청상자는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서, 좋은 일 하지는 운동까지도 무슨 협찬, 무슨 협찬 해서,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많은 친구들을 빼뜩거리고 연기를 피우고 물방울들을 수없이 날려서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이 휘황찬란한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 그것은 불편하고 귀찮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바다로 산책도 나오고, 이름난 명승지도 찾아서, 그 착각으로부터 조금씩 깨어나요. ㉡ 그것을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 서정인, 달궁 -

26. 위 글의 화자, 바닷가, 텔레비전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을 떠나서 직접 바닷가를 찾아왔지만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텔레비전이 떠나지 않는다.
- ② 왜곡된 이미지에 현혹된 상황을 텔레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추악하게 보인다.
- ③ 화자에게 텔레비전은 바닷가를 찾아오게 만든 조건이면서 바닷가를 그 자체로 볼 수 없게 하는 인식의 장애물이다.
- ④ 바닷가의 비루한 풍경을 경험한 화자는 텔레비전의 세계로 되돌아가겠지만 앞으로도 바닷가를 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텔레비전 시청을 통해 직접적 경험을 대체해 온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닷가를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경험에 해당한다.

27. ㉠~㉡ 중, ㉠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사회는 비판적 성찰을 체제 내부에 귀속시켜 오히려 체제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②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점진적인 교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③ 현대 사회의 대중 매체는 욕망의 매개항이며 사람들의 욕망은 기호와 이미지의 흐름을 좇아서 움직여 나간다.
- ④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일시적인 자각은,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도움이 된다.
- ⑤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의 축조는 '해안여인숙'에서 '바닷가여관'으로 다시 '비치호텔'로 그 호명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절부절못하는 상태의 독재자, 걸어 다니면서 문고판 『리어 왕』을 읽고 있다.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한 손으로 파이프 속을 채우려 한다. ㉠ 한 손에 책, 다른 손에 파이프, 문 두드리는 소리. 독재자, 책상으로 돌아가 책을 집어 든 후 미소 짓는 연습을 한다. 늙은 연극배우 들어선다. 리어 왕 의상에 검은 외투를 걸쳐 입었다. 그를 극장에서 여기로 데려오기까지 옷을 갈아입을 시간적 여유를 안 준 모양이다.

(중략)

연극배우 요즘 관객들은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하.
독재자 『리어 왕』 따위에 관심이 없다니 그럼 도대체 어떤 연극이 환영받는 세상이 되었던 말시오.

연극배우 ㉡ 『아가씨와 건달들』이지요.

독재자 뮤지컬 말시오? 난 차라리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겠소.
연극배우 그것두 공연 중입니다. 『심수일과 이순애』로 바뀌었지만 …….

독재자 이렇게 집구석에만 갇혀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군.

연극배우 무사태평 태평무사하지요.

독재자 (부아가 치밀지만 억제한다.) 흥, 그렇겠구려. 나 같은 인간이 없어졌으니까.

연극배우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독재자 (더욱 부아가 치민다.) 오호.

연극배우 돌을 던질 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독재자 적? 내가 그들의 적이었나? 흥, 그렇담 그 녀석들도 심심하겠군.

연극배우 그래서 아가씨와 건달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지요.

독재자 경박한! 그런 세상은 바람직하지 못해.

연극배우 그렇겠지요.

독재자 (어떤 실낱같은 희망) 진정한 역사의 심판은 세월이 지나 봐야 판가름 나게 되어 있지. 언젠가 당신들은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연극배우 글썽요. 지금 아가씨와 건달들에게 밀려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중략)

독재자 “모르겠는데, 어디 내게 그걸 가르쳐 주렴.” …… 오늘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소. 나는 당신이 연출하고 직접 리어 왕으로 출연한 연극을 보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소. 왜 관객들은 리어에게 열광하는가? 저 권력에 눈먼 독재자에게! 그리고, 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인가, 똑같은 입장인데!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리어 양반, 난 결코 당신에게, 그리고 한때 나를 떠받 들고 굽신거렸던 인간들에게, 지금은 모두 등 돌리고 날 욕하는 헛바닥들에게, 구차한 동정심을 얻고 싶지 않소. 난 자기 동정을 경멸하오! …… (한탄) 그래요, 음모자들은 결국 또 다른 음모에 의해 파멸되고 말지. 이걸 『리어 왕』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지난 시대를 생각하면 하나의 역사적 공식이지. 말하자면 악인은

서로를 죽이지. 그러나, 덕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지. “강력한 악이 오히려 비겁하고 나약한 선보다 나을 때가 있다. 웬 줄 알아? 나약한 선은 세상을 회의할 뿐이지만, 강력한 악은 희망을 제공해. 그건 강력한 에너지, 위대한 권력에의 의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 니체가 한 말이오, 이걸!

연극배우 독서량이 대단하십니다.

독재자 왜 세상 사람들은 내 파멸에 즐거워하면서, 리어의 파멸에는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인간들은 날 비웃으면서 리어는 비웃지 않는 것인가? 그가 정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천만에! 그가 정의로웠다면, 나 또한 그랬소. 그러나, 통치자의 정의로움이란 게 얼마나 가당찮은 엉터리인 줄 아시오? 그건 결국 통계적 개념이오. 백성들 배불리 먹인 작자에게 정의는 돌아가게 마련이지. 리어의 통치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않는 거지? 그건 ㉣ 셰익스피어의 영리함 때문인가? 아니라면, 당신의 그 멋진 연기술이 리어를 정의의 인간으로 둔갑시킨 것인가? 당신은 관객을 리어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었소. 리어는 희생자요 순교자다? 관객들은 리어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객석에서 한두 시간 감동의 순간을 즐기지. 어떻게 리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게 권력에 집착하였으며, 도대체 몇 개의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그래요, 통치자에게 ㉤ 가면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적을 처치하기 위해선 통치자는 온갖 기만과 위선과 증오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남는 것은 이 기만과 위선과 증오뿐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독재자들은 역사의 시궁창 속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리어 왕이었고 아마 수백 수천의 리어들이 세상의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겠지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한 몸에 받으면서 …… 그런데, 왜 관객들은 리어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관객들은 리어의 파멸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연극배우 전 리어 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리어 역시 각하처럼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세상에 대해 의혹을 갖습니다. 그는 후회하죠, 각하처럼.

독재자 그러나, 리어는 관객에게 사랑받고 감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도, 차라리, 독수리에게 내 눈알이 파먹히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리어처럼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싶소. 그 비결을 내게 전수해 주시오.

(중략)

독재자 내가 걸은 길은 리어와 똑같아, 이걸 비유가 필요 없을 지경이지. 내가 당한 배신과 모욕은 리어의 대사들 속에 모조리 들어 있단 말시오. 나는 오늘 밤 이 장면들을 당신과 연기해 보고 싶소.

연극배우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독재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건가? 병이란 말인가? 밤새 여행을 했던 말인가? 그건 순전히 구실이다. 그건 나를 등지겠다는 속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더 재치 있는 대답을 가지고 오라.”

연극배우 “폐하, 아시다시피 공작은 불같은 성격이시라 한번 침묵하면 요지부동입니다.”

독재자 “두고 보자! 염병에나 걸려라! 똬져라! 뭐 불같은 성격이라고. 이봐 글로스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 부부를 만나야겠다.”

연극배우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재자 “그렇게 말했다? 그대는 내가 한 말을 알아듣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권력을 쥐어 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야! 나한테 지킬 예를 다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나는 이렇게 박대받고 쫓겨날 수 없어. 두고 보자, 이 더러운 배신자들, 언젠가 손 좀 봐 주리라!”

연극배우 잠깐, 그렇게 진행된다면 『리어 왕』의 주제에서 벗어납니다. 리어의 주제는 권력의 무상함과 체념입니다. 리어는 퇴위하면서도 모두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물려받은 자들은 누구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박대하자 놀랍니다. 화가 나서 저주하고 복수가 마음을 사로잡지만, 평민이 되어 버린 그에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한숨) 각하, 이제 무기력한 분노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고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 이윤택, 우리 시대의 리어 왕 -

3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내에 고전적 연극을 패러디하여 활용함으로써 고전의 권위를 해체하고 있다.
- ② ‘밤’과 ‘실내’라는 제한된 시공간 배경을 통해 극 중 현실의 비현실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독재 권력에 대한 논평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물의 내면적 갈등 구조가 부각되지 않는다.
- ④ 극의 지배적인 줄거리를 지연하거나 역행하는 이야기를 개입시켜 극의 중심 내용을 분산한다.
- ⑤ ‘독재자’에게 순응하면서도 그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연극배우’를 통해 연극의 사회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36. 위 글에서 ‘리어’에 대한 ‘독재자’의 생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리어는 독재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 ② 리어는 기만과 위선과 증오로 가득 찬 통치자이다.
- ③ 리어는 권력의 무상함을 깨달아 감동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 ④ 리어는 질투심과 선망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⑤ 리어는 본모습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동정받는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지식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인물의 안정적 심리를 암시하는 소도구
- ② ㉡: 연극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동시에 세태와 민심 변화를 암시하는 소재
- ③ ㉢: 인물의 현학적인 성격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극작가의 사상을 대변하는 존재
- ④ ㉣: 창조적 정신을 대변하는 동시에 권력에 저항하는 지식인 작가의 전형
- ⑤ ㉤: 인물의 또 다른 자아를 암시하는 동시에 내면 속의 갈등과 증오를 해소해 주는 수단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남편인 ‘나’는 ‘아내’의 몸에 생긴 초록색의 피멍이 점점 그녀의 온몸으로 번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내에게 원래 눈물이 많았던가? 그렇지 않았다. 상계동 아파트에 사는 건 싫어, 라고 말하며 처음 눈물을 흘렸을 때 아내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처녀 적의 아내는 웃음이 많았고, 목소리에도 언제나 나직한 웃음의 기운이 밝은 배경 색처럼 깔려 있었다. 동안인 데 비하여 어른스럽고 차분한 그 목소리를 처음으로 떨며 아내는 말했다.

인구 칠십만이 모여 산다는 거기서 천천히 말라죽을 것 같아. 수백 수천 동 똑같은 건물에, 칸칸마다 똑같은 주방에, 똑같은 천장에, 똑같은 변기, 욕조, 베란다, 엘리베이터도 싫어. 공원도, 놀이터도, 상가도, 횡단보도도 다 싫어.

왜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야기의 내용보다는 그 목소리의 부드러움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는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했다.

살아 보지도 않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사람이 많은 게 왜 싫다는 거야.

나는 약간 정색한 얼굴로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한 눈이었다.

일부러라도 나는 변화가가 가까운 곳에서만 자취방을 얻곤 했어. 인파가 득시글거리고, 시끄러운 음악이 거리를 팡팡 울리고, 혼잡하게 도로를 채운 차들이 경적을 벨어 대는 곳으로만 옮겨 다녔어. 그러지 않고는 배겨 낼 수가 없었어.

그 선한 눈에서 거짓말 같은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그러지 않고는 혼자서 버텨 낼 수 없었다구.

아내는 그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더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마치 세수하듯 두 뺨에 거꾸 문질렀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 십삼 층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이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렇게 끔찍한 소릴 해. 별나기도 하구나, 정말.

이곳 상계동 아파트에 집을 얻어 살기 시작한 첫해에 아내는 과연 자주 잔병을 앓았다. 산동네 자취방의 추위에 익숙해 있던 아내는 밀폐된 아파트의 중앙난방에 적응하지 못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쟁걸음으로 오르내리며 박봉의 출판사를 개근하느라 최대한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그녀의 몸은 쉽사리 원기를 잃었다.

그러나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결혼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아내는 그동안 저축했던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주말에 두어 건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뛰어 모아 둔 돈을 죄다 털어서 이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해 오던 참이었다.

떠나서 피를 갈고 싶어, 라고 아내는 말했다. 줄곧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사직서를 마침내 직속 상사에게 올렸던 날 저녁이었다. 혈관 구석구석에 낭종(囊腫)처럼 뭉쳐 있는 나쁜 피를 갈아내고 싶다고, 자유로운 공기로 낡은 폐를 씻고 싶다고 아내는 말했다.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롭게 죽는 것이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다고, 여건이 되지 않아 줄곧 미루어만 왔지만 이제 얼마간의 돈을 모았으며 자신감도 생겼으므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일단 떠나서 육 개월쯤 한 나라에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그곳에서 다시 몇 달을 머무르다가 또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라고 했다.

죽기 전에 말아야, 라고 아내는 말하며 나직하게 웃었다.

그렇게 세상 끝까지 가 보고 싶어. 가장 먼 곳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쉬엄쉬엄.

그러나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대신 아내는 그 얼마 안 되는 자금을 이 아파트의 전세금과 결혼 비용에 털어 부었다. “아무래도 헤어질 수가 없어서”라는 짤막한 한마디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다.

아내가 꿈꿔 왔다는 자유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쉽사리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그것을 위해 그녀가 세웠던 계획이라는 것들 역시 어린아이 같은 것,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몽상이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점을 아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이며, 그 깨달음은 어쩌면 나로 인한 것이었으리라는 자부심 섞인 추측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일말의 감동을 느꼈다.

그러나 몸이 자주 아픈 탓이었겠지만, 좁은 어깨를 시든 배춧잎처럼 늘어뜨린 채 베란다 유리문에 뺨을 붙이고 서서 질주하는 차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를 보면 가슴이 내려앉곤 했다. 마치 누군가의 투명한 팔이 아내의 어깨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묵직한 철구(鐵球)가 발과 다리를 움쭉 달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은 채 거기 서 있었다.

깊은 밤과 새벽이면 한산한 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택시며 오토바이들의 굉음에 아내는 깜짝깜짝 깨어 몸을 떨곤 했다. 차들이 아니라 도로가 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도로와 함께 이 집도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아내는 말했다. 굉음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다시 혼곤한 잠에 빠져드는 아내의 귀염성 있는 얼굴은 산 사람 같지 않게 창백했다.

저것들, 다 어디서 왔을까.

그러던 어느 날인가, 들릴 듯 말 듯한 쉼 목소리로 아내는 꿈결처럼 물은 적이 있다.

……다들 어디로 저렇게 달려가는 거야?

(중략)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 내가 세 번째 대야의 물을 끼얹었을 때 아내는 노란 위액을 꾸역꾸역 토해냈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서 아내의 입술이 오그라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희끗희끗한 입술을 더듬어 보았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가냘픈 음성을 들었다. 다시는 아내의 목소리를, 신음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녀의 허벅지에서 흰 잔뿌리가 무성하게 돋아 나왔다. 가슴에서는 검붉은 꽃이 피었다. 끝은 희고 아랫부분이 노르스름한 도톰한 꽃술이 유두를 뚫고 올라왔다. 치켜 올린 손에 약간이나마 힘을 줄 수 있었을 때 아내는 내 목을 끌어안고 싶어했다. 아직 어렴풋한 빛이 남아 있는 눈을 마주 보며 나는 그녀의 동백잎 같은 손이 내 목을 잘 안을 수 있도록 엉거주춤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아? 라고 나는 물었다. 잘 익은 포도알 같은 아내의 눈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가을 내내 나는 아내의 몸이 맑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창을 열면 아내의 뺨에 올린 두 팔은 바람의 결을 따라 조금씩, 매우 조금씩 부드럽게 흔들렸다.

가을이 끝나 갈 무렵 하나들 잎이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이었던

몸뚱이는 서서히 다갈색으로 변해 갔다.

아내와 마지막 잠자리를 함께한 것이 언제였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아내의 아랫도리에서는 체액의 시큼한 냄새 대신 낯설고 향긋한 냄새가 났었다. 나는 그저 그것을 아내가 비누를 바꾸어 쓴 모양이라고, 혹은 남는 향수를 심심풀이 삼아 두어 방울 떨어뜨려 본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었을까.

이제 아내의 몸에는 한때 ㉠ 두 발 동물이었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알같이 맺혀 있던 눈동자는 ㉡ 다갈색 줄기 속에 차츰 파묻혀 갔다. 아내는 이제 볼 수 없었다. 줄기의 끝도 까딱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란다에 들어서면 형언할 수 없는 아련한 느낌이 아내의 몸에서 나에게로 미미한 전류처럼 흘러들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아내의 손과 머리카락이었던 잎사귀들이 남김없이 떨어져 내리고, 입이 오그라붙었던 자리가 벌어지면서 한 움큼의 ㉢ 열매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 실낱 같은 느낌은 끊어졌다.

- 한강, 내 여자의 열매 -

23.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화자인 ‘나’가 ‘아내’를 관찰하면서 ‘아내’에 대한 심정이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아내’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대비하여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던 관계가 반전되면서 둘 사이에 극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④ 환상적인 몽환 체험을 삽입함으로써 ‘아내’의 꿈에 대한 ‘나’의 반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 ⑤ ‘나’는 ‘아내’에 대해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얻고 있다.

2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일상생활에서의 세속적 욕망에 영향을 받던 변신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 ② ㉡은 ‘아내’가 과거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 진입하게 된 차원이나 세계를 가리킨다.
- ③ ㉢은 육체성과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한 뒤 도달하게 되는 세계를 상징한다.
- ④ ㉠에서 ㉡으로 변신하는 비현실적 사건을 설정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가 신비화된다.
- ⑤ ㉡에서 ㉢으로의 변신은 이전의 상황이 마무리된 뒤 다시 새로운 불행이 닥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25. [A]에 나타난 ‘아내’의 심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밭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 리(三萬里).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 리(三萬里).
- ② 다만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가 부러워
끝 간 데 없이 뻗어나간 하늘이 부러워
바람이 부러워
포플라는 자유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언제껏 손을 쳐들고
흔들고만 있다.
- ③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고 소리가 들리는 세상
- ④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댕기 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울지 마라 간다
모질고 모진 세상에 살아도
분꽃이 잊힐까 밀 냄새가 잊힐까
사뭇사뭇 못 잊을 것을
꿈꾸다 눈물 젖어 돌아올 것을
밤이면 별빛 따라 돌아올 것을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저께 장인과 통화했어.”

문식은 새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무슨 말을 또 하려는 것인가. 자영은 이제 문식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마치 매일 스스럼없이 문안 전화를 하는 사위인 양 천연스런 저 태도. 문식과 자영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자영의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손님처럼 깍듯한 예의를 지키면서 방문하는 명절, 제삿날, 집안의 경조사……. 자네 왔는가. 잘 가게. 그 두 마디가 집을 나올 때까지 문식이 듣는 말의 전부인 그 방문을 지속시킨 것은 문식의 생각이었다. 문식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지만 실은 양갈음의 하나라고 자영은 짐작하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빈틈없는 사위가 되는 것. 문식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처럼 보였다.

“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다른 때처럼 그냥 끊지는 않으시더군.”

문식의 말에서 자영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임이 될 거라는 말을 했음을 안다.

“손주 보실 거라는 애긴 미처 못 했는데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

말끝에 문식은 후후 웃는다. 대단한 복수가 아니야? 문식의 웃음 속에 담긴 음흉함을 엿본 듯 자영의 얼굴이 왈각 붉어진다. 그토록 아버지와의 화해를 바랐으면서 이 뒤틀리는 감정은 무엇인가. 자신이 한 말의 반응을 살피려는 듯 찬찬히 그녀를 응시하는 문식의 부드러운 눈을 자영은 오래 마주 볼 수가 없다. 그는 참으로 잘 견뎌 냈는데. 언제고 팽개쳐 버리고 싶었던 것은 오히려 내 쪽이었는데. 스물몇 해를 길들였던 안락함이 그리워 몸부림치며 불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싶어, 그것이 두려워 늘 잃을 것 없는 ㉠ 방을 꼭꼭 잠그며 살았는데…….

자영은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 휘황한 빛 아래서 그의 얼굴을 더 마주하고 있을 자신이 없었다. 커피 대신 마신 코코아의 들척한 기운이 메스하게 목구멍을 넘어왔다. 그를 닦달할 수도 없다. 전임이 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아이를 가진 것. 이 모든 사실은 그의 공이며 이런 일로 그를 비난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그래, 일어날까?”

비칠, 하며 일어서는 자영에게 문식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를 향한 문식의 손은 희다. 부드러운 보이며 따뜻하기도 하리라. 그 손을 맞잡지 못하고 자영은 물끄러미 내려다보지만 한다.

(중략)

머쓱한 얼굴로 손을 거둔 문식이 문을 향해 걸어간다. 자영은 긴 숨을 내쉬고 그 뒤를 따라 찾집을 나왔다. 막 지기 시작하는 낙엽이 바람에 휩쓸리는 길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전철역 앞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문식의 창백한 옆얼굴을 훑고 지나간다. 시든 꽃을 거두는 꽃장수와 신문 판매대의 남자가 그들을 힐끗 돌아보았다. ㉡ 서너 걸음 떨어져 문식을 쫓으며 자영은 망설였다. 이것은 소리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가 저렇게 곧게 고개를 들고 걷는 것은 몹시 화가 나 있다는 뜻이다. 그에게로 다가가서 팔짱을 끼자. 어렵다면 아무 말을 하지 않은들 어떠랴. 그도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무언가가 자영을 망설이게 했다. 그녀의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역센 힘이 문식에게로 내뻗는 ㉢ 팔을 부여잡았다. 어스름한 전철역 안

에 들어설 때까지도 자영은 그를 따라잡지 못하고 만다.

때르르릉. 귀를 때리는 경고음에 이어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드문드문 서 있던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선로가로 모여들었다. 문식은 힐끗 그녀를 돌아본다. 그 눈에 서린 간절함을 자영은 보았다. 찌든 생활을 떨치고 날아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손짓을 하는 그의 주머니 속의 손을 보았다. 이제라도 그가 손을 뻗어 온다면 자신은 그 손을 마주 잡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 숨 막힐 듯한 흡인력을 자신은 어찌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손을 잡지 않는다면…… 그는 내게로 올까. 와서 나를 부축해 줄까. 자영은 문식의 타오르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절대로, 한 발짝도 뒤로는 물러서지 않을 듯 보였다. 아아, 저것이 문식이다. 어떤 것도, 아무런 사람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기차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문식을 향한 사랑을 느낀다. 그는 떠나갈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다는 할지라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륵 열리는 문으로 사람들의 바쁜 그림자들이 빨리 들어간다. ㉣ 노란 선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문식이 결심한 듯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돌아서서 그녀를 보고 우뚝 선 문식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눈은 호소하듯 그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기세로 문이 닫히고 이윽고 철커덕 소리 내며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문식의 호소하는 듯한 눈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멀어져 갔다. 환한 빛 더미들이 터널 속 깊은 어둠으로 한칸 한칸 사라지는 것을, 마침내 마지막 잘린 빛이 삼켜지고 동굴 같은 어둠이 남는 것을 자영은 묵묵히 바라보았다. ㉤ 무덤가를 지나온 듯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또 다른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어딘가 갈 곳이 있는 사람처럼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 서하진, 추일 서정 -

20. 위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현재 시제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여 준다.
- ② 독백체의 문장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③ 짧은 호흡의 문장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긴장 상태를 드러낸다.
- ④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 ⑤ 서술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의 교체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준다.

21.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식’은 ‘아버지’에 대해 애증을 가지고 있다.
- ② ‘자영’은 ‘문식’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다.
- ③ ‘자영’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다.
- ④ ‘문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 ⑤ ‘문식’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자영’이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 ② ㉡: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거리로 나타낸다.
- ③ ㉢: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④ ㉣: 두 인물 사이의 경계를 의미한다.
- ⑤ ㉤: 주인공이 벗어나려는 상황을 상징한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오품 정량은 하루 종일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칸에게 보낼 국서를 쓰라는 명령을 받은 줄 성 안이 모두 알아서 정량은 외출할 수 없었다. 질청의 당하관들은 정량의 방을 훑기거렸으나 아무도 찾아오지는 않았다. 명을 받은 네 사람 중 수찬은 매를 맞아 초죽음이 되었고, 교리는 때가 되어 죽었다는 소식을 질청 노복이 전해주었다. 국서를 쓰는 일은 정량을 더욱 조여 왔다. 임금이 정한 시한은 하루가 남았다. 정량은 매를 맞을 수도 없었고, 죽을 수도 없었다. 화친이 성립되어 칸이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고 임금이 환궁한 연후에 산성 안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글을 쓴 자는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다. 또 글이 간택되어 칸에게 간 뒤에 칸이 더욱 노하여 성을 으깨버리면 산성과 행궁과 종사가 모두 없어진 풀밭에 글 쓴 자의 오명만이 전해질 것이었다.

지켜서는 살 수가 없고, 살려면 허물어야 하는데……. 임금의 말에 정량은 매달려 있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량은 임금의 말을 곱씹었다. 임금은 살려는 것이었다. 이판과 예판이 다르지 않을 것이고, 당상·당하와 성첩의 군병들과 마구간 노복이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지만, 정량은 글을 쓸 수 없었다. 나라가 없고 품계가 없는 세상에서 정량은 홀로 살고 싶었다. 정량의 몸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임금이 꽃감을 보내 정량의 노고를 위로했다. 정량은 꽃감을 윗목으로 밀쳐놓고 먹지 않았다.

정량은 간택되지 않을 글을 지어서 바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고, 달리 길은 없었다. 정량은 붓을 들어서 썼다. 글은 쉽게 풀려 나왔다.

또 대륙과 소방(小邦)의 역사를 살피건대, 지금부터 일천 년 전에 당의 황제가 고구려를 징치하고자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건너와 안시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성안의 고구려 군사들은 황제의 깃발을 향해 욕을 해 대며 성 밖으로 몰려나와 황제의 토성 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싸움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공방 간에 승부를 가릴 수 없었고, 요동에 겨울이 일찍 와서 풀이 마르고 눈이 내리자 황제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습니다. 돌아갈 때 황제는 고구려 군병들의 용맹을 가상히 여겨 비단 백 필을 내려주었고,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장대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황제에게 절하며 전송의 예를 갖추었으니, 돌아가고 또 보내는 예법이 아름다움을 알 것입니다. 하물며 이 작은 산성은 황제의 일산을 향해 욕을 한 적이 없었고 삼전도 본진을 겨누지도 않았으며……

정량은 노복을 시켜서 글을 최명길에게 보냈다. 쓰기를 마치고 정량은 자리에 누웠다. 초저녁부터 정량은 깊이 잠들었다.

정량은 남한산성에 갇혀서 안시성을 끌어대고 있었다. 안시성과 남한산성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더듬어 나가려는 생각을 최명길은 내버렸다. 정량은 왜 칸에게 보낼 문서에서 안시성을 들먹이는 것일까. 남한산성은 안시성에 이어진 성벽인가. 최명길은 정량의 생각을 생각했다. ...정량이 미쳤나? 정량이 미쳤구나. 늙어서 병들고, 무거워서 일어설 수 없고, 갇혀서 내디딜 수 없고, 막혀서 보이지 않아 정량은 미쳐버렸구나..... 정량은 안시성과 남한산성 사이에서, 천년의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일까. 일어설 수 없고 내디딜 수 없고, 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보는 것인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서 정량은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미친 척을 하고 있다면 정량은 미치지 않았겠구나. 정량은 제정신으로 제 앞을 내다보고 있겠구나. 임금은 또 지는구나. 정량이 이기는구나. 정량이 임금을 이기고 묘당을 이기고 남한산성을 이기고 칸을 이기는구나. 매 맞은 정육품 수찬이 이기고, 죽은 정오품 교리가 이기고, 미치지 않은 정오품 정량이 이기는구나.....

최명길이 먹을 갈았다. 남포석 벼루는 매끄러웠다. 최명길의 시선이 벼루와 떡 사이에서 갈렸다. 새카만 목즙이 눈에서 나오는가 싶었다. 목즙이 흘러서 연지에 고였다. 최명길이 붓을 들었다. 최명길이 붓을 적셨다. 최명길이 젖은 붓을 종이 위로 가져갔다.

(중략)

김상헌이 앞으로 나왔다.

- 전하, 뜻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인데, 이 문서가 과연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임금을 다그쳤다.

- 전하, 이제 칸을 황극이라 칭하였으니 문서가 적에게 가면 전하는 칸의 신이 되고, 신들은 칸의 말잡이가 되며, 백성들은 칸의 종이 되는 것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말했다.

- 적이 비록 성을 에워쌌다 하나 아직도 고을마다 백성들이 살아 있고 또 의지할 만한 성벽이 있으며, 전하의 군병들이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으니 어찌 회복할 길이 없겠습니까. 전하. 명길을 멀리 내치시고 근본에 기대어 살 길을 열어 나가소서.

최명길이 말했다.

- 상헌은 제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적들이 성벽을 넘어 들어오면 세상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온데, 상헌이 말하는 근본은 태평한 세월의 것이옵니

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닢일 것이옵니다. 상헌은 과연 백이(伯夷)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초라한 세상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전하의 성단으로,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김상헌이 두 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소리쳤다.

- 전하, 명길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최명길이 김상헌의 말을 막았다.

-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길바닥이옵니다.

김류가 말했다.

- 명길이 제 문서를 길이라 하는데 성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찌 글과 같을 수야 있겠나이까. 하지만 글을 밟고서 나아갈 수 있다면 글 또한 길이 아니겠나이까.

임금이 겨우 말했다.

- 영상의 말이 어렵구나. 쉬고 싶다. 다들 물러가라.

밤중에 임금이 승지를 불러서 문서에 국새를 찍었다.

- 김훈, 『남한산성』

12.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각 인물이 취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정량은 어명을 받들어 국서를 쓰되 죽음을 면해야 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지경에서 칸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의 글을 씌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② 상헌은 근본을 담지 않은 글로 임금을 미혹하고 아첨하는 명길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비난하면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직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③ 명길은 대의명분만을 고집하는 상헌에게 견리사의(見利思義)할 것을 충고하면서 문제를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④ 김류는 상헌과 명길의 주장 각각을 절장보단(絶長補短)하여 임금께 건의하고자 하는 절충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 ⑤ 임금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양자의 주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배제되길 바라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3. 위 글로 미루어, '상현'이 '임금'에게 고하였을 법한 말은?

- ① 적들이 성을 깨뜨리려 덤벼들면 사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전하, 늦추어야 할 일이 있고 당겨야 할 일이 있는 것이옵니다. 적의 공성을 늦추시고, 늦추시는 일을 당기옵소서.
- ②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인 줄 아옵니다.
- ③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하고 물러가오리까.
- ④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오직 죽음으로써 삶을 지키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한다면, 그 생이야말로 곧 죽음입니다. 전하,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 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법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목숨이 어느 쪽을 좇아야 하겠습니까.

14. 시적 화자의 심정 및 태도가 '명길'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여보소 공중에 / 저 기러기 /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 길이라도 /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② 아아, 나의 이름은 나의 노래. / 목숨보다 귀하고 높은 것.
마침내 비굴한 목숨은 / 눈을 에이고, 땅바닥 옥엔 / 무쇠연자를 돌릴지라도 /
나의 노래는 / 비도(非道)를 치레하기에 앓기지는 않으리.
- ③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 ④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피로워했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 ⑤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이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필이면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다가 우연찮게도 죽음을 뒤집어쓰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던 말이다. 그래도 타인임을 빌미로 애써 외면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 한데 그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에 대한 저 한 가닥 미련의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면? 뭐 문상을 가던 길이 아니었냐고? 그래, ㉠ 죽음 앞에 납작 엎드리러 가다 나는 산[生] 죽음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거야.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 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어.

여자는 중간계의 창문 옆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을 기우뚱하니 지나쳐 맨 뒷자리에 가 앉았다. 겨우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버스는 곧 출발했다. 버스가 광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졸곧 눈을 감고 있었다. 어째서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나중에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둘러댄단 말인가. ㉡ 어쩌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도 모른다. 슬픔이 슬픔을 알아보고 사랑이 사랑을 알아보듯 죽음 또한 죽음과 만나면 별수 없이 서로를 알아보게 마련인가 보다. 하여 길을 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행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물론 나 자신마저도.

버스가 나주를 지날 때 나는 혼곤한 피로에 싸여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죽음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 아홉 살 댄가 열 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비가 온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조개를 잡으러 가서였다. 친구들과 나는 띄약 별이 내리쬐는 철길을 따라 반나절이나 걸어 큰 강에 도착했다. 민물과 바닷물이 겹치는 그곳엔 손바닥만 한 대합이 참 많았다. 나는 손끝이 수면에 걸릴 정도의 깊이까지만 잠수해 들어가 바다에 있는 조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옆구리끼로 떠내려가는 물살의 힘은 엄청나게 셌다. 한순간 몸이 거꾸로 떠서 비틀리며 나는 이내 거센 물살에 휘감기고 말았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중심을 되찾을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뼈마디의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는 물속에서 번쩍 눈을 뜨고 마지막 생사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삶과 죽음이 별거벗은 남너처럼 엇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마침내 날숨이 코까지 올라왔고 이어 실크 커튼처럼 부드러운 빛이 내 손과 발을 조여 묶기 시작했다. 짙은 푸른빛이었던 실크 커튼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 갔다. 그리고 보랏빛이 흰빛으로 바뀔 즈음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중략)

소리꾼들의 영창(詠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안 떠나셨군요.”

“장지에 갔던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나는 사내가 건네주는 소주잔을 받으며 문득 생각이 나서 동백이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새벽에 못 보셨군요. 숲에 가면 여기저기 지천인데요.”

그랬구나. 하지만 그때 내 눈에 동백이 보였을 리 없다.

“하루 더 목을 작정하면 눈이 녹기 전에 들어가 봐요. 눈 속에 피어 있는 것이 진짜지요.”

“벌써 피었을까요?”

“핀 놔도 있고 안 핀 놔도 있을 겁니다. 저 소리꾼들처럼 말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다들 소리를 얻고 돌아갈 작정으로 내려오지만 누구나 동백이 피는 걸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사내는 소주를 가볍게 입에 털어 넣고는 밖에서 들려오는 계면조의 단가 하나를 잡고 제멋대로 운을 잡아 흥얼거렸다. 어쩐지 귀에 익은 듯하여 가만히 듣다 보니 새벽녘에 숲을 헤맬 때 들던 가락이었다.

“몽유가(夢遊歌)의 한 대목이죠 아마.”

몽유가. 나는 묵묵히 그 소리에 귀를 던져두고 있었다.

“지금 소리하는 저 여자는 ㉣ 동백이 핀 걸 보았을까요?”

“저야 모르죠. 서당개처럼 여기 앉아 몇 해 듣다 보니 겨우 귀가 좀 열렸을 뿐인 걸요.”

사내는 세 병째의 소주병을 이빨로 물어 따며 돌밭에 앉아 있는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 여자는 지치지도 않는지 아침부터 내내 바다만 마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모양으로 머리칼이 풀풀 흩날리고 있었다.

“오늘 밤을 잘 두고 봐야겠어요. 저렇게 앉아 있다 실성한 사람처럼 곤장 바다로 걸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요. 아홉 고랑 끝까지 말예요.”

“…….”

이제는 여자가 앉아 있는 데까지 밀물이 차 들어오고 있었다.

“3년 전인가 내 집에 들었던 노파 하나가 숲에서 목을 매 죽은 일이 있었죠. 뭐 어쩔 수도 없었지만 그걸 막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땐 저 여자 분처럼 뒤를 따라온 사람도 없었죠.”

뒤를 따라온 사람.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노파는 혼자 택시를 대절해 여기까지 와서는 나흘째 묵고 있었다.

“아침에 났사에서 돌아오다 숲에 걸려 있는 노파의 흰옷을 보았죠. 정월 보름날이었는데 새벽에 지팡이를 짚고 나가 일을 저지른 거지요. 나중에 들으니 동백 숲으로 봉황을 보러 왔다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봉황이요? 그건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새 아닙니까?”

“그 노파는 장님이었어요.”

“!…….”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보름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어제오늘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둔 것이 이 횃집 사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중략)

여자는 광주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있던 나를 본 순간에야 자신이 죽으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한 것도 그때였다고. 내가 구계등까지 따라오게 내버려 둔 것도 실은 아이를 엄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누군가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래서 자신이 부러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구계등까지 걸어온 건 읍내 터미널에 내려서도 확실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탓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내게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쳐 따라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작정이었다.

여자는 자신의 전생을 지우기 위해 나와야의 관계를 원했고 그리

하여 아이는 살리되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놓여날 수 있었다고 중얼거리며 내 팔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

여자가 개 놓고 간 옷을 챙겨 입고 아래로 내려와 나는 주인 사내가 미리 챙겨 놓은 밥상을 받았다. ㉠ 어느덧 비가 그치고 햇살이 바다 위에 내려와 너울거리고 있었다. 늦게까지 주무셨군요, 하며 주인 사내가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새 열 시였다.

“여자 분은 먼저 내려와 아침을 먹고 떠났습니다. 소리꾼들도 오늘 다 떠난다고 하더군요.”

새벽녘에 있었던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내는 무심한 얼굴로 낚싯대를 닦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묵묵부답으로 수저질만 하고 있었다.

- 윤대녕, 천지간 -

28.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생사의 문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우연적인 사건을 인연으로 바꾸어 생명의 소중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 묘사로 인물들 간의 소외된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독자들이 그의 생각과 행위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9.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이후 일어날 사건의 발단으로 구성함.
- ② ㉡: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속성을 암시하며 극적 긴장감을 조성함.
- ③ ㉢: 주인공이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게 된 이유를 제시함.
- ④ ㉣: 인물의 행위 묘사를 통해 내면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함.
- ⑤ ㉣: 배경 묘사를 통해 중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암시함.

30. a 동백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을 바라보는 주체인 ‘소리하는 여자’에게는 인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뜻한다.
- ② 답변하는 ‘사내’의 입장에서는 판소리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문화의 가치를 의미한다.
- ③ 소리꾼이 추구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의미나 득음으로 일컬어지는 경지를 가리킨다.
- ④ 꽃에 ‘소리하는 여자’를 투영해 보는 행위와 관련되어 내면세계의 고결함이나 정숙함을 상징한다.
- ⑤ ‘눈 속에 핀 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악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표상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어제 돌아갈 때 어찌면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 모르지만 만일 오늘 또 오게 되면 당신에게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알려 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갑자기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자 이제 알려 주려고 온 거야?”

“그럼 당신은 어제 그 말을 진심으로…….” 소냐는 간신히 소곤거렸다.

“대체 당신이 어떻게 아세요?” 문득 정신을 차린 듯이 그녀는 빠른 말투로 물었다. 그녀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다.

“알고 있어.”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얘긴가요, 그 남자를?” 그녀가 머뭇거리며 물어보았다.

“아니, 찾아내지는 못했어.”

“그럼 대체 당신은 어떻게 ㉠ 그것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또 다시 그녀가 들릴 듯 말 듯 물어보았다.

그는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디 맞혀 봐.” 일그러지고 힘없는 미소를 띠며 그가 말했다.

그녀의 몸 전체에 경련과 같은 것이 지나갔다.

“아, 당신은 날…… 대체 왜 날 그렇게…… 놀라게 하세요?” 어린애처럼 미소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사건의 윤곽을 알고 있는 이상 내가 그 남자와 아주 친한 사이란 건 당신도 짐작할거야…….” 그는 이미 그녀에게서 눈을 뗄 힘도 없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계속 응시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리자베타를 죽이려 한 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죽이게 된 것뿐이지. 그는 언니인 노파가 혼자 있을 때 그 노파를 죽이려 들어간 건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녀마저 죽이게 된 거지.”

또다시 끔찍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둘은 계속 서로를 응시했다.

“이래도 맞히지 못하겠어?” 마치 종루에서 아래로 몸을 던지는 기분으로 그가 갑자기 물었다.

“모르겠어요.” 들릴 듯 말 듯 소냐가 속삭였다.

“잘 좀 생각해 봐.”

이 말을 하자마자 익숙했던 예전의 한 느낌이 또 다시 그의 영혼을 얼어붙게 했다. 그가 소냐를 쳐다본 순간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리자베타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도끼를 들고 다가갔을 때, 그때의 리자베타의 얼굴 표정을 그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애가 갑자기 무엇인가 흠칫 놀랐을 때 자기를 놀라게 한 것을 불안스럽게 주시하다가 조그만 손으로 앞으로 내밀고 뒤로 몸을 빼내면서 짓는 금방 울 것 같은 표정……. 흡사 그런 완전히 어린애 같은 놀라움의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면서 리자베타는 한 손을 앞으로 치켜들고 그를 피하려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던 것이다.

그것과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소냐에게도 일어났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놀란 표정으로 잠시 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면서 침대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금씩 그로부터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그녀의 눈길은 더욱 더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갔다. 그녀의

공포감이 그에게도 갑자기 전해져 왔다. 소냐가 지었던 놀라움의 표정이 그의 얼굴에도 비친 후에 그도 역시 거의 어린애 같은 미소를 띠고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알겠지?” 그가 마침내 나지막하게 물어보았다.

“아아!” 그녀의 가슴 속으로부터 끔찍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맥없이 침대로 쓰러지며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러나 이내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서서 두 손으로 그를 잡고 그 가느다란 손가락들에 힘을 주며 또 다시 못에라도 박힌 듯 꼼짝도 않고 그의 얼굴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이 최후의 절망적인 눈초리로 그녀는 무언가 한 가닥 희망이나마 발견하여 그것을 잡아 보려 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모든 게 그의 말 ㉡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훨씬 뒤에 이때의 일을 회상했을 때에도 그녀는 언제나 불가사의한 느낌이 들곤 했다. 아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 때 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대뜸 파악하게 되었을까? 사실 그런 종류의 무언가를 그녀가 예감하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가 그녀에게 ㉢ 그 사실을 말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마치 정말로 바로 그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됐어, 소냐, 이제 됐다고! 날 괴롭히지 말아 줘!” 그가 고통스럽게 부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털어놓으리라고는 정말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결국은 ㉣ 그렇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비비면서 방 한가운데까지 갔으나 재빨리 몸을 돌려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와 거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붙어 앉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언에 찢린 듯이 몸을 부르르 떨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 어찌자고, 어찌자고 당신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치더니 훌쩍 일어나 그의 목에 매달려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문득 뒤로 물러나더니 서글픈 웃음을 띠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상한 여자야, 소냐. 내가 ㉤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끌어안고 키스를 해주다니. 당신 아마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군.”

“아니에요, 이 순간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녀는 흥분의 절정에 달한 듯이 외쳤다. 그리고는 발작이라도 일으켰는지 훌쩍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다. 그는 그 감정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나와 속눈썹에 맺혔다.

“그럼, 당신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소냐?”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는 물었다.

“그럼요, 그럼요, 절대요, 절대로요!” 소냐가 외쳤다. “난 당신을 따라 가겠어요, 어디든 따라 가겠어요! 아아…… 전 참 불행한 여자예요! 왜, 왜 내가 당신을 더 빨리 알게 되지 못했을까요? 왜 당신은 내게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나요? 아아!”

“그래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래요, 이제야 왔군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요 함께, 우리 함께!”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듯 다시 그를 끌어안으며 되풀이했다. “잠옥을 가더라도 함께 따라 가겠어요!”

-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

16.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17.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범행 사실을 ‘소냐’가 알도록 유도해 가면서도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 ②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암시에 따라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공포를 느낀다.
- ③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범행 사실을 안 다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 애쓰는 표정을 짓자 괴로움을 느낀다.
- ④ ‘소냐’는 범행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절망감과 함께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강렬한 동정심을 느낀다.
- 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가 그를 불행하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자신의 범행 동기가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느낀다.

18.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구상하면서 당대 러시아의 대표적 사상과 철학들의 부정적 요소들을 나타내 보고자 했다. 작가는, ㉠ 사회에 무익한 자를 제거하고 그의 재물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행위를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판단하려는 태도와 ㉡ 비범한 인간들이 대의(大義)를 위해 한 행동은 평범한 인간들의 가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사람을 죽이는 행위의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따라서 살인 행위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정교한 심리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 자신의 행위를 사랑과 양심의 차원에서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 해결 가능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작가는 그 ㉤ 궁극적인 해결은 신의 섭리에 의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글썸을시다.”

도장방 주인은 인면(印面)을 들여다 보며 오준의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 뿐이다.

“값이 나가는 것이오?”

“누가 새긴 것입니까?”

“수하인이란 사람이 새겼거나 뵈디다…….”

주인도 그것이 수하인의 솜씨임을 모르고 묻은 말은 아니다. 무슨 까닭에 이 도장이 ㉠ 한길에 나오게 되었는질 알고 싶어 묻는 말이다.

“수하인 같은 분이 새겼다면 값을 말하기가 힘들지요.”

“건 무슨 말씀이오?”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야 석재와 치수에 따라 값을 정하지만, 수하인 같은 분이야 원래 장사가 아니시니까 혈값에 그냥도 줄 수 있는 반면,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글썸, 선살 하려면 좋은 석재를 써서 하지, 영 어울려야죠……. 그 좋은 재료를 좀 구경합시다.”

주인도 그 재료가 무슨 재료인지는 감별할 능력이 없었다. 밀 화같이 말끔한 돌이라는 것으로, 혹시나 수하인이 늘 말하던 전황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에게 설명할 필은 없었다.

주인이 먼지를 훑 붙여 내놓는 갑 속엔 각종 석재가 그득히 들어 있었다.

“골라 보시우.”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데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야 손님 의향이시죠.”

“대리석이죠?”

“대리석에다 대겠습니까? 계혈석이란 특수한 돌입니다.”

“결재 도장이니까 무늬도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이 위엄이 있어 봐지 않습니까?”

“그야, 쓰시는 분 마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장사치란 손님의 비위에 오르내리는 존재들이지만 오준은 적이 만족했다.

자체(字體)를 고르고 값을 흥정했다. 어차피 새겨 갈 도장이란 것을 눈치 챈 주인은 값을 듬뿍이 불렀다.

“한 자에 삼천 환씩 치고, 재료값까지 합쳐 만오천 환이면 비싼 값이 아닙니다. 그러구 이런 어른의 도장을 새기면 널리 선전도 되고 해서 처음부터 싼 값으로 부른 것입니다.”

석운 앞에서 오준이 만 환 정도면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은 값을 알고 한 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불러 본 것이지만, 실지 그 이상이고 보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비싼 값이 아닙니다. 서울 장안 다 돌아다니셔도 더 싼 값을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결을 보십시오. 품이 굵이나 더 듭니다. 수정과 상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 재료를 사는 셈 치고 그냥 새겨 드리지요.”

오준은 그 말엔 귀가 솔깃했다. 이 하치않은 돌 대신 수정이나 상아 도장을 그냥 새겨 준다니 ㉡ 흥정은 된 흥정인 것 같았다.

“그러실 것 없이, 이 재료를 맡으시고 상아 도장 하나 더 끼워만 환으로 합시다.”

주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좀 싼 값이긴 해도 그 도장을 수하인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까닭이다.

서법(書法)과 도법(刀法)은 물론, 돌을 다루는 것까지 이 주인은 수하인에게 배우다시피 한 사람이다.

주인은 수하인을 찾을 생각으로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았다.

동소문 집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좁은 방이지만, 알뜰스레 꾸며 놓은 건넌방에 수하인은 등불 밑에 단좌하고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 웬일이고? 가게를 일찍 닫았구만…….”

“네……. 오늘 좀 이상스러운 물건이 들어왔기에 일찍 문을 닫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젊은 친구가 내놓는 도장갑을 보고 수하인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연고이고?”

젊은 친구는, 오준이라는 작자가 그 도장을 갖고 와서 결재 도장으로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던 말에서부터 낱낱이 일러바쳤다.

“㉢ 자네 복일세……. 술을 좀 하련가?”

조용히 묻고 난 수하인은 술상을 청했다.

술을 들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이 마음의 동요를 누르려고 애쓰는 것같이 보여, 젊은 주인은 오히려 미안스러웠다.

“그것이 전황석일세, 자네 처음이지?”

“네?”

젊은 주인은 전황석이라는 말에 주기가 혹 위로 오르는 것 같았다.

“원정 민영익 씨가 쓰던 인장이지……. 그것이 어쩌다 거부 이모가 갖고 있던 것을 우연스레 구했기에, 석운이 벼슬을 했어도 선사할 것이 있어야지. 그래 보냈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구만. 자네 손에 갔으니 이제야 제값을 불러 줄 사람을 찾은 셈일세.”

수하인이 갖고 가라곤 하지만 젊은 주인은 들고 나올 수가 없었다.

㉣ 자기 솜씨라면 뽀뽀 갈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 재료가 귀중한 것이라 해도 마음대로 갈아 버릴 수 없는 물건인즉, 들고 나올 필요가 없었다.

“㉤ 전황석을 알고 쓸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선생님이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하인은 몇 번 사양했지만 젊은 친구의 고집도 어지간했다.

계혈석 도장을 새겨 주기로 하고 수하인은 그것을 받아 두었다.

버릴 수 없는 친구에게 버림을 받은 듯싶어 한없이 섭섭했다.

“산홍이, 술을 한 잔 따라 주우.”

산홍은 수하인 하라는 대로 술을 따라 권했다.

밖엔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잔을 산홍에게 권했다.

산홍은 옛날과 다름없이 두 손으로 받은 잔을 소반 위에 놓았다.

[A] 산전수전 다 겪은 산홍이었지만, 오십을 바라보는 얼굴이면서 잔주름이 없었다.

수하인은 가라앉은 마음의 흥을 돋우려고 대금(大琴)을 들었다.

귀에 익은 가락이다.
 한 잔 술에 얼굴이 붉어진 산홍은 살풋이 눈을 감았다.
 지나온 한평생이 대금의 가락 모양 산홍에게 쓸쓸하고 외로웠다.
 가락을 짚는 수하인의 손끝은 허무한 인정에 떨었고, 지그시
 감은 긴 살눈썹이 축축이 젖어들었다.
 - 정한숙, 「전황당인보기」 -

32. 위 글의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장방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거래를 이끌어가는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② ‘오준’은 전각 재료라든가 전각 기술에 대한 식견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③ ‘석운’은 친구의 정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④ ‘수하인’은 제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에 언짢아하고 있다.
- ⑤ ‘산홍’은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상대방을 공경하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귀한 물건이 홀대받는 속내를 궁금해 하고 있다.
- ② ㉡: 자기에게 유리한 흥정이었다고 만족하고 있다.
- ③ ㉢: 친구에게 보낸 선물이 타인의 손에 들어간 것을 보면서 서운해 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전각 기술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다.
- ⑤ ㉤: 전각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구실 삼아 스승을 위로하고 있다.

34. [A]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작가의 주제 의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등장인물의 변함없는 태도와 쉽게 변해 버린 인심을 대조함으로써 예술이 지니는 현실 비판적 기능을 강화한다.
- ② 대금 연주를 통해 세상에서 받은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를 정신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③ 대금 소리를 매개로 등장인물 간의 감정 이입을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정서적 일체감에 있음을 강조한다.
- ④ 포근한 느낌을 주는 흰 눈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 얼굴을 중첩시킴으로써 인정미 넘치는 사회가 오리라고 기대한다.
- ⑤ 대금을 짚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인공의 고적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낸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녀는 목덜미가 선득거리자 외투 깃을 올렸다. 회사 앞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남 보기에 그렇게 안되어 보일 만큼 실패한 걸까?’

그러자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가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멋지게 속여 넘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은닉하고 있는 것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 도령이 ㉠ 도포 속에 감춰 가지고 있던 마패 같은 것은 아니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무슨 재벌 총수의 딸이더라 식의 돈 많고 지위 높은 아버지를 감춰 두어서도 아니었다. 글썄, 그녀로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자기 맘속의 어떤 그윽하고 힘찬 상태,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중략)

한수가 십 년 전 처음 문자의 자취방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던 때는 한겨울이었다. 유난히도 눈이 잦았던 그해 겨울을 문자는 거의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보냈다. 눈이 쌓인 채로 놔두면 그 물이 언제까지나 콘크리트 천장으로 스며들어 곳곳에서 낙수가 지곤 했다. 오르내릴 사닥다리도 변변치 않았고 고압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문자는 부삽을 들고 날개가 달린 듯 지붕으로 오르내렸다. 식당을 한다는 주인집 내외가 비죽이 웃으며 대청마루에 선 채 구경 삼아 쳐다보고 있거나 말거나, 그녀는 빨갭게 상기된 얼굴로 마치 춤추듯 가볍게 눈을 퍼서 지붕 아래로 집어던졌다. 어쩌다 지나가던 행인이 흙탕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면, 날듯 뛰어내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털어 주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나서 또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또한, 헛간이나 다름없는 문자의 부엌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집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일일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 안집 마당으로 가자면 부엌 뒷문으로 나가서 높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이전의 세든 사람들에게겐, 그 계단이 죽지 못해 오르내리는 ㉡ 굴욕의 사다리로 여겨졌었다. 그 가난한 여인들은 자신이 양손에 물바게쓰를 들고 킁킁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주인집 여자가 비죽이 웃으며 자기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똑같은 방을 빌려 사는 처지이면서도 문자는 그녀들과 전혀 달랐다. 그녀가 뒷문 앞에 나타날 때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온 것처럼 항시 두 뺨이 발그레했다. 때로 그녀는 양손에 바게쓰를 든 것도 잊고 층계참에 서서 한참 동안씩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그리고 난 뒤엔 두 뺨에 발그레한 빛이 안에서 불을 켜 것처럼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싱싱한 생명의 탄력이 음계를 밟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 계단은, 그 위에 있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녀 혼자만 누리기 위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을 일부러 조악(粗惡)하게 꾸며 논 것같이 보였다.

주인집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여느 식구들은 문자가 새벽같이 층계참에 나와 매운 연기를 마셔 가면서도 연탄 화덕에다 신나게 부채질을 활락활락 해 대며 때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엌의 아궁이에 선 물이 솟았기 때문이다.

아궁이뿐만 아니라, 지붕이며 방고래를 고쳐 달랠 만한데도 문자가 혼자 힘으로 잘 참아 나가자, 주인집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물세 불세까지도 터무니없이 물리었다. 그래도 문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달라는 대로 선선히 내주었다. 마치 큰 여유가 있어 그만한 일은 불문에 붙이는 것처럼. 때문에 한집에 세 들어 사는 여인들은 문자의 살림 형편이 겉보기보다 훨씬 알심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느 날 그녀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불시에 문자를 찾아갔다.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본즉, 물이 스며든 천장은 페인트칠이 일어나 너덜거렸고, 녹슨 손잡이가 달린 캐비닛 이외에 이렇다 할 세간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들로서는 문자의 **두 뺨에 서린 발그레한 홍조**와 노래를 몸에 휘감고 있는 듯한 그 발랄한 생기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더욱 몰라졌다. 그녀들은 문자가 수돗가에 나왔다가 떠나고 난 뒤에, 향기 좋은 꽃으로 가슴을 꼭 눌렀다가 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돌았다는 시늉을 해 보이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녀들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자는 남다른 무엇을 소유했던 게 아니었다. 그녀로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의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 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 오는 것을 느꼈다.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몸 밖으로 스며 나가 뺨을 물들이고, 살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녀 자신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한수가 그녀에게 오는 것은 단지 일요일 밤뿐이었지만, 그는 항상 그녀의 **㉠ 시렁 위에 걸려 있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다가도 그녀는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깎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과 다툼 뻔하다가도 그를 떠올리면 분노가 축축하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 토요일을 보내는 사이에 그녀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연금(鍊金)시켜, 이윽고 일요일이 되었을 때 그녀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빛 물이 들었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면 그 옷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이 그러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그의 발을 씻기면 그 발 역시 금빛이 났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솔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여 닦아서 번 돈으로 **㉡ 성전(聖殿) 앞에 켄 양초**를 사는 것같이 마련된 것이었다.

한수는 그녀가 살코기를 집어 줄 때마다 입을 딱 벌려 받아먹기만 할 뿐, 자기도 그녀의 입에 그 고기를 먹여 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을 보지 못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노래임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도 **㉢ 잘 익은 과육에서 나는 것과 같은 향기**가 자기 손가락에 묻어 나는 것도 몰랐다.

- 서영은, 「먼 그대」 -

17. 위 글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면서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 ② 소극적이고 유약한 듯하지만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순수한 삶을 타인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④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이웃들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 ⑤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18. **두 뺨에 서린 발그레한 홍조**와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대상을 비유한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9.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문자’의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통해 과거의 특정한 시간이 애상적으로 회고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눈을 통해 ‘문자’의 사랑이 환상적으로 미화되고 있다.
- ④ ‘한수’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통해 ‘문자’의 사랑에 내재된 시련이 암시되고 있다.
- ⑤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자’의 열악한 생활공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색의 여인 넷이 등장한다.)
 첫째 여인 : 내 이름은 '결핍'이다.
 둘째 여인 : 나는 '빛'이라고 하지.
 셋째 여인 : 나는 '근심'이라고 하고.
 넷째 여인 : 나는 '곤궁'이라고 해.
 셋이 함께 :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어. 안에는 부자가 살아, 들어가기도 싫다.
 결핍 : 그런 데 가면 난 그림자가 되고 말아.
 빛 : 그런 데 가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게 되고.
 곤궁 : ㉠ 사치에 젖은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돌려.
 근심 : 자매님들, 당신들은 저 안으로 못 들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근심은 저 열쇠 구멍으로 스며 들어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결핍 : 회색 자매들, 여기서 물러나는 게 어떨까.
 빛 : 난 네 곁에 딱 붙어 다닐래.
 곤궁 : 난 네 발치만 따라 다니고.
 셋이 함께 : 구름이 몰려오고, 별들은 사라진다. 저 너머, 저 너머에서, 저 먼 곳, 저 먼 곳으로부터 그가 온다, 우리들의 오라비다, 그가 온다 …… 죽음이 온다.
 파우스트 : (궁전 안에서) 넷이 오는 것을 봤는데, 세 명만 돌아가는군. 그녀들이 하는 말의 뜻은 알 수가 없었어. 내 귀에 들리기로는 …… '곤궁'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는 운을 맞춰 …… '죽음'이라고 했지. 참으로 공허하고, 유령의 발걸음처럼 둔중하게 울리는 단어였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 앞으로는 마법도 쓰지 않고, 주문 같은 것도 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자연이여, 그대 앞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 설 수만 있다면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어둠 속에서 헤매기 전까지는, 불경한 말로 내 자신과 세계를 저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저런 귀신들이 공중에 들끓어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 ㉡ 밝은 대낮은 우리에게 이성의 웃음을 선사하지만 어두운 밤은 우리를 악몽의 그물로 사로잡는다. 싱그러운 풀밭에서 산책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오면 새들이 온다. 그런데 뭐라고 울지? 재앙을 부르며 우는 것이지. 밤낮 미신에 얽매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어떤 징조처럼 보이고 그 어떤 경고처럼 들려. 이렇게 잔뜩 겁에 질린 채 우리는 각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문이 삐걱거리는군,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흠칫 놀라며) 여기 누가 계시는가?
 근심 : 그렇다고 해야겠네.
 파우스트 : 그렇다면 당신, 당신은 누구신가?
 근심 : 일단 여기 온 존재.
 파우스트 : 물러가시라.
 근심 :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데.
 파우스트 : (처음에는 격분한 표정, 그 다음엔 진정하더니 혼잣말로) 정신을 가다듬어라, 마법의 주문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근심 : 내 목소리는 아무 귀에도 들리지 않지만 일단 마음속에 들어가면 천둥처럼 울리지. 시시각각 모습을 바꿔 가며 끔찍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다. 숲 속 길을 가건, 물 위를 가건 항상 붙어 다니며 겁을 주는 동료가 나라고 찾는 사람은 없어도, 어느 때나 나타나지, ㉢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게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대는 아직까지 근심이라는 자를 모르고 살아오셨나?
 파우스트 : 나는 오로지 이 세상을 질주하며 살아왔다. ㉣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바로바로 낚아챘지만, 충분치 않은 것은 놓아 버리며 빠져나가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저 원했을 뿐이고, 그러면 그것을 성취했을 뿐이다. 또다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힘을 내면서 인생을 질주해 왔다. 처음엔 원대하고 힘차게 지금은 현명하고 사려 깊게. 지상의 일이라면 알 만큼 안다. 천상을 향한 전망은 인간으론 불가항력. 저 하늘을 향해 눈을 껌벅이며, 구름 위에는 자신과 닮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이 땅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둘러보란 말이다. 세상은 유능한 자에게 침묵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영원을 찾아 헤맨단 말인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상의 날을 따라가면 된다. 영령들이 출몰하면 출몰하게 두라. 앞을 향해 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이다.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만족을 모르므로.

근심 : 일단 내게 붙잡히기만 하면 온 세상이 쓸모가 없어져. 영원한 어둠이 내리덮여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게 되지. ㉠ 외적인 감각은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내면엔 어둠만이 감돌아. 세상 모든 보물을 보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 것으로 만들지도 못해. 행복해도 괴롭고 불행해도 괴롭고, 차고 넘치게 가져도 굶어 죽을 지경이지. 행복한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항상 다음날로 미루고, 그저 미래만 기다리니 어떤 일이든 끝내지를 못해.

파우스트 : 그만 해라! 나에겐 그런 식으로 통하지가 않아!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단 말이다! 다른 곳이나 가 보라!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제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잃겠구나.

근심 : 가야 할까, 외야 할까, 결단을 내리지도 못해. 탄탄대로에 들어서서도 더듬거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해. 제 스스로 점점 더 길을 잃으면서 세상만사가 다 비틀리게만 보여. 남들에게도 부담 되고 자신에게도 짐이 되어, 숨을 쉬다고는 하나 질식하기 직전이지. 죽는 것도 아니면서 생기는 없고 절망하지는 않지만 의욕도 없어. 제자리만 맴돌 뿐 그만두자니 괴롭고 억지로 하자니 화가 나. 풀려난다 싶으면 속박되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쩍 없이 제자리에 붙박여 죽을 날이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지.

파우스트 : 참으로 고약한 귀신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천 번 만 번 인간들을 괴롭혀 왔단 말이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세월들을 구역질 나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고통의 그물로 바꾸어 놓는구나. 악령들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안다. 정령들이란 한번 유대를 맺으면 끊기가 어렵지. 하지만 근심이여, 은근슬쩍 기어드는 자네의 위력을 나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심 : 그렇다면 직접 느껴 보시게나. 서둘러 저주의 말을 남기며 작별을 고하노라! 인간들이란 평생 눈이 멀어 살지, 파우스트, 드디어 당신 차례다.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입김을 내뿜는다.)

파우스트 : (눈이 먼 상태에서) 밤이 점점 깊어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속은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서둘러 완성해야겠다. 주인의 말만큼 위력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일어나라, 나의 종들아, 다들 밖으로 나오라! 내 담대히 계획한 것들을 훌륭하게 성사시켜 보자! 작업 공구를 손에 들어라, 삽과 쟁이를 움직여라! 계획한 일은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는 자, 반드시 특특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려면 수천의 손들을 부릴 수 있는 위대한 정신 하나면 족하다.

- 괴테, 『파우스트』 -

26. 위 글에 나타난 ‘근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열쇠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파우스트도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결핍’, ‘빛’, ‘근궁’과 더불어 등장함으로써 파우스트가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파우스트가 자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암시함으로써 파우스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④ 자신에게 인간들이 사로잡히는 것이 어찌서 필요한가를 파우스트에게 예를 들어가며 설득하고 있다.
- ⑤ 파우스트가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27.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정신적 곤궁함은 외면하기 마련이다.
- ② ㉡ :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 ③ ㉢ : 과도하게 배격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만 않는다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 : 원하는 것은 주저 없이 쟁취했지만, 쟁취한 것에 연연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욕심도 없었다.
- ⑤ ㉤ :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라 하더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두운 측면이 비일비재하다.

28. ‘파우스트’의 인물형을 <보기>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할 때, 위 글에서 표현하고자 한 ‘파우스트’의 면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파우스트는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역사를 추동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전형성을 압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예컨대 ㉠ 신과의 소통을 갈구하고 ㉡ 다양한 학문에 몰두하다가 ㉢ 인간 인식의 한계에 절망하는 중세 철학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마술과 과학 사이를 오가면서 ㉣ 신학적 금기에 거리낌 없이 도전하는 근대 이행기 연금술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의를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등장인물들은 조당전의 집에서 <영월행 일기>에 따라 역할놀이를 한다. 이어서 <세조실록>과 <해안지록>을 함께 놓고 원탁 독회를 하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서재 뒤편에는 다른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있다. 역할놀이를 위해 소도구가 사용된다.

(조당전, 미닫이 앞에 와서 당나귀를 멈춘다.)

조당전 : 기와집 문 앞이야.

김시향 : 조용하군요, 여전하…….

조당전 : 음…….

김시향 : 우리가 왔다고 말해요.

조당전 : (당나귀에서 내려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한다.) 문안드리오! 지난 여름 다녀갔던 붓짐장수, 가을에 다시 와서 문안드리오!

(미닫이문, 양쪽으로 벌어지며 열린다. 그 뒤쪽에 웃는 표정의 소년 형상이 보인다. 소년 형상 앞에는 수많은 인형들이 나오는데, 염문지와 부천필과 이동기가 기다란 대나무에 줄을 매단 그 인형들을 움직인다. 염문지가 소년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말한다.)

소년 형상 : 어서 오라, 그대여! 나는 그대 덕분에 만면에 가득 웃음을 짓는도다. 보아라, 그대여! 그대가 나에게 주었던 가위로 옷감을 자르고, 바늘과 실로 사람 형상으로 꿰매었더니 비록 안에는 톱밥을 채워 넣고 사지는 줄로 매달았으나 능히 살아있는 듯 움직이도다. 성삼문아, 박팽년아,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야, 나를 위해 죽은 사육신이여! 내 앞으로 가까이 오너라!

(부천필과 이동기, 여러 인형들을 움직여서 웃는 얼굴 앞으로 옮겨 세운다.)

소년 형상 : 김시습, 성담수, 조여, 이맹전, 원호, 남효원, 나를 위해 자취 감춘 생육신이여! 그대들도 오늘은 내 앞으로 나오너라!

(부천필과 이동기, 또 다른 인형들을 웃는 얼굴 앞에 옮겨 놓는다.)

소년 형상 : 어서 오너라, 나를 퍽박한 한명회도 반가웁고, 나를 동정한 신숙주도 반가웁구나! 오랫동안 쓸쓸한 공백, 텅 비었던 시야가 문무백관으로 가득 찼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왕후여, 그리운 왕후여, 내 옆에 와서 좌정하십시오! 만조백관들이 었드려 절을 하니, 흔쾌한 웃음 짓고 이 절을 받으십시오!

(염문지, 왕후의 의복으로 성장을 한 조그만 인형을 소년 형상 옆에 앉힌다. 부천필과 이동기는 수많은 신하 인형들을 움직여 절을 드린다.)

소년 형상 : 보아라, 그대여! 내 몸은 비록 왕관 빼앗기고 곤룡포 벗김 당하였으나, 내 마음은 형겁으로 만든 만조백관들을 바라보며 흡족하도다! 들어라, 붓짐장수여! 그대는 돌아가서 그대를 보낸 자들에게 내 말 전하여라! 내 마음이 진정 왕

과 같거늘, 어찌 구차한 왕관을 쓰기 바라고, 구태여 곤룡포를 입기 바라겠느냐? 나는 나를 왕좌에 복위시키려는 그 어떤 짓도 관심이 없고 그 어떤 사람과도 관련이 없으니, 그대는 돌아가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전할지어다!

(벌어졌던 미닫이문이 닫힌다. 조당전은 당나귀와 함께 돌아선다. 그러나 김시향은 조금 전 봤던 광경에 사로잡힌 듯 제자리에 멈춰 서 있다.)

조당전 : 뭘 해, 가질 않고……?

김시향 : 아…….

조당전 : 우린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 주자구.

김시향 : 네…… 가요…….

(조당전과 김시향, 미닫이문 앞을 떠난다. 그러자 염문지, 부천필, 이동기가 그 문을 열고 서재로 나온다.)

이동기 : 쉽지 않더군. 인형들을 살아있는 듯 움직인다는 게…….

부천필 : 어때? 자네 부탁이어서 잘 해 보려고 애는 많이 썼는데?

조당전 : 아주 잘 했어.

염문지 : 정말인가?

조당전 : 나중엔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

친구들 : 실감나게 보였다니 다행이군!

조당전 : (김시향에게 친구들을 소개하며) 고서적 연구 동우회 회원들이죠. 염문지 씨, 부천필 씨, 이동기 씨입니다.

친구들 : 안녕하세요!

김시향 : 안녕하세요.

조당전 : (친구들에게 김시향을 소개한다.) 이 분은 <영월행 일기>를 나에게 파셨었지.

부천필 : 언젠가는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이 친구하고 영월에 갔다 오곤 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요.

김시향 : 저도 선생님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염문지 : 그럼 우리가 <영월행 일기>를 연구한다는 것도 아시겠군요?

김시향 : 네.

염문지 : 오늘은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십시오. (구석에 놓인 원탁을 가리키며) 저기, 원탁 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영월에 다녀온 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저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고서적 동우회원들, 원탁과 의자들을 서재 한가운데 옮겨 놓는다. 염문지가 먼저 원탁에 앉고, 부천필과 이동기가 좌우로 나뉘어 앉는다. 조당전과 김시향은 부천필 옆 의자에 앉는다.)

염문지 : 영월에서 돌아온 날짜가 언제였지?

조당전 : (원탁 위에 놓여 있는 <영월행 일기>를 집어 들고 날짜를 확인한다.) 음…… 우린 구월 그믐날 돌아왔어.

염문지 : (<세조실록>을 펼쳐서 페이지를 넘기며) 어전회의는 그 이후에 열렸겠군.

김시향 : 무슨 책이 그렇게 두툼해요?

염문지 : <세조실록>이죠. 모두 사십오 권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조당전 : 이 일기에 씌어 있기를 어전회의는 시월 열여드레 날 열

렸다는군.
 염문지 : 그렇게 늦게……?
 조당전 : 회의를 늦추며 뭔가 대관들끼리 의견 절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야.
 이동기 : 나 같으면 절대로 절충은 안 해!
 부천필 : 저 고집 좀 봐!
 염문지 : 아, 여기 찾았어. “세조 삼 년 시월 십팔 일, 노산군의 기쁜 표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동기 : (<해안지록>을 펼쳐서 부천필에게 밀어 주며) <해안지록>의 마지막 장이야. 자네가 먼저 읽어.
 부천필 : (<해안지록>을 이동기에게 밀어 준다.) 아냐, 자네가 먼저 읽어.
 이동기 : “소신 한명회, 전하께 아뢰옵니다.”
 염문지 : <세조실록>에는 그날 임금은 늦은 보고에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적혀 있군.
 이동기 :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노산군의 얼굴은 만면에 웃음 지은, 기쁨의 표정이라 하나이다. 이는 날이 갈수록 그가 오만불손해지고 있음이니, 전하께선 더 이상 지체 마옵시고 그를 처형하소서!”
 (이동기, <해안지록>을 부천필에게 밀어 준다.)
 부천필 : “전하……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노산군은 왕권에는 관심이 없고, 복위에도 관련이 없다 하였나이다. 노산군의 기쁨은 무욕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의 웃는 얼굴은 욕망을 버린 증거이온데, 어찌 죄가 되오리까? 전하께선 부디 그를 살려 주옵소서.”
 김시항 : 저렇게 주장하는 분은 누구시죠?
 조당전 : 신숙주입니다.
 이동기 : (부천필에게) 그 책 이리 줘. 내 차례야.
 부천필 : (이동기 앞으로 책을 밀어 주며) 좀 부드럽게 읽어.
 이동기 : 부드럽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염문지 : 그래, 자네 성질대로 해.
 이동기 : “전하,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지 아니하며, 땅에는 두 명의 제왕이 있지 않나이다. 그러함에도 노산군은 방자하게 자신이 왕의 마음을 가졌다 하였으니 이는 전하와 동격이라는 주장인바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것이옵니다.”
 염문지 : 여기 실록에는…… 세조가 노기충천하여 그 말이 사실인지를 재차 물었어.
 이동기 : “의심 마옵소서, 전하. 소신과 신 대감이 함께 들었나이다.”
 부천필 : (이동기 앞에 놓인 <해안지록>을 황급하게 가져가서 읽는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한낱 필부도 마음이 혼쾌할 때는 제왕을 부러워 않는 법, 노산군의 말을 곡해하지 마옵소서.”
 염문지 : (<해안지록>을 자신의 앞으로 당겨 놓고 세조의 발언 대목을 찾아 읽는다.) “경들은 들으라! 노산군의 무표정을 견뎠던 내가, 슬픈 표정도 견뎠던 내가, ① 기쁜 표정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도다! 만약 노산군의 기쁜 표정을 그대로 두면 온갖 시정잡배마져 제왕과 다름없다 뽀넬 터인즉, 대체 짐이 무엇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동기 : “소신의 주장이 처음부터 그 뜻이었나이다. 전하, 속히 처단하소서.”
 염문지 : “노산군을 죽여라!”
 김시항 : (놀란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죽여요?
 염문지 : “당장 영월로 사약을 보내라. 하늘에는 오직 한 태양만이 빛을 내고, 땅에는 오직 짐만이 웃는 얼굴임을 보여 줘라!”
 - 이강백, 「영월행 일기」 -

19. 위 글의 전개에서 <영월행 일기>, <세조실록>, <해안지록>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월행 일기>는 유배 당한 노산군의 사정을 보여 준다.
 - ② <세조실록>은 노산군의 행위에 대한 세조의 심리적 반응을 보여 준다.
 - ③ <해안지록>은 노산군의 행위에 대한 중신들의 관점 차이를 드러낸다.
 - ④ <세조실록>과 <해안지록>은 함께 어전회의 상황을 구체화한다.
 - ⑤ <영월행 일기>와 <해안지록>은 세조의 처결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드러낸다.
20. ‘원탁 독회’ 장면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김시항과 조당전은 독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속 배역을 맡고 있지 않다.
 - ② 조당전과 염문지는 독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다.
 - ③ 염문지와 부천필은 독회에서 배역을 수행하는 태도에 대해 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부천필과 이동기는 독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속에서 대립하는 배역을 맡고 있다.
 - ⑤ 이동기와 염문지는 독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 속에서 의견 일치에 이르는 배역을 맡고 있다.
21. ㉠에 담긴 ‘세조’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노산군의 웃음은 왕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회피의 발로이므로, 왕권으로부터의 도피이다.
 - ② 노산군의 웃음은 왕권을 상실한 슬픔을 감추려는 가식의 표정이므로, 왕권에 대한 위협이다.
 - ③ 노산군의 웃음은 왕권에 포섭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표정이므로,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 ④ 노산군의 웃음은 왕권의 지배를 내면화한 피지배자의 것으로, 왕권에 대한 거짓 승인이다.
 - ⑤ 노산군의 웃음은 왕권의 부조리함에 대한 자기 반성의 표정이므로, 왕권에 대한 능멸이다.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사를 한다면?”

“안 돼요, 이사는. 이젠 죽어도 이산 할 수 없어요. 날 여기 혼자 두고 가든지 말든지 하세요. 난 다시는 이삿짐을 꾸리진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잘 알지 않아? 날 더러 죽으란 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래도 안 돼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 마을만 하더라도 옮겨 산 게 몇 번이에요?”

이 집까지 치면 세 번째였다. 불들네에서는 구식 마구간에다 방 두 칸을 들여 세를 살았었다. 내 방은 평 반 남짓한 골방이었다. 간신히 발을 뺄 수 있었고 넓이는 그것이면 족했다. 거기서도 문제는 방음이었다. 내 딸아이와 합쳐 아이들이 넷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졌다. 만상은 아이들의 해살곳은 얼굴과 껍뻍이는 아이들의 오리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으레껏 아내거나 딸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느닷없는 나의 신경질과 고함애 아내를 어쩔 바를 몰라 흐느꼈고 죄 없는 딸아이가 짜리비에 맞아 경기를 했다. 나는 점점 더 난폭한 정신병자가 되어 갔던 것이다.

“그래? 죽어도 이산 못 하겠단 말이지? 이 동네가 그렇게두 좋아?”

“누가 좋다고 그랬나요?”

“그럼 뭐야?”

“이 동네에 들인 공이 아까워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네 장담의 당당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지도 오래였다. 게다가 이제 갓 깡깡깡 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장끼놈은 불들네의 개가 쳐들어와 물어 죽여 버리고, 까투리는 목 너머 마을 양계장 집 누렁이가, 이제 남은 것은 이천의 조각하는 강 형한테서 얻어 온 호로새 한 쌍과 집에서 놓아 먹여 기르는 암탉 한 마리뿐이었다. 뒤란 꽃사과나무 아래 핑장은 뜯어 발겨진 핑 털이며 깔짚이 너저분하게 엉겨 흐트

[A] 러져 있어서, 거길 들여다볼 때면 마치 시달리다 지쳐 버린 나 자신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마냥 끔찍스러웠다. 술이 억병으로 취한 불들 아버지가 우리네 장담 모가지들 탁 틀어쥐고 꿈지며 날갯죽지의 깃털을 몽땅몽땅 쥐어뜯으면서, 그걸 잡아먹겠다고 동네방네 고함을 치며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내 마음에는 작정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아내에게 나는 말했었다. 끔찍한 동네야. 저게 소위 한 작가를 대접하는 이 사회의 한 가지 방식이야.

“에미, 넌 내가 글 한 줄 제대로 못 쓰고 이 집에서 정신병자가 되어 미쳐 나가도 중단 말이지?”

“왜 미친단 말예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집에서 물러서란 말예요?”

“글렀어, 이젠. 더티 플레이를 예사로 하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네들이 아니야. 에미야, 넌 지금껏 내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지?”

“㉠ 알고 말고요. 그걸 명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길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아. 문제가 뭔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 보자구.”

“이사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 그렇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우선…….”

우선 당장 그미의 산월(産月)이 다 돼 간다는 게 아내로서는 큰 고통거리일 것이었다.

“애는 이살 해서도 낳을 수 있어. 꿈쩍도 말고 앉아 있어. 이삿짐 꾸릴 때 밥 식기 하나 챙기지 않아도 좋도록 내가 조처해 줄 테니까. 의사들은 괜히 유산될 거라느니 어찌느니 겁주는 거야.”

“그런 건 문제도 안 돼요……. 이 집에 이사 온 지 대여섯 달 밖에 안 됐어요.”

“㉢ 알아. 수리비 얘기겠지?”

“빠아프게 밤잠 안 자고 글 써서 번 돈이에요.”

집 수리비 관계로 이사 들기 전에 안주인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집이 너무 낡았으니 수리비의 반 정도를 부담해 달라는 게 우리 쪽의 요구였고,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게 안주인의 주장이었다. 하느 수 없었다. 이사 들기 전에 장작 부역을 새마을보일러로 고치고 바닥에다 콘크리트를 쳤다. 터진 곳은 때우고 바랜 곳은 수성 페인트를 바르고 마당을 시멘트로 입히고 도배를 해 올리니 집의 면모는 일신했다. 대문간에 현관을 달았다. 그 이름 ‘청정재(淸靜齋)’, 아내가 좋아하는 청결과 나의 비원인 조용함을 강조한 현판이었다. 대청마루의 굵은 기둥에다 ‘淸潔 靜肅’이라 크게 써 붙이고 정씨의 건넌채 미단이 위에는 그의 이름을 따서 ‘眞生堂’이라 올려다 붙였다. 그의 병든 아내를 위해서는 그 아래 문틀에다 ‘願 至福’이라 써 올렸다. 지금에 이르러 나의 그 필적들을 쳐다보기란 끔찍한 일이었다.

“우리가 나간다면 집주인은 열씨구나 할 거예요. 집수리까지 깨끗하게 해 봤으니 전셋돈을 아마 백만 원은 더 올려 받으려 들 거예요.”

“우리가 반년도 안 돼서 못 살고 나가게 됐으니, 주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셈치고 수리비 삼십만 원의 반이거나 삼분지 일만이라도 내놓으라고 때를 써 볼까?”

“그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데요? 계약서를 들먹일 거예요.”

“㉣ 그렇지, 계약서.”

“수리비는 그렇다 치고 송아지는 어떻게 참이예요? 마구간까지 어렵사리 해서 세를 얻어 봤는데 이제 와서 소 키우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놈의 송아지였다. 그건 미래의 우리들 크나큰 희망이었다.

“글쎄, 마구간이 딸린 집을 구할 수가 없을까? 저 안골이니 월문리 같은 데 말이야.”

“다 다녀 보지 않았어요? 마구간 딸린 집이 그리 쉽던가요? 그런 데가 없으니깐 여기라도 눌러앉은 것 아녜요.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우린 이 고비를 이겨 나가야 해요.”

“㉤ 알아. 내가 그 빌어먹을 잡문 공포(雜文恐怖)에서 해방되는 것도, 또 말라빠진 여성지 연재 따위를 안 해도 되는 것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한 지붕 밑에서 지지고 볶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도…… 저것들을 키우고 불리고 다시 키워서, 어떻게 어떻게 다시 시작해 보겠단 일념에서였지. 알아.”

연재가 끝나면 글쓰기를 당분간 잊혀 두고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도 송아지를 키우고 늘리기 위해서였다.

-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

27. ㉠~㉤에 반영된 인물의 심리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 : 상대방에 대한 태도의 변화
- ② ㉡ :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각
- ③ ㉢ : 난관을 타개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 ④ ㉣ : 자신의 상황 인식에 대한 확신
- ⑤ ㉤ :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의 인정

28. [A]로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것은?

- ① 주인공이 이사를 하려는 배경
- ② 주인공이 겪고 있는 사건의 긴박함
- ③ 동네 사람들과 주인공의 소원한 인간관계
- ④ 주인공이 농촌 생활에서 받은 정서적 충격
- ⑤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성격

29. 작가로서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에 대해 아내와 생각이 다른 것은 작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아내와의 견해차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② 진정한 글쓰기를 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작가적 사명감을 잃지 않으려는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것은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할 조건을 찾는 작가의 바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④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것은 작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 ⑤ 여성지 연재를 해야 하는 것은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작가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것지도 않았다. 그건 내 예상과 아주 많이 다른 것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차라리 그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내기를, 울부짖거나 원망하기를, 혹은 주먹을 들어 ㉠ 내 품은 영혼에 매질을 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나를 노려보기만 했다. 아니, 소름끼치는 눈으로 찬찬히 관찰했다. 표정을 읽어낼 수 없어 답답했다. 나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번안곡이에요. 원래는 삼사 년 전에 일본, 아,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일본 것도 아니지요.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던 시절에 일본이 흠모하던 영국의 동요가 그 뿌리니까요. 하지만 영국 이전에는 네덜란드의 서민 음악이었고, 그 음악은 17세기 중국 광둥 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전통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광둥 지방의 어느 중국인이 이 노래의 원작자일까요?”

아르판은 대답하지 않았다. 속내를 짐작할 수 없는 시커먼 눈동자가 무서웠다. 답답했다. 나는 부탁하고 싶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다르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나는 쫓기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광둥의 리듬을 차용했지만, 이 곡에는 자신이 거쳐 온 네덜란드나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고유한 향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알려진 게 그 정도라 그렇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까지 소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노래의 마디마디에서 원작자를 찾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옳지도 않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이 음악은 칠음계를 사용하고 있군요. 또 리듬의 중심엔 일렉트릭 베이스가 있네요. 그렇다면 칠음계의 수학적 원리를 고안한 피타고라스, 베이스 기타의 발명자인 폴 튿말크를 불러다 이 음악에 관한 창조의 권리를 부여해야 할까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숫자를 발명했나요? 튿말크가 소리를 발명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예술은 단 한 번도 순수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모든 창조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각주와 수정을 통해 나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나는 아르판이 모를 게 분명한 온갖 장르와 지역과 사람의 이름을 난잡하게 혼용함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내 논리의 허점을 감추려 노력했다. 높이 쌓는 행위가 문화라면 아르판이 써 나간 건 예술이다. 하지만 나는 그 차이를 일부러 무시했다. 무시하고, 어떻게든 동일시하기 위해 애썼다.

(중략)

나는 거의 화를 내고 있었다. 바락바락 대드는 심정으로 말했다.

“네, 나는 당신 것을 흠뻑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덧칠함으로써 더욱 멋지게 살려냈습니다. 내가 흠치지 않았더라도 당신 이야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흠치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는 머지않아 당신과 함께 영원히 묻혀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입니까? 불멸하는 것과 영원히 묻히는 것, 어느 쪽을 원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창조해 낸 인물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책장의 가장 밝은 곳에 꽂혀 있던 아르판의 책을 꺼내어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건 것처럼 압담한 시기를 지나는 중이었다. 내게도 뛰어난 이야기를 알아볼 눈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 요리는 못해도 미각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 증명에서 시작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부터 되찾고 싶었다. 나는 와카어의 지식을 되짚어가며 정성껏 번역했다. 극심한 가난과 조울증의 고통 속에서 그 작업은 한 해 넘게 계속되었다.

자세를 똑바로 잡았다. 등을 등받이에 밀착시키고 꼬았던 다리를 펴 내렸다. 감정을 최대한 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르판, 지금 이 노래 들리지요?”

이번엔 여자 가수가 떼로 출동해 저를 떠나지 말라며 악을 쓰고 있었다. 아르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필경 수 년 내에 쓰러져 문힐 ㉠저 가우똥한 오두막에서의 명예를 사랑합니까?”

옳지 않은 것을 설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 억박지른 논리는 ㉡내가 발명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 말을 끝낸 뒤, 묘하게 고정되어 있는 아르판의 까만 눈을 피해 곱창볶음만 바라보았다. 부끄럽다기보다는 겁이 났다. 외카의 땅에서라면 이런 짓을 한 나는 그의 거친 손에 붙잡혀 죽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 ㉢취향도 똥도 아닌 대중성으로 요란히 장식된 한국산 기성복과 함께 화장터에서 불살라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은 문명 세계고 나는 이곳의 주민이어서, 어느 순간 아르판의 눈빛이 맥없이 풀리리라는 것을, 제 피조물과 이야기기를 영원히 살리는 쪽으로 동의하리라는 것을, 내가 이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아르판이 눈을 몇 번 깜박이더니, 그윽하게 감는 것이었다. 스피커에서는 떠나지 말라며 악을 쓰는 목소리가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 나는 차라리 모든 것이 떠나가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말없는 아르판도, 나를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해 준 저 책도, 불멸을 향한 아찔한 ㉣기만도, 저주받을 욕망과 열정도, 죄의식에 억눌려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나날도 모두, 모두.

조금 지나 아르판이 눈을 떴다. 맑고 굵은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빛이 어려 있었다. 잠시 나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다 일어났다고 생각한 뒤에도 한참을 더 일어났다. 고급 승용차의 자동 안테나처럼 위로 쭉쭉 올라갔다. 그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가우똥하게 서 있지 않았다. 엄청난 신장을 과시하듯, 자신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아냐고 묻는 듯 똑바로 기립했다. 그 상태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만 돌아가 쉬어야겠군요.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르판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분노나 절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겉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정말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뜻밖의 반응에 당황한 나는 무릎으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어정쩡하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 박형서, 「아르판」 -

2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가 인물 자신의 시각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 ② 현실로부터 소외된 인물을 통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배경 공간을 객관적이고도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인물의 성격 변화를 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사건들을 원래 발생 순서와 다르게 제시하여 사건들 간의 인과성을 드러내고 있다.

27. ㉠~㉣의 문맥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창작 능력은 없어도 좋은 작품을 판별하는 감식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에 타협하는 부도덕을 의미한다.
- ③ ㉢은 홀륭하지만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 ④ ㉣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애써 만들어낸 궤변을 뜻한다.
- ⑤ ㉣은 대중이 애호하는 것들로 구성되었지만 실상 별 가치가 없는 상품을 뜻한다.

28. ‘나’와 ‘아르판’의 대화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아르판이 만날 때 들리는 음악은 아르판이 ‘나’의 논리에 승복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 ② ‘나’가 아르판의 반응에 계속 신경 쓰는 것은 실상 자신이 먼저 피로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③ ‘나’를 향한 아르판의 시선 변화는 그가 사태를 관찰하고 생각하며 결심하는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나’는 아르판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에서는 ‘나’의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⑤ ‘나’에게 아르판이 일어나는 동작이 길고 크게 보인 것은 불안과 자책을 불러일으킨 그에게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29. ‘나’가 자신의 행위를 ㉣으로 생각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문화권 예술에 대한 표절은 자기 문화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 ② 문화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창조적 요소가 새로운 예술의 원천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③ 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에 고유성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일반적인 문화와 달리 예술은 창조성을 고유한 본질로 삼는다는 것을 도외시했기 때문이다.
- ⑤ 외견상 달리 보이는 작품도 실제로는 기원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 갔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물어 온 피곤기를 가면 뒤에서 말끔히 씻어낸 다음 지연을 찾아 ㉠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A] 명식은 분명 그 가면 뒤에서라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그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새삼스럽게 자기를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이윽고 지연에게도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어찌된 셈인지 그녀는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수궁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식에게서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었기 때문일까. ㉡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뻗뻗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어떤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려 버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날 한 번밖에 명식이 자기의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한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다 깊이 지녀 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잠시 후 명식이 밤 외출에서 돌아온다.

한참을 기다렸다. 역시 기척이 없다. 이상한 일이었다.

㉢ 오늘 밤에도 또?

지연은 갑자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문득 어떤 별난 밤의 일이 떠올랐다. 그날도 명식은 썩 오랜만의 밤 외출에서 돌아와 소리 없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이었다. 지연은 물론 그녀의 침대 속에서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기척이 없었다. 지연은 불쭉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들었다. 술이 너무 지나쳤나 싶기도 했고, 그런 일이 워낙 처음이라 다른 심상찮은 변고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그녀는 기다

리다 못해 결국 자기가 먼저 침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여자가 먼저 남편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가 여간 쑥스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명식을 살피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루에서 잠깐 발길을 망설이던 그녀는 ㉣ 가만가만 2층 계단을 올라갔다.

㉤ 지연이 명식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을 때 방안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도 판판이었다.

“좀 들어오지그래.”

기다리고 있거나 했었던 듯 문을 열기도 전에 명식의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술이 취해 있기는커녕 너무도 정연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지연은 쑥스러움도 잊고 끌리듯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명식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근처의 어둠 속에 조용히 파묻혀 있었다.

“앉지 않구.”

어둠 속이라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지내다 가.”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긴 말이었다. 지연은 감히 명식의 곁으로 갈 수가 없었다. 공연히 그가 두려웠다. 변장을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만나 버리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등 없는 등글의자 위로 몸을 주저앉혔다. 그러나 지연은 그러고 앉아서도 명식의 어떤 분명한 얼굴을 보고 있었다.

[B] 명식은 아직 변장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목소리가 너무 잔잔했다. 어딘가 한숨 같은 것이 묻어 있는 잔잔한 음성이었다.

지연은 명식의 그 음성으로 그가 지금 자기는 보지도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내보낸 채, 그녀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깊은 갈망에 젖고 있다는 것을 어슴푸레 느낄 수 있었다.

- 이렇게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밤이 좋군. ㉥ 대낮은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누구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그 엄청난 대낮의 햇빛을 스스럼없이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잘 단련이 되고 있는 건 다행한 일이지.

- 하지만 그건 다행스럽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가면을 든든하게 단련시켜 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

- 가면이 우는 걸 보았을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르게 마련이거든.

명식은 역시 취기가 좀 숨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떠엄떠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앞뒤가 닿는 소리만 추려 보면 대강 그런 식이었다. ㉦ 지연이 보아 온 대로였다. 대낮을 다니는 맨얼굴에서 가면을 느끼는 대신, 가발과 콧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는 당장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기미였다. 그리고, 그래서 명식은 그러한 변장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고뇌를 가장 정직하게 안을 수 있는 듯한 태도였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서 어둠에 싸인 명식의 희미한 모습만 더듬고 있었다. 그러다가 방을 나오고 말았다.

- 이청준, 「가면의 꿈」

7.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을 주관적 시각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 ② [A]는 인물의 독백적 발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 ③ [B]는 사건을 작중 상황 안에서 목격하는 인물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서로 다르다.
- ④ [B]는 작중 상황 안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한다.
- ⑤ [B]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작중 상황 밖에서 전달하다가 작중 상황 안으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8.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귀가할 때 다른 가면을 지어내는 ‘명식’에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
- ② ㉡: 가면을 쓴 ‘명식’과의 대화가 누차 반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명식’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타인들의 시선 때문에 낮에도 변장을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명식’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지연’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9. ㉠과 ㉡에 제시된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아래층 인물이 위층 인물을 전과 달리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 ② ㉠은 위층 인물이 자신의 가면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③ ㉠은 위층 인물이 일상의 고단함을 탈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 ④ ㉡은 아래층 인물의 내적 욕망과 행동의 괴리가 일어나게 한다.
- ⑤ ㉡은 아래층 인물이 부부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설 속 인물의 변신 모티프는 그가 겪는 갈등의 크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깊은 소망을 내보이는 방편일 뿐, 소망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변신은 갈등의 일시적 해소 효과가 없지 않지만, 가짜 해결의 속임수이고 상상적 희망의 기호에 불과하다. 결국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자아의 진실을 근거로 하여 그것에 맞서는 것뿐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 ① ‘지연’이 ‘명식’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의자에 앉은 것은 ‘명식’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② ‘명식’의 밤 외출이 잦아지는 것은 현실 세계와의 불화로 인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③ ‘명식’이 가면의 눈물은 속으로만 흐른다고 말한 것은 참된 자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다.
- ④ ‘명식’의 가면을 똑똑히 보지 않고도 그를 기다리는 ‘지연’의 행위는 ‘명식’의 상상적 희망을 자기화한 것이다.
- ⑤ ‘명식’이 가면을 쓴 자신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가 일시적 속임수에 도취되었음을 의미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60년대 근대화 담론은 해방과 분단으로 공고화된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동원한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화를 비판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김자림의 희곡 『이민선』(1964)은 이민과 여성을 매개로 시대의 단층을 드러낸다.

당시 브라질 영농 이민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구 억제를 위해 산업화 과정에서 도태된 국민들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민선』의 중심 서사를 이루는 창수네 일가를 살펴보자. 창수에게 브라질은 사탕무를 심어 부를 일구는 미래다. 해방을 맞아 귀국하던 감격을 잊지 못하는 창수댁은 이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회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아들 만세는 농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민을 통해 예술로 “세계 속에 한국을 이해시키는 정신적 지주”가 되기를 바란다. 딸 소라는 성인임에도 원숭이 인형을 들고 다니며 유년기의 감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 이민을 ‘속일 줄도 속을 줄도 모르는 그대로의’ 존재인 인형의 고향에 가는 여정으로 생각한다. 창수의 처남 덕보는 제대 후 실업자로 있다가 속이고 미워하는 아수라장 같은 이 땅에 지쳐 이민을 결심한다. 이민단의 다른 가족도 사정이 있다. 득찬은 실업 상태를 견디다 못해 아내와 자식, 아버지와 동생까지 데리고 왔다. 월남민 피양댁은 이민을 위해 깡패 물개와 복덕방 영감을 끌어들이 가족을 급조하고 돈으로 좌지우지한다. 피양댁의 친딸 보비도 이민단에 동참하나 조국에서 추방되는 듯하여 소극적이다.

세 일가가 부산에 도착해 이민을 축하하는 파티까지 열었지만, 창수네 일가는 빚보증 때문에, 피양댁 일가는 물개에 얽힌 투서 때문에 이민선을 타지 못하고 보름 가량을 보낸다. 그동안 보비는 만세의 포부에 감동하고 그의 연인이자 이민의 지지자가 된다. 창수는 피양댁의 요구대로 혈값에 땅을 팔려 하나 무산되었다. 이민선이 출항하기 전날, 창수는 다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소라는 그녀를 백치로 여기던 물개에게 겁탈당한 뒤 바다에 투신한다. 이에 이민을 포기하려 했던 만세는 이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보비의 독려로 의지를 회복하지만, 창수댁은 이민선 탑승 직전 소라의 버려진 인형을 발견하고 착란을 일으켜 지금을 해방 후 귀국하던 날로 안다. 애국가의 주악 소리를 배경으로 창수 일가는 착란 상태의 창수댁을 부축하여 승선한다.

『이민선』은 근대화를 이민으로 은유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억압과 배제의 모습을 출항하는 이민선의 얼룩처럼 남겨둔다. 개인들의 합의를 유보한 채 미래의 환상을 내세워 이민을 이끌어가는 남성들의 강박이 암시되는 것이다. 여성인물들은 전쟁을 거치며 요구되었던 가정과 국가에 헌신하는 ‘좋은’ 여성의 상과, 비난의 대상이던 성적 만족과 이익을 좇다 파멸하는 ‘나쁜’ 여성의 상 사이의 다양한 빛깔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작품에서 여성인물들은 자기 안에 잠재된 사회·역사적 비판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 창수댁의 정신 착란이나 소라의 인형 등이 얼룩처럼 남지만 이민선은 가족을 태우고 출항한다. 바로 여기에서 여성인물을 통해 당대를 문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에 대한 회의를 접어두고 근대화 논리에 수긍하는 여성 극작가의 모순된 정체성을 읽을 수 있다.

(나)

[부산에 도착한 첫날 밤 세 가족은 파티를 연다.]

창수댁: (한쪽이 터진 트렁크를 들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뚜껑을 덮으니까 또 터지겠죠. (돌아보지 않는 창수를 보고) 아니 여보, 당신은 남의 것을 보듯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려. (창수, 외면하고 서 있다.)

창 수: 인젠 제에발 그 구질구질한 짐작을 끌구 다니지 말자구 했잖소. [……] 바다 깊이 때 묻은 과거를 수장해 버리란 말요. 새로운 옷을 입으려거든 낡은 것을 미련 없이 벗어 버려야 하는 거야.

창수댁: (트렁크를 뺏으며) 안 돼요. 하나두 버릴 수 없어요. 이것들은 지난 세월을 말해 주는 웃음과 울음과 한숨이 섞여 부서진 감정의 파편들이예요.

창 수: (끌어 올리며) 지지리 못난 여편네야. (점점 흥분된 어조로) 우리는 내일 새벽 떠나는 거야. 우리의 이민선 썰카호를 타고 신천지를 향해 저 푸른 바다를 뚫구 나가는 거야.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다시 사는 거야. (돌아보며) 그러니 그 구질구질한 과거는 저 바다에 처넣으란 말이야. (광적인 몸부림으로) 자 여러분 술, (컵을 들고) 이 번쩍이는 소망에 행운이 있으라.

모 두: (술잔을 쳐들고) 브라보!

창수댁: 만세야, 이 노끈으로 같이 얽어매 보자. 손을 빌어라.

덕 찬: 자 누구든지 나와 춤을 춰요, 소리두 하구.

영 찬: 내 소리 한 마디 하겠어요.

모 두: 여—(좋아라 박수를 친다.)

영찬, 장타령*을 하며 신나게 엉덩이춤을 춘다. 모두들 손뼉으로 박자를 맞춘다.

창 수: 여보게들, 우리 이다음엔 상파울루 제일가는 호텔에서 만나세. 거기서 우린 샴페인을 펄펄 터뜨리구 갓 구운 칠면조 고기를 뜯으면서 우리들의 성공담을 신나게 지껄여 보세나, 하하…….

일동, 왁자지껄 웃어 댈다.

덕 보: (불쑥 튀어나오더니 목멘 소리로) 그, 그만들 하슈, 그만. (괴로운 듯 머리를 움켜쥐며) 제에발 부탁이오. [……] 그렇지 않아도 우린 거, 거지 떤……. (영찬, 천천히 일어선다.)

모 두: 뭐?

덕 보: (고개를 쳐들며) 유쾌한 거지 떤지 뭐니까?

- 김자림, 「이민선」 -

* 장타령: 동냥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며 구걸을 할 때 부르는 노래

1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만세는 이민선에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이민 의지로 일관한 반면, 보비는 이민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다가 변화한다.
- ② 창수는 브라질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이민의 현실을 낙관하는 반면, 덕보는 이민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다.
- ③ 덕보는 사회의 비정함을 비판하며 이민에 접근하는 반면, 소라는 순수함을 동경하며 이민에 접근한다.
- ④ 창수는 경제적인 성공이 이민의 목표인 반면, 만세는 예술을 통한 국위 선양이 이민의 목표이다.
- ⑤ 피양댁은 이민을 위해 가족을 새로 구성하는 반면, 득찬은 기존의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

17. 여성인물을 형상화하는 극작가의 관점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적 이해타산을 중시했던 피양댁을 통해 남성중심적 근대화가 요구하는 ‘좋은’ 여성상을 형상화한다.
- ② 물개에게 폭력을 당한 소리를 통해 남성중심적 근대화에서 희생되는 전후 여성의 현실을 형상화한다.
- ③ 이민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소리를 통해 성장 지향의 근대화에서 낙오된 전후 여성의 일면을 형상화한다.
- ④ 민족적 열정을 지닌 남성 주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보비를 통해 근대화의 논리에 젖어드는 전후 여성의 양상을 형상화한다.
- ⑤ 정신 착란에 빠진 채 이민선에 타게 되는 창수댁을 통해 근대화 과정에 강제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18.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쪽이 터진 트렁크’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② ‘바다’는 등장인물이 육체적 죽음을 극복하고 정신의 재생을 꿈꾸는 공간이군.
- ③ ‘이민선’은 격정적인 기억 속의 ‘신천지’로 등장인물을 인도하는 상징이군.
- ④ ‘노끈’은 등장인물의 파편화된 기억을 원래대로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군.
- ⑤ ‘장타령’은 낙관적인 기대에 부푼 등장인물들이 현재의 처지를 환기하도록 하는 계기이군.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만식의 소설 「탁류」는 1935년에서 1937년에 이르는 2년간의 이야기로, 궁핍화가 극에 달해 연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현실을 중요한 문제로 삼은 작품이다. 그런데 채만식이 「탁류」에서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 대한 작가의 민감한 시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다가 식민지적 상황 때문에 더욱더 굴곡진 수많은 우여곡절에 주목하였다. 채만식의 민감한 시선은 「탁류」에서 집중적으로 그려진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인간과 사물을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는 자본주의의 기제가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이윤 추구의 원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초봉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태수는 그런 초봉에게 끊임없이 베풀면서 초봉을 그녀의 ㉠ **고유한 영토**로부터 끌어낸다. 그런 베풀음을 순수 증여라고 해도 될까. 아니, 꽤나 검은 의도를 숨기고 행한 증여이니 그것은 사악한 증여라고 해야 할 터이다. 하여간 태수는 끊임없이 증여하고 선물 하면서 초봉의 고유한 모럴,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조금씩 무언가를 축적해 가는 삶의 방식을 회의에 빠뜨린다. 그리고 그 증여 행위를 집요하게 반복함으로써 초봉의 호의적인 시선을 얻어낸다. 하지만 그 순간이란 ㉡ **하나의 변곡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초봉에게 증여한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함으로써 초봉을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에 익숙해질 무렵, 제호가 초봉에게 접근한다. 제호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초봉의 육체를 돈으로 측량하고 그와의 거래를 제안한다. 초봉 또한 제호가 자신의 상품성을 그만큼 높게 봐 주자 이 거래를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비록 그 교환이 서로 간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었어도 이 거래 이후로 초봉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초봉에게 형보가 나타나 초봉과 송희 모녀의 호강을 구실로 가학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잉여의 성적 착취를 반복한다. 형보는 이 타락한 사회에 동화된 초봉이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될지라도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초봉의 거부감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초봉의 몰락’은 이렇듯 초봉이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자기화함으로써 ㉢ **영혼이 없는 자동인형**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봉은 아버지 정주사가 미두*로 일확천금을 꿈꾸듯 자신의 인격을 버리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어 나갔다. 자신에 대한 착취에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특히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기제의 ㉣ **노회함과 집요함**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탁류」에는 추악한 세상의 탁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 채만식은 「탁류」에서 그 특유의 냉정한 태도로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삶의 양태들을 냉소하고 풍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의 형식 혹은 보다 나은 미래를 가능케 할 잠재적 가능성이나 가치들을 끈질기게 탐색해 내었다.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자란다.”라는 ㉤ **휠딜린의** 말을

좀 뒤집어 말하자면, 「탁류」가 세상을 위협이 가득한 곳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위협 속에 같이 자라는 구원의 힘을 어느 정도 감지했기 때문이리라. 그 구원의 가능성은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초봉이 형보를 죽였다는 점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탁류」에는 개념의 위계를 갖춰 계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나 타락한 교환의 질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딸 송희를 낳으면서 초봉이 어머니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자유주의자이자 냉소주의자인 계봉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철칙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승재가 남에게 그저 베풀려고 하는 것도 모두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들 중에서도 초봉과 승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증여의 삶은 「탁류」가 타락한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길로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우리는 ‘증여의 윤리’라고 부를 수 있을 터이다.

* 미두(米豆): 미곡의 시세를 이용하여 약속으로만 거래하는 일종의 투기 행위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삶의 양태에 대한 소설가의 비판적 인식을 추적한다.
- ②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소설가의 내면 심리를 천착한다.
- ③ 궁핍으로 인한 연명의 문제보다 윤리의 문제를 중시한 소설가의 인식을 비판한다.
- ④ 인간의 존재론적 모순에 대한 소설가의 염세적 시선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를 반추한다.
- ⑤ 현실을 대하는 소설가의 이중적 태도를 인물들이 표방하는 이념의 분석을 통해 통찰한다.

11. 「초봉」의 몰락 과정과 관련하여 ㉠~㉥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본주의 기제로부터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족에 대한 증여자로서 ‘초봉’이 지녔던 순수한 영혼을 환기한다.
- ② ㉡은 ‘초봉’이 노동에 의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으면서 교환의 정치경제학이라는 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 ③ ㉢은 ‘초봉’이 물신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과 사물을 환금의 가능성으로만 파악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④ ㉣은 ‘초봉’의 몰락 과정이 순진성의 세계를 끈덕지고도 교활하게 파괴하는 식민지 근대화 과정과 상통함을 보여 준다.
- ⑤ ㉥은 구원의 힘이 역설적 방식으로 존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를 벗어날 힘이 ‘초봉’의 몰락 과정에서 생성되어 가기도 함을 시사해 준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계봉이는 승재가 오늘도 아침에 밥을 못 하는 눈치를 알고 가서, 더구나 방세가 밀리기는커녕 이달 오월 치까지 지나간 사월달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인 줄 잘 알고 있다.

계봉이는 승재의 그렇듯 근경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뻐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이 곳곳하게 들러지지 않을 것같이 무색하기도 했다.

“이게 어인 돈이고?”

계봉이는 돈을 받는 대신 뒷짐을 지고 서서 준절히 묻는다.

“그냥 거저…….”

“그냥 거저라니? 방세가 이대지 많을 리는 없을 것이고…….”

“방세구 무엇이구 거저, 웅색하신데 쓰시라구…….”

계봉이는 인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 번 까딱까딱하더니, “나는 이 돈 받을 수 없소.”

하고는 입술을 딱 다문다. 장난엿말로 듣기에는 음성이 너무 강경했다.

승재는 의아해서 계봉이의 얼굴을 찡찡이 건너다본다. 미상불, 여전한 장난꾸러기 얼굴 그대로는 그대로지만, 그러한 중에도 어디라 없이 기색이 달라진 게, 일중 오만한 빛이 드러났음을 볼 수가 있었다.

승재는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나의 뜻을 무슨 불순한 사심인 줄 오해나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비록 마음이야 담담하지만 일이 좀 창피한 것도 같았다. (중략)

계봉이는 문제된 오 원짜리 지전을 내려다본다. 아무리 웃고 말았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집어 들고 들어가기가 좀 안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시 안 가지고 가기는 더 안되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집어 든다.

- 채만식, 「탁류」 -

- ① 초봉을 전락시킨 돈은 이윤 추구 원리의 작동, 승재가 계봉에게 건네는 ‘돈’은 순수 증여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호는 속물주의적 논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승재는 ‘마음’의 가치를 통하여 자신의 선의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형보는 돈의 위력을 믿고 초봉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봉은 자존심 때문에 ‘근경 있는 마음자리’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태수의 과잉 증여와는 달리, 승재의 증여는 대가를 바라는 ‘불순한 사심’을 지니지 않은 것이기에 타락한 교환 세계에서 벗어날 희망의 표지로 볼 수 있겠군.
- ⑤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무의식적으로 자기화한 초봉과는 달리, ‘입술’을 딱 다무는 계봉의 모습은 ‘증여의 윤리’를 의식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소월은 낭만적인 슬픔을 소박하고 서정적인 시구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한 시인이다. 그러나 김소월의 슬픔은 「불놀이」의 슬픔과 그 역학을 달리한다. 주요한의 「불놀이」에는 슬픔에 섞여 생(生)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표현되었다가 곧 사라지고 만다. 이러한 주요한의 슬픔이 실현되지 아니한 가능성의 슬픔이라면, 소월의 슬픔은 차단되어 버린 가능성을 깨닫는 데서 오는 슬픔이다. 그는 쓰고 있다.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서 늙어서야 죽나니, 그리하면

그 역시 그럴 듯도 한 일을, 하필코 내 몸이라 그 무엇이 어찌서 오늘도 산마루에 올라서서 우느냐.

김소월에게서 우리는 생에 대한 깊은 허무주의를 발견한다. 이 허무주의는 소월이 보다 큰 시적 발전을 이루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허무주의는 그로 하여금 보다 넓은 데로 향하는 생의 에너지를 상실하게 하고, 그의 시로 하여금 한낱 자기 탐닉의 도구로 떨어지게 한다. 소월의 슬픔은 말하자면 자족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것 자체의 해결이 된다. 슬픔의 표현은 그대로 슬픔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시에서의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대개 이러한 일면을 갖는다. 문제는 그것의 정도와 근본적인 지향에 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감미로움과 체념의 평화로써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가 멜로드라마의 대단원처럼 분명한 긍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소월의 경우보다 더 깊이 생의 어둠 속으로 내려간 인간들을 안다. 휠덜린이나 릴케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깊은 절망이 된 다음 난폭하게 다시 세상으로 튕겨져 나온다. 그리하여 절망은 절망을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한 맹렬한 반항이 된다. 이들이 밝음을 긍정했다면, 어둠을 거부하는 또는 어둠을 들추어내는 행위 그 이상의 것으로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소월의 부정적 감정주의의 잘못은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사실보다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안으로 꼬여든 감정주의의 결과는 시적인 몽롱함이다. 밖에 있는 세계나 정신적인 실체의 세계는 분명한 현상으로 파악되지 아니한다. 모든 것은 감정의 안개 속에 흐릿한 모습을 띠게 된다.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주의가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이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란 ‘보려는’ 에너지와 표리일체를 이룬다.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이며, 여기서 바르게 본다는 것은 가치의 질서 속에서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는 거죽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수동적인 허무주의가 시적 인식을 몽롱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가령 랭보에게 있어서 어둠에로의 하강은 ‘보려는’ 에너지와 불가분의 것이며, 이 에너지에 있어서 이미 수동적인 허무주의는 부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월의 경우를 좀 더 일반화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 한국 낭만주의의 매우 중요한 일면을 지적할 수 있다. 서구의 낭만 시인들이 감정으로 향해 갔을 때, 그들은 감정이 주는 위안을 찾고 있었다기보다는(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리얼리티를 인식하는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들에게는 이성이나 감성과 직관이 진실을 아는 데 보다 적절한 수단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 서구 낭만주의의 가장 근원적인 충동의 하나는 영국의 영문학자 허버트 그리슨 경의 말을 빌리면, **형이상학적 전율**이었다. 이 전율은 감정의 침례(浸禮)를,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직관으로 변용시킨다. 한국의 낭만주의가 곁하고 있는 것은 이 전율, 곧 사물의 핵심에까지 꿰뚫어 보고야 말겠다는 형이상학적 충동이었다. 이 결여가 성급한 허무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러면 소월의 허무주의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인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자전적인 사실이 거기에 관여되었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정신적 지평에 장기(瘴氣)*처럼 서려 있어 그 모든 활동을 힘없고 병든 것이게 한 일제 점령의 중압감이었을 것이다. 소월은 산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고 되풀이하여 묻는다. 그러나 이 물음은 진정한 물음이 되지 못한다. 그는 이 물음을 진정한 탐구의 충동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는 이미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같다는 답을, “잘 살며 못 살며 할 일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산다는 ……”(「어버이」)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또 한 번 물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원인인가 하고,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그에게는 ‘보려는’ 에너지, ‘물어보는’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허무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나 질문의 포기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첫째 원인은 누구나 알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월이 그의 절망의 배경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의 시는 조금 선명해진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은 그의 절망에 정치적인 답변을 준 드문 시 가운데 하나이다.

* 장기: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한 기운

17. 윗글에 나타난 김소월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둠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 ② 시대상황 때문에 어둠의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 ③ 자기 연민과 체념의 감미로움을 부정하고 어둠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
- ④ 어둠의 세계에 대한 깊은 절망을 생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표출하고 있다.
- ⑤ 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통해 밝음이 사라진 세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18. ㉠과 ㉡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내적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② ㉠이 ㉡처럼 성공하지 못한 것은 목표를 향한 조급한 열정 때문이다.
- ③ ㉡은 ㉠과 달리 선명한 시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 ④ ㉡은 ㉠과 마찬가지로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다.
- ⑤ ㉠은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은 보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19. 형이상학적 전환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상세계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제시한다.
- ②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지향한다.
- ③ 자기 밖으로 향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④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직관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 ⑤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진정한 탐구의 충동을 바탕으로 한다.

20. 필자가 지향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시는?

- 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일상을 명징하게 표현한 시
- ② 세계에 대해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시
- ③ 한(恨)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위로하는 시
- ④ 현실의 진면모를 파악하려는 열의를 담은 시
- ⑤ 집단적 슬픔으로써 개인적 슬픔을 초월한 시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춘수와 김수영은 대척되는 위치에서 한국 시의 현대성을 심화시킨 시인들이다. 김춘수는 순수시론의 일종인 ㉠ 무의미시론으로 새로운 해체시를 열어젖혔고, 김수영은 ‘온몸의 시학’으로 알려진 ㉡ 참여시론으로 현실참여시의 태두가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했던 두 시인은 개인의 자유와 실존이 위협을 받던 1960년대의 시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실존 의식과 윤리관을 예각화하면서 시적 언어와 창작 방법에 대한 성찰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두 모더니스트가 선택한 미학적 실험은 그 방향이 사뭇 달랐다.

김춘수는 「꽃」과 같은 자신의 1950년대 시가 ‘관념에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시적 언어는 제 구실의 가장 좁은 한계, 즉 관념과 의미 전달의 수단에 한정되었고 시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관념을 전달하는 이미지·비유·상징과 같은 수사에 대한 집착은 이런 맥락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김춘수는 말의 피안에 있는 관념이나 개인의 실존을 짓누르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포를 느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 자아를 보존하려는 충동이 그를 ‘생의 구원’으로서의 시 쓰기로 이끈 것이다. 그 방법으로 김춘수는 언어와 이미지의 유희, 즉 기의(記意) 없는 기표(記標)의 실험을 시도하였다. 기의에서 해방된 기표의 유희는 시와 체험, 시와 현실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물론 역사 현실과 화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시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비유와 상징은 물론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까지 시에서 배제하는 기법 및 형식 실험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로 대체하여 의미를 덧씌울 중심 대상을 붕괴시키고, 마침내 대상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가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무의미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다. 물론 대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과정에는 창작자의 의식과 의도가 개입해야 한다. 이 점에서 무의미시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한 초현실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자유연상 혹은 자동기술과 예술적 효과가 흡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김춘수는 언어 기호를 음소 단위로까지 분해하거나 시적 언어를 주문이나 염불 소리 같은 리듬 혹은 소리 이미지에 근접시키기도 하였다. 김춘수의 「처용단장」 제2부는 이런 시적 실험들의 진면목을 드러낸 작품이다.

김춘수에게 시 쓰기란 현실로 인해 빚어진 내면의 고뇌와 개인적 실존의 위기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생을 구원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었다. 이와 달리 김수영에게 시 쓰기란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정권과 대결하고 정치적 자유의 이행을 촉구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노래하는 것이었다. 4·19 직후의 풍자시는 참여시 실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참여시론의 핵심은 진정한 자유의 이행을 위해 ㉢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나가는 것’이란 모순어법으로 집약된다. 이는 내용과 형식은 별개가 아니며 시인의 사상과 감성을 생활(현실) 속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시의 현대성은 실험적 기법의 우열보다는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시인의 양심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김수영도 김춘수가 추구한 무의미시의 의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 역시 ‘무의미’란 의미 너머를 지향하는 욕망,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는 것이고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김춘수가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너무 협소한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무의미의 추구도 되겠지만, ‘의미’를 꺼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구체함으로써 무의미에 도달하는 길”도 있다는 김수영의 말은 주목된다. 그는 김춘수처럼 시어의 무의미성에 대한 추구로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도 현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효한 실험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시어의 의미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마침내 시의 무의미성에 도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시인의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김수영은 김춘수의 궁극적인 꿈이기도 했던 시와 예술의 본질 혹은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까지 도달하기 위해 오히려 시어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시와 현실의 접촉을 늘려 세계 변혁을 꾀하는 현실 참여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실제로 그의 참여시는 시와 산문의 언어적 경계를 허물어 산문적 의미까지 시에 담아내려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일상어·시사어·관념어, 심지어 비속어와 욕설까지 폭넓게 시어로 활용하여 세계의 의미를 개진하고 당대 현실을 비판할 수 있었다.

사실 김춘수의 시적 인식은 김수영의 그것에 대한 대타 의식의 소산이다. 김춘수는 김수영을 시와 생활을 구별하지 못한 ‘로맨티스트’였지만 자신의 죽음까지도 시 쓰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훌륭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김춘수는 세계에 대한 허무감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자신과 달리 김수영이 현대 사회의 비극적 운명에 ‘온몸’으로 맞서는 시인의 윤리를 실천한 점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김수영의 시와 시론에서 시와 예술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발견했던 것이다.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세계에 대한 허무 의식을 극복했다.
- ② ㉠은 시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형식이나 기법이라고 여겼다.
- ③ ㉡은 해체시 실험에 치중하면 현실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다.
- ④ ㉡은 시어의 범위와 시의 내용을 확장하여 시의 현실성을 강화했다.
- ⑤ ㉠과 ㉡은 모더니스트였던 시인의 예술관과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 준다.

8. 윗글의 김수영에 대한 서술을 근거로 ㉠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동일한 존재가 행위의 수단이자 행위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 ② ㉠은 현실 도피 대신에 현실 참여를 시인의 윤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은 정치 현실로 인해 억압된 자유를 되찾으려 했던 시인의 고뇌를 담고 있다.
- ④ ㉠의 행위 자체가 형식인 시에서 내용은 시인이 느끼는 사상과 감성에 관련된다.
- ⑤ ㉠은 실험적 기법이 시의 현대성을 성취하는 근본 요건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9. 김춘수와 김수영의 **공유된 인식**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체적인 삶의 지향을 통한 자아의 보존
- ② 개인의 실존을 억압하는 현실의 부조리성
- ③ 의미가 제거된 시어의 활용 가능성
- ④ 시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무의미성
- ⑤ 시와 세계의 화해 불가능성

10. 윗글에 비추어 <보기>의 시 쓰기 방법을 평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불러다오
 멕시코 옥수수는 어디 있는가

- 김춘수, 「처용단장」 제2부에서

- ① 김춘수는 <보기>에 외래어와 관념어를 사용하면 시적 언어를 확장하고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② 김춘수는 <보기>의 엽불 소리 같은 강렬한 청각 영상과 리듬감은 현실이 초래했던 고뇌와 공포를 상징한다고 여겼을 것이다.
- ③ 김수영은 <보기>가 ‘사바다’를 비하하여 ‘말더듬이 일자무식’에 비유함으로써 당대 현실을 풍자한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 ④ 김수영은 <보기>의 무의미성이 시어의 의미를 포기한 결과이므로 진정한 자유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을 것이다.
- ⑤ 김춘수와 김수영은 모두 <보기>가 의미를 덧씌운 대상을 붕괴 시킴으로써 새로운 내용적 요소를 담을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에이츠는 어느 편지에서 “내게 지상 목표는 비극 한가운데서 사람을 환희하게 만드는 신념과 이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라고 하면서, “동양은 언제나 해결이 있고, 그러므로 비극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오. 영웅적인 절규를 발해야 하는 것은 우리지 동양은 아니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대조는 기실 동서양분론에 기초를 둔 혼란 관념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 대조가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에이츠의 견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근대 한국시의 몇몇 순간들은 **비극적 황홀**을 볼 수 있는 에이츠의 만년의 시 「유리」에 비길 만하기 때문이다.

햇빛과 리어는 즐겁다
 두려움을 송두리째 변모시키는 즐거움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찾고 그리곤 놓쳤다
 암흑, 머릿속으로 타들어 오는 천국
 비극이 절정에 달할 때

근대 한국시사에서 황매천과 이육사와 윤동주가 보여주는 비극적 황홀의 순간들은 그들이 상황에 참여한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유생이며 전통적 원칙주의자인 황매천은 소극적 저항의 삶을 살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한다. 그는 일제의 국권 강탈에 항거하여, “난리를 겪어 나온 허여센 머리/죽재도 못 죽는 게 몇 번이더뇨./오늘에는 어찌할 길이 없으니/바람 앞의 촛불이 창공 비추네.”라는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바람 앞의 촛불’의 이미지로 자신이 성취한 비극적 황홀의 순간을 표현했던 것이다.

어려서 한학을 배운 이육사의 시는 겉으로는 형식적인 균형과 절제에 바탕을 둔 고전적인 풍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의 시는 현대적인 혁명가로서의 이상주의를 품고 있다. 혁명가로서의 삶을 가장 힘차게 나타낸 작품 「절정」에서 시인은 자신이 부딪치게 된 식민지 상황을 한계상황으로 표현한다. 시인은 자신이 비극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고 ‘겨울’ 즉 ‘매운 계절’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본 것이다. 이 비극적인 비전은 또 하나의 비극적 황홀의 순간을 나타내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시인이 자기가 놓인 상황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의 객관적인 이미지를 발견함을 본다.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윤동주는 비록 비극적인 종말을 맞기는 했지만, 황매천처럼 가차 없는 비평가도 아니었고, 이육사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투사도 아니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시대를 괴롭게 살다 죽어간 외롭고 양심적인 문학도였다. 그의 생애의 수동적인 외관과는 달리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일종의 황홀 가운데서 꿈꿀 정도로 민족주의적이었다. 그의 소원이 실현될 때까지 “모가지를 드리우고/꽃처럼 피어나는 피”(「십자가」)를 흘림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에서 놓여나기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인들의 비극적인 비전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비전은 사유와 관조 또는 명상의 산물이었다. 말을 바꾸면 그것은 시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얻은 충분히 자각된 비전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동양인의 정신에

특유한 초연함과 달관의 상태로 생각된다. 동양에서 비극적인 순간은 흔히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보다 초연한 관조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예이츠가 생각한 것처럼 동양에는 비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양처럼 열정적이거나 야단스럽지는 않을지라도 그 나름의 비극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다룬 모든 시인에게 공통된 또 하나의 특징은 시인이 그러한 비극적 순간의 작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동양에 있어서 시의 전통적인 개념 및 성질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중국에서 시에 관한 오래된 정의는 ‘마음속에 있는 바의 발언’, 즉 ㉠ ‘언지(言志)’이다. 이러한 뜻에서의 시는 작품과 시인 사이의 구별을 용납하지 않는 개인적이며 서정적인 시이다. 허구로서의 ‘포에시스’의 개념과는 반대로 동양에서 시는 시인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수양의 일부이며 내면생활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비극이 허구적인 세계에 형상화된 경우로 존재하지 않고, 비극이 있다면 시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비극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 예이츠가 만년에 시적 계획으로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적인 이상으로서 매우 골몰했던 바이다. 그것은 그의 ‘지상 목표’였으며, 그가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찾고 그리곤 놓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극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 본 세 사람의 한국 시인들은 이 어려운 이상을 그들의 삶과 시에서 실현했으며, 적어도 황매천과 이육사의 경우 그들의 비극적 황홀의 시적 가치는 기이하게도 예이츠의 인식과 흡사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황매천은 시대 현실에 초연한 덕분에 시적 성취에 성공했다.
- ② 이육사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갈등을 자신의 한계상황으로 인식했다.
- ③ 황매천과 이육사는 예이츠가 추구했던 시적 계획을 실제 삶에서 구현했다.
- ④ 황매천과 윤동주는 원칙과 신념에 따라 능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 ⑤ 황매천, 이육사, 윤동주는 모두 종교로 인해 빚어지는 내적 갈등을 창작에 담아냈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시인의 도야된 인격을 담는 언어적 구성물로 본다.
- ② 시를 시인의 개인적인 서정을 담은 허구적 표현물로 본다.
- ③ 시를 현실을 초월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표현한 정신적 생산물로 본다.
- ④ 시를 세련된 언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심미적 구조물로 본다.
- ⑤ 시를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문화적 창조물로 본다.

12. 비극적 황홀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의 비극적 삶은 시에서의 비극적 황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② 비극적 황홀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 외에 작품을 창작하는 작자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③ 비극적 상황에 놓인 주인공의 비극적 황홀을 통해 독자들의 현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상적인 서정시이다.
- ④ 비극적 황홀은 주인공의 신념에 찬 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관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 ⑤ 햄릿이나 리어 같은 주인공이 도달한 비극적 황홀은 절망적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체험이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환기, 「향아리」

향아리, 조형의 극치. 향아리의 선에서 미의식은 출발한다. 민족의 정서는 향아리의 선이 조형한다. 빛깔 또한 그렇다. 단순한 순백의 결정체. 미를 깨안시킨 원형 상징. 수화(樹話) 김환기의 향아리 사랑이다. 수화에게 향아리는 예술혼을 깨우는 생명체이다. 수화는, “희고 맑은 살에 따라 청백자 향아리는 미묘한 변화를 창조한다. 칠야삼경(漆夜三更)에도 뜰에 나서면 허연 향아리가 엄연하여 마음이 든든하고 더욱이 달밤일 때면 향아리가 흡수하는 월광으로 인해 온통 내 뜰

에 달이 짝 차 있는 것 같다.”고 황홀해했다. 그러면서 ㉠ “사람이 어떻게 흠에다 채운을 넣었을까.” 탄복했다. 그에 의해 향아리는 인격을 획득했다.

수화의 ㉡ 「향아리」. 향아리가 흡수하는 월광으로 세상이 충만하다고 감탄했던 바로 그 순간이다. 달은 향아리를 조형하고 향아리는 달을 모방한다. 희고 푸른 빛을 발산하며 서로 흡수한다. 자연(달)과 인간(향아리)의 교혼(交魂)이다. 경계의 무화(無化). 제목이 「달과 향아리」가 아니라 「향아리」인 이유다. 질량을 버린 향아리와 달은 우주적 합일을 감행하는 듯하다. 도안과 같은 평면, 장식과 수사를 제거한 극도의 단순성만으로 무한한 정신세계를 조형한다. 이처럼 수화는 대상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간결하고 밀도 있는 표현. 절제된 형식은 달빛을 조형하는 데 적격이다. ㉢ 비울수록 더욱 채워지는 것. 이른바 채워진 허(虛)의 역설이 그것이다.

월산대군의 다음 시조를 보라.

┌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가)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가을 저녁, 월산대군은 강에 당도했다. 경치는 황홀했을 것이다. 시종들이 동행했을 것이고 한담을 나눌 벗도 함께했을지 모르겠다. 낚시를 드리웠으나 고기는 입질조차 없었다. 빈 배의 귀환.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조화인가. 실었으되 비었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온다는 깨우침, 바로 그것이다. 달빛은 실재하며 부재한다. 그러므로 빈 배는 달빛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 대군은 소유와 집착을 버릴 때 정신이 충만해졌다.

그리고 여기 또 한 향아리. 수화의 ㉣ 「향아리와 시」. 그림은 특별히 서정주의 「기도 1」을 병기했다. 비처럼 흐르는 깔끔하고 소박한 서체는 화려하게 만발한 흰 꽃, 백자와 절묘하게 호응한다. 꽃은 화환을 빚어 잔치를 벌인다. 불꽃같다. 흰빛 속 붉은 점경이 평면에 탄력과 입체감을 선사한다. 장식적 요소가 화면 전체



김환기, 「향아리와 시」

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횡적 배치는 이를 더욱 자극한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다. 그림은 화려한 만큼 슬픔을 내장한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슬픔이라니. 시를 읽을 때 확인한다.

(나) 저는 시방 텅 비인 향아리 같기도 하고, 또 텅 비인 들녘 같기도 하옵니다. 하늘이여 한동안 더 모진 광풍을 제 안에 두시든지, 날으는 몇 마리의 나비를 두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가니와 같이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시방 제 속은 꼭 많은 꽃과 향기들이 담겼다가 비어진 향아리와 같습니다.

화자는 텅 비인 향아리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한다. 향아리처럼 비었다며 슬픔을 호소한다.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꽃은 빈 향아리의 공허를 더욱 고조한다. 흰 꽃에 가려 화면 왼쪽 뒤로 물러서 선 백자는 애처롭다. 꽃향기 가득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을 토로하는 화자의 신세 같다. 모진 광풍이라도 채워 달라는 화자의 호소에서 허전함이 감지된다. 반이라도 채워 달라는 인간적 솔직함 앞에서 비워야 채워진다는 태도는 얼마나 무력한가. 비워 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야 비워진다. 채움과 비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달빛을 채운 향아리가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꽃 장식 뒤의 향아리가 허전해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35. 글쓴이의 설명을 따를 때, ㉠,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그림의 주제를 형식 그 자체로 드러내고, ㉣은 시의 주제와의 대립을 통해 드러낸다.
- ② ㉠은 달과 향아리를 조응시켜 충만감을, ㉣은 꽃과 향아리를 대비하여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대상의 단순성을 통해 정신적 허무를, ㉣은 화려한 장식성을 통해 생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수직 구도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은 수평 구도를 통해 이념과 욕망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은 향아리를 전경화해서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고, ㉣은 향아리를 배경화하여 사상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6. 위 글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무에서 무로 귀결되는 삶의 비애를 이념으로 극복하고 있다.
- ② (가)는 체념과 달관을 통해 도달한 정신적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③ (나)는 무소유를 꿈꾸다 소유를 지향한다.
- ④ (나)는 현실의 슬픔을 현실적 대안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 ⑤ (가)는 유유자적한 탈속의 풍경을, (나)는 반복되는 일상의 허무를 담고 있다.

37. ㉠의 주제 의식을 ㉡의 표현 방법으로 나타낸 시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이얀 자기(磁器)/이조(李朝)의 병(瓶)아/빛깔 회고도 다사로 읊고/소박하면서 꾸밈없는 숨씨야/진실로 진실로/아버지와 할아버지/산림처사의/무명 도포다.
- ② 한 떨기 이울면은/또 한 송이 피어나듯//청자를 보듬은 채/백자 빛은 정성//파란의 오백년 하늘이/점멸되어 흐른다.
- ③ 겨울 창가에/도사려 앉은 백자 향아리는/차갑고도 따뜻하다.//손바닥으로 그의 뱃전을 더듬으면/싸늘한 것이 와 닿지만,/그것이 내 심장 언저리에/와 부딪칠 때는/벌써 뜨거운 것이 되어/스민다.
- ④ 길어 내리는, 길어 내리는,/하늘 가득 먼 푸름 향아리배여./입술 갓을 빨고 가는/따스한 햇볕,/알맞은 보편 배의/자랑스러움이여.
- ⑤ 질그릇 하나 부서지고 있다./질그릇의 밑바닥에 잠긴 바다가/조용히 부서지고 있다./스스로 부서져 흩이 되는/저 흔들리는 바다./그릇에 담긴 생선의 뼈, 질그릇에 담긴 폭풍,/질그릇에 담긴 공간,/그 공간 하나 스스로 부서지고 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브레송, <자코메티>(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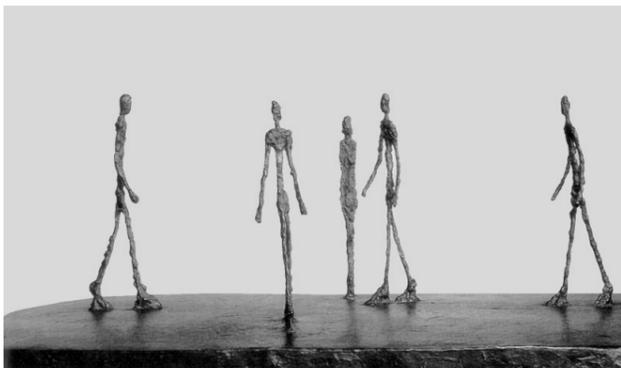
비가 내린다. 파리 이폴리트맹드롱 거리. 비는 허공에 머물다 하강한다. 비는 스스로 자신의 무게를 벗고 지면을 향한다. 도로를 흥건히 적신 비. 비는 수직선(線)의 형상을 벗고 지상과 만나면(面)이 된다. 산화(散華)하는 비. 세상에 부치는 마지막 인사. 수직의 빗줄기는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를 연상시킨다. 비는 실존의 감각적 형상이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

비좁은 작업실에서 잠깐 거리로 나섰다. 건널목을 건너는 자코메티를 브레송은 재빨리 포착했다. 찰나적 순간을 잡아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귀재. 그래서일까, 사진 속 자코메티는 ‘어어’ 하며 이곳을 그저 응시할 뿐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 두 발은 대지와 밀착돼 있다. 노출을 꺼리는 은둔자는 이렇게 우리와 마주했다.

“이 세상에 결정적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브레송의 예술 세계를 잘 요약한다. 결정적 순간을 탐식하듯 포착하는 브레송의 축수는 이처럼 날렵하다.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유쾌시켜 작업실에서 38년을 은둔한 자코메티. 작업만이 그가 세계와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유일한 행동이었다. 오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한 그도 브레송의 더듬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자코메티. 그의 은둔적 기질은 유년기부터 그를 포박했다. 사물과 사물이 공간의 심연에 의해 격리된다는 막연한 불안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사물이 격리되고 서로 단절되는 것과 인간 사이의 그것을 동일시했던 것이다. 이때부터 단독자로서의 개인을 발견했고 불안과 손잡았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미의식을 맞추기 시작했다. 인간이란 공포와 불안에 직면할 때가 많지 않은가. 자코메티는 사람 사이의 그러한 단절을 끝까지 밀고 갔다.



자코메티, <광장II>(1947~1948)

가늘고 긴 형상,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질량은 배제돼 마치 정신만이 남은 듯한 일련의 인간 시리즈는 이렇게 태어났다. 그는 인간의 모습을 가늘고 긴 뼈대로 조형함으로써 극도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의 고립감을 제시했다. 과장된 발의 크기는 대지와 밀착돼

고립 상태를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그들은 한 공간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한다. 인간은 끊임없이 연계를 꿈꿔도 본래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증언한다. 물질적인 요소가 최대한 제거된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아프게 재현된 것이다.

부피와 질량을 제거한 가늘고 긴 입상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비의 형상을 닮았다. 비처럼, 인간 역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리라. 운명이다. 비, 그리고 그가 조형한 입상은 수직이다. 자코메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자신이 조형한 입상처럼 숨을 들 췄 서 있다. 전면에 불편하게 시야를 가리는 나무는 그를 가두는 것처럼, 그러나 그와 수직으로 만나 팽팽하게 긴장한다. 바다의 건널목 표지는 그가 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등 같다. 그러나 그는 망설인다. 침거와 외출, 격리와 연계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그때 브레송은 자코메티의 광장 속 외로운 수직 입상들을 떠올렸으리라. 그리고 그를 재빨리 포착했다. 순간 고독한 은둔자의 진면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 결정적 순간이다. 그를 둘러싼 현상이 아연 생기를 띤다. 전면의 나무, 그리고 자코메티, 그의 왼쪽 뒤로 우뚝 선 나무는 사선으로 위치해 평면에 깊이를 준다.

이폴리트맹드롱 거리, 비가 내렸다. 빗줄기처럼, 외롭게 수직으로 선 자코메티. 비처럼, 그 역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리라. 아래 시의 새처럼, 우리 모두 그러하리라.

새들도 마지막엔 땅으로 내려온다.
죽을 줄 아는 새들은 땅으로 내려온다.
새처럼 죽기 위하여 내려온다.
허공에 떴던 삶을 다 데리고 내려온다.
종종거리다가
[A] 입술을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다.
죽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서 있다.
아름다운 듯 서 있다.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들고
정신의 땀을 흘리고 있다. - 최문자, 닿고 싶은 곳 -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코메티의 작품을 그의 전기적 사실과 연결하여 해석하고 있다.
- ② 자코메티의 입상과 비의 외형적 유사성에서 공통적 속성을 유추하고 있다.
- ③ 브레송의 사진을 통하여 자코메티의 예술적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자코메티와 브레송의 작품을 대비하여 사진과 조각의 예술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직적인 구도를 중심으로 브레송의 사진과 자코메티의 조각을 연결하여 인간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다.

36.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과 상황이 피사체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다.
- ② 피사체의 감춰진 본성이 사진을 통해 잘 드러나는 순간이다.
- ③ 사진작가가 이끄는 대로 피사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 ④ 사진작가의 예술적 감각이 피사체 포착의 관건이 되는 때이다.
- ⑤ 사진 예술이 추구하는, 현장에서의 미적 정수가 구현된 경우이다.

37. 위 글의 맥락에 따라 [A]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죽을 줄 아는 새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게를 벗고 스스로 산화하는 비처럼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 ② ‘허공에 뿔뿔이 날던 새들이 ‘다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고립이라는 극도의 한계 상황에 처한 인간이 타인과의 유대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새가 ‘입술을 대고 싶은 슬픈 땅’을 찾는 것은, 브레송의 사진에서 자코메티의 앞에 건널목 표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 ④ ‘죽지 못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듯’ 서 있는 것은, 자코메티의 작품 속 입상들이 서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것과 상통한다.
- ⑤ ‘참을 수 없는 무게’를 들고 ‘정신의 땀’을 흘리는 것은, 자코메티가 작업 활동에 매진했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답

LEET,MEET,DEET,PEET 문학 기출 정답

- 1.현대소설 <동굴> 이승우 2005 MEET 예비 (4,1,5,5)
- 2.희곡 <신화 1900> 윤대성 2005 MEET 예비 (4,5,3)
- 3.현대소설 <퐁금이 있던 자리> 신경숙 2005 MEET (2,5,1,5)
- 4.현대소설 <환시기> 이상 2006 MEET (5,1,4)
- 5.희곡 <좋은 녀석들> 이만희 2006 MEET (2,3,2)
- 6.현대소설 <탈향> 이호철 2007 MEET (3,5,3)
- 7.희곡 <자전거> 오태석 2007 MEET (2,4,3)
- 8.현대소설 <재수 없는 음의환향> 송기숙 2008 MEET (1,1,1,4)
- 9.시나리오 <안개> 김승옥 2008 MEET (3,4,3,5)
- 10.희곡 <아벨만의 재판> 이근삼 2009 MEET (5,1,2)
- 11.현대소설 <수레바퀴 속에서> 김향숙 2009 MEET (3,3,5)
- 12.현대소설 <달궁> 서정인 2010 MEET (2,1,2)
- 13.희곡 <우리 시대의 리어 왕> 이윤택 2010 MEET (5,3,2)
- 14.현대소설 <내 여자의 열매> 한강 2011 MEET PEET (1,5,2)
- 15.현대소설 <추일 서정> 서하진 2012 MEET (5,1,1)
- 16.현대소설 <남한산성> 김훈 2010 PEET 예시 (1,4,3)
- 17.현대소설 <천지간> 윤대녕 2010 PEET 예비 (4,3,3)
- 18.현대소설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2009 LEET 예비 (4,5,4)
- 19.현대소설 <전황당인보기> 정한숙 2009 LEET 예비 (4,4,5)
- 20.현대소설 <먼 그대> 서영은 2009 LEET (2,3,4)
- 21.희곡 <파우스트> 괴테 2009 LEET (1,4,5)
- 22.희곡 <영월행 일기> 이강백 2010 LEET (5,3,3)
- 23.현대소설 <지상의 방 한 칸> 박영한 2012 LEET (5,2,1)
- 24.현대소설 <아르판> 박형서 2014 LEET (1,2,1,4)
- 25.현대소설 <가면의 꿈> 이청준 2017 LEET (3,3,1,1)
- 26.독서융합 <이민선> 김자림 2023 LEET (1,1,5)
- 27.독서융합 <탁류> 채만식 2020 LEET (1,2,5)
- 28.독서융합 김소월 & 주요한 2015 LEET (2,3,1,4)
- 29.독서융합 김춘수 & 김수영 2016 LEET (1,5,1,4)
- 30.독서융합 황매천 & 이육사 & 윤동주 2018 LEET (3,1,2)
- 31.독서융합 김환기와 향아리 2012 MEET DEET (2,2,3)
- 32.독서융합 브레송이 포착한 자코메티 2011 MEET DEET (4,3,1)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